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원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2-152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8월 1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34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가정불교 미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사는 김경자씨 가족은 매일 아침 가족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5년 전 부인 김씨의 권유로 봉은불교대학을 졸업한 남편 전봉수씨가 매일 아침 천수경, 화엄경 등 경전을 독송하며 시작된 가족법회에 아들 딸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있다. IMF로 힘들었던 지난 해에도 가족이 일심으로 기도정진하며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 나갔다.

김씨 부부는 "가족법회를 통해 가족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노력하다보니 남들보다 안정되고, 생활이 즐겁다"고 말한다. 건강한 불자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도량이요, 가족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은 바로 우리 스스로 섬겨야 할 부처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불자가정에서의 가족법회를 통한 신행생활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고, 가족을 불자로 이끄려는 노력도 미미한 실정이다.

식사때 공양게송 등
가족법회 활성화해야

지난 해 10월 본사가 실시한 가족법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족법회를 봉행하는 가정은 10곳 중 2곳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가족법회를 봉행하는 불자들 중 절반가량인 45.6%가 불규칙하게 봉행하고 있어 아직 가족법회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불자들의 가족불자화에 대한 소극성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온가족이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가르침과 행복은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가족법회를 여는 일이 힘들다면 생활속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식사 때마다 공양게송을 함께 독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각종 불자가정의례와 발원문 등의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가족법회교재도 선보이고 있어,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온가족이 한 자리에서 가족법회를 시작할 수 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애정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은행지로 : 8003478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6223 외환은행 : 189-13-03929-3
예금주 : 불교방송
(우)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마보빌딩 (전화 : 02-705-5560~1)

통도사 부산포교원 '한나래 문화재단' 설립

'문화로 포교' 새모델 제시

문화 · 예술 · 복지등 강좌 개설…청소년예술제도 주관

통도사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이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종교를 초월한 폭넓은 문화포교에 나선다. 통도사부산포교원은 부산시에 문화재단 설립 관련 서류를 접수시키고, 16일 보충 자료 제출만을 남겨놓은 상태여서 8월말 허가와 등록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계 최초로 설립되는 문화재단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한나래문화재단. 다양한 문화행사와 강좌로 호응을 얻고 있는 통도사부산포교원의 사회적 활동폭을 넓히고, 불교계 문화포교의 전문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족과 크다는 뜻의 '한'과 융비한다는 의미의 '나래'를 합친 한나래문화재단은 우리 민족 정신의 중심에서 서온 불교사상을 근간으로 우리문화 창달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문화, 예술, 복지, 국제, 체육을 선정해 놓고 있다. 한나래문화재단의 설립은 이런 각종 문화행사, 문화강좌에 일반인의 참여폭을 넓히고 개설 강좌의 수준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목적사업은 이미 통도사 부산포교원 부설기관인 국제포교부와 문화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도, 한지공예, 송권빚기, 전래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국제포교부의 외국인 우리문화기행과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대상의 사물놀이, 가야금, 판소리, 대금, 단소 등의 전통문화 강좌를 문화관에서 진행중이다. 특히 불교계 최초 잔문무용단 우바이무용단의 활동은 빼놓을 수 없다.

심산스님은 "문화재단 설립은 포교활동의 객관성, 일반성을 확보하는 효과와 시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종교적 한계를 뛰어넘는 포교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 부산포교원은 한나래문화재단 설립을 계기로 부산일보사 주최의 전국청소년예술제를 주관해 9월 19일 부산교육대학에서 개최한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가하게 될 이번 행사는 시조창, 시조백일장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전한 문화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한마음으로 다시서자 '구슬땀' "아주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있는 그릇부터 닦으면 되겠지요" 수미가 함뿌고간 상처를 말끔히 씻어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빠르다. 조계종 자원봉사단 3백여명은 연천 파주 문산일대 수해현장에서 일반기정과 상기 유치원 등의 가재도구 정리와 청소, 빨래등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을 위로했다. (관련기사 23면)

8·15법회 남북 동시 타종

"7천만 민족 희망의 큰걸음 염원"

분단희생자 천도재도

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발원이 깃든 범종소리가 분단이후 처음으로 광복절날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울려퍼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은 15일 오후 2시 남한의 조계사와 북한의 보현사에서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기원 8·15 남북불교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남북불교회담을 통해 사전에 교환한 남북불교대표 인사말과 공동발원문이 낭독됐다.(발원문 2면)

고산스님은 법회 인사말에서 "화합과 공생의 부처님 자비사상을 지켜가는 우리 불제자들이 맨앞에 서서 통일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도 "오늘 이처럼 성대한 조국통일기원 동시법회를 갖는 것은 통일을 위해 북남 불교도들이 내딛는 또하나의 큰 걸음이다"고 밝혔다.

남북불교 동시법회는 사전행사로 12시부터 통일기원 타종과 함께 분단희생자 천도영산재를 봉행했다.

한편 민족화합과 광화통일을 위한 '99 불교도 전국순례단(공동단장 현각, 도각)은 9일 법어사 보제루에서 출범식을 갖고 대구 진주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수원을 거쳐 15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시민캠페인을 전개하고 조계사 8·15법회에서 회향하여 분위기를 돋궜다. 김원우 기자

"종단진흥회 해체"
종단협 회의 '결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는 9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8월 정기 대표자회의를 열어 종단진흥회에 관해 논의하고 회장 중심으로 단결해 불교발전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총화종 원융종 등의 종단이 친목 목적으로 96년 결성한 종단진흥회가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종단협은 또 수해이재민 구호사업의 적극 추진, 지하철역사 포교벽보판 설치 사업 후원 등을 결의했다. 정성운 기자

구산선문 참선 기행

9월 : 희양산문(봉암사) · 대승사 · 김용사

9월에는 지증선사 도헌스님(824~882)에 의해 개창된 희양산문의 중심도량 봉암사를 찾아갑니다. 봉암사에서는 지증대사 부도(보물 제137호)와 삼층석탑(보물 제169호)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천오백년 고찰 대승사에서는 화려한 목각탱,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김용사에서는 괘불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82년 조계종 특별수도 도량으로 지정된 봉암사는 1년에 15일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이번 기행은 봉암사를 참배할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출발: 9월 4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안내: 지광스님(김용사 주지)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생명나눔 8월 대법회

헌혈·화장 유언 사후장기기증 서약

◇1차: 8월 25일(백중 · 수요일) 오전 10시 신촌 봉원사
◇주최: (사)생명나눔실천회 ·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734-8050(생명나눔) (02)392-3008(봉원사)

"민영교도소 운영 시기상조"

조계종, 법무부에 반대입장 전달

조계종은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특정 종교단체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법제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3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조계종은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준비단계를 거치지 않은 민영교도소의 운영은 성급한 시도"라며 "단계별 시행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또 "교정시설의 운영주체를 영리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외국의 운영사례에서와 같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적은 인원에 부과된 과중한 업무량, 이에 따른 재소자의 인권유린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조계종은 이에 따라 법제정에 앞서 △종교단체 교정활동에 대한 평가작업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민간 전문인력 양성 대책수립 등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정성운 기자

사찰과 협의된 곳부터
공원입장권 당일사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대우)은 2일 조계종총무원에 공문을 보내 국립공원 입장권 사용 개선방안(당일 사용 가능)과 관련, "해당 공원관리사무소장과 당해 사찰 주지 상호간 협의된 곳은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대행스님 독일대법회 현장 11면
조선초 간행 '삼국유사' 발견 7면



맑은 물, 깨끗한 자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철강으로 나라사랑
포항제철

사 설

'님'과의 재회

13~16일 내설악 백담사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만해축전'은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스님의 가르침을 새삼 우리 시대에 되새겨 보게 한다. 탄생 1백20주년, 열반 55주년이란 숫자적인 의미에 앞서 아직도 완전한 '님'과의 재회를 이루지 못한 어두운 이 시대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를 하나의 등불로 우리곁에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만유(萬有)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고로 자유가 무(無)한 인(人)은 사해(死骸)와 같고 평화가 무(無)한 자(者)는 최고통(最苦痛)의 자라…"

3·1독립선언 33인의 한사람이었던 스님은 민족 최대 비극의 시대였던 일제 강점기에 이처럼 자유와 평화를 뜻과 행동으로 희구했던 지사(志士)였으며, '침묵하고 있는 님(부처님)'의 주변을 '사랑의 노래로 휩싸고 돌던' 선사(禪師)였고, 자비의 불법을 오롯이 육화(肉化)시켜 이를 영롱하게 시어화(詩語化) 할 수 있었던 민족 시인이었다. '만해축전'이 한국 불교계만이 아닌 범국민적 축제, 나아가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들일 수 있는 연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만해스님의 종교 독립성에 대한 가르침에 주목해야 한다. 종교는 권력에서부터 자유로와야 제모습을 찾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의 부패와 타락은 권력과의 결탁 때문이었음은 명백하다. 권력계급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민중의 신앙으로 그 바탕을 삼아야 한다는 스님의 주장은 일제의 사찰령이 없어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권력과의 결탁은 종교 본래의 사명을 퇴색시킬뿐 아니라 중생들로부터 활발발(活潑潑)하게 용솟음쳐 나와 불교를 탄탄히 지탱시켜줄 신심(信心)의 기력을 근원적으로 훼손한다. 때문에 해방 후 여러 번에 걸쳐 겪었던 법난의 원인도 독립성을 잃고 약한 체질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불교계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정치권력이 만만히 보아왔던 이유이기도 하며, 그래서 앞으로의 불교계 최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만해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21세기 불교가 지금처럼 시류에 따라 표류하지 않고 분명한 대안을 내어 시대를 이끄는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만해스님의 가르침에 귀기울여야 한다.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에는 자연과 생명의 비밀, 그리고 경이의 염(念)이 담겨있다.

오동잎,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며, 흐르는 작은 시내와 저녁노을, 여기에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는 끝없는 생명력, 우리는 여기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과 생명사상을 배운다. 하찮은 미물 하나에서도 낱낱이 드러나는 불법의 오묘한 진리 또한 보이는 듯하다.

불교가 민중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가르침 또한 현대불교의 지향점을 제시해준다.

하화중생(下化衆生)하는 보살의 마음은 고통받는 민중과 아픔을 함께 하는 동사섭(同四攝)에서 찾을 수 있다. 출가나 재가 모두가 진정한 동사섭으로 민중을 아우를 때 민중 속에 있는 불심의 잠재력을 불러낼 수 있을 것이며 이 잠재력은 또한 예토(穢土)를 정토로 바꾸는 분명한 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20세기 마지막 광복절을 보내면서 만해스님을 극복, 그보다 더나은 경지를 닦기 위해서도 그를 다시 하나의 등불로 삼아야 한다.

김포학사 부실공사

지하층 누수·결로현상…풍림산업 "보수하겠다"

조계종 승가대특위 "법적 책임 묻겠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에 대한 실사결과 부실시공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돼 보수공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내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특별대책위원회 소위원회는 10일 김포학사 현장에서 실사결과와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갖고 "감리결과 전체적으로 지하층 방수공사 및 환기공사 부실로 인해 누수와 결로 현상, 곰팡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공업체인 풍림산업과 설계 및 감리업체인 삼풍종합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부실 시공 부분에 대한 재시공 방법과 일정등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포학사 특위 소위원회는 "현재로서는 김포학사 건축물을 인수할 시점이 아니며 부실 부분에 대한 재시공이 완료되면 최종 검수와 승인을 받아 준공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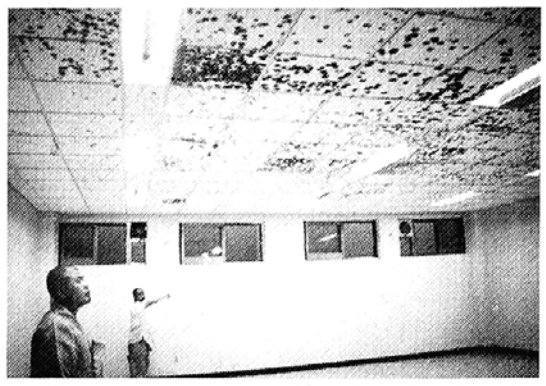
김포학사의 부실시공과 관련 소위원회는 12일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김포학사 설계 및 감리사, 시공사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의했다. 또 중앙승가대학에서 제출한 김포학사 이전 운영예산서를 평가검토한 후 교육원과 협의해 보다 구체적인 예산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앙승가대 실사(설계, 계약, 감리) 의 견서(건축자문위원 박점만)를 통해 △공사비의 과다 계상으로 설계비 산정 방식이 잘못된 점 △변경계약 시점의 시중 자재비 단가(8%하락) 및 노무비 단가(30% 하락)의 조사 없이 공사비를 증액한 점 △감독관 부재로 인한 발주·계약부분의 총체적인 부실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풍림산업측은 11일 임원진 회의를 열고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기술본부장과 건축담당 상무를 현장에 파견, 시공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포학사의 보수공사가 불가피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준공검사와 학사 이전 문제가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환기시설공사의 부실로 곰팡이가 발생한 김포 새 학사 비구니수행관 지하식당의 천정.

8·15 남북불교 동시법회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은 제국주의 일본의 압제로부터 조국이 해방된 날이자, 민족 분열의 한을 남긴지 54돌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동시법회를 열고 공동의 서원을 부처님 전에 발원합니다.

우리 사부대중은 조국통일을 위한 통일 실천행의 정법을 받들어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불교도들은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단결하고 화합하겠습니다.

통일을 원치않는 외세와 반대세력을 배격하고, 남과 북의 관계를 개선해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서원과 함께 실천행에 나설 것입니다.

남과 북이 대화와 만남을 통해 교류와 협력, 연대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8·15를 맞이하여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이제 한민족으로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더 큰 힘으로 민족통일의 대장정에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들은 오늘 부처님 전에 올린 서원을 불실화합, 용맹정진의 정신으로 기어이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이 땅에 번영하는 내 나라, 통일조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서원한 저희들에게 오늘의 서원이 변함없이 불퇴전의 기상으로 나아가도록 무량한 가피력을 내려 주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6일 3당 불자회장단을 초청, 의원발의로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3당불자회 "전사법 개정 적극동참"

고산스님, 회장단 초청간담회서 의원발의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6일 3당 불자회장단을 63빌딩 백리향으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의 의원발의를 요청했다.

고산스님은 이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보호, 풍치보존에 위해를 주는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없어 수행환경 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대체입법으로 전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3당 불자의원들은 "전사법 개정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조계종이 마련한 개정안 가운데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 등 모호한 표현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건축을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돼야 한다"고 보완을 요청했다.

조계종은 이같은 지적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시행령을 마련해 국회 문화관광위(위원장 이협, 국민회의)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사미(니) 의제 전강련 '반대'

성명서 발표

조계종 소속 16개 전통강원 연합(의장 덕암)이 최근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미(니) 의제 시행안과 관련 '강원 학인이 의제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교계신문에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통강원연합은 사미(니) 의제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 △학인들이 행하는 모든 의식과 대회활동에서 신도들로부터 수행자로서의 신심과 신뢰 상실 △강원 학인들이 사미가사인 '만의'와 '행전'을 이미 착용하고 있어 또다른 의제가 불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화된 의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교육원 관계자는 "예비승려인 사미승이 종단과 어른 스님들의 결정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태고종 종회의원 선거 9월1일부터 한달간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6일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각 시도 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열고 제10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9월 1일부터 30일 까지 각 종무원별로 치르기로 했다. 중앙종회의원선거 입후보 자격은 연령 35세이상 법납 15세이상 법계대덕 이상인 스님과 교임으로서 결격사유가 없고 분담금의무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태고종은 현재 인천용궁사에 설치되어 있는 종정원(宗正院)을 23일자로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 이전하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김한곤씨 출마포기

중앙신도회 회장선거…백창기씨 단독후보

오는 20일 오후3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후보 선거는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한곤 전 중앙신도회장 대행(수덕사 신도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 등록이 예상되고 있는 백창기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가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추천을 받고 출마할 경우 총무원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게 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회장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한곤 전 대행은 자신과 백창기씨가 함께 선거에 나서지 말고 중앙신도회가 긴급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차기회장을 뽑도록 할 것을 고산스님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창기씨는 5일 후보등록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단독 출마이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장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중앙신도회 회장선출은 추대형식 또는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305명의 대의원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며,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더라도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을 경우 회장이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3년5개월여간 회장공석으로 있던 중신회가 더욱 표류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김재경 기자

문수사·해남사·관룡사에 조계종, 재산관리인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일 141회 종회에서 직영사찰로 지정된 울산 문수사와 해남사, 창녕 관룡사 재산관리인으로 태연 성본 정안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허물어진 마음까지 복구됐으면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99학년도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2. 교과목 및 교수

요일	과목	교 수	내 용
월요일	아함경	최봉수(동국대)	부처님이 설파한 진리의 원음의 증일아함, 잡아함경
화요일	능엄경	송찬우(승가대)	대승경전중의 수행요체의 능엄경 9, 10권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 포교사 취득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99년 8월 7일~ 99년 9월 4일(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1999년 9월 6일(월), 7일(화) 오후 7시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 (매주 2강좌)을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732-1206~8 / FAX 732-1207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2회(매년 2월,8월)
■ 모집정원 : 150명

1.교과목

1년 교과목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2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2.정규반, 통신반 개설

3. 문 의 처 ☎732-1206~8 / FAX 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1999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1999년 9월 4일 (토) 오후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Ⅰ(전반기)	한글불교의식 Ⅱ (후반기)
· 아침 · 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백일 · 돌 ·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 · 매장 · 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사 취득자 ④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8월 7일(토)~ 99년 89월 3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동산법당)

3. 입 학 금 · 일십만원

4.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8/FAX 732-1207 (100-170)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5.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만해스님은 인류 보편성 추구"

'제1회 만해축전' 대회장 고은시인

美하버드대 등서 '한국시' 강의중 일시귀국

"축전 계기로 만해사상과 문학 세계화 기대"

"만해스님은 승려로서 구도의 길을 걸었으며, 시인으로서 님을 노래했고, 독립운동가로서 육신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만해스님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죽을 때까지 정신과 행동이 모두 청춘이었습니다. 만해스님은 또 시를 통해 민족보다는 세계적인 지향, 인류의 보편성을 추구했습니다. 청춘의 삶과 인류적 보편성의 추구로 다가옵니다."

지난 1월 미국 버클리대학과 하버드대학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떠나 한국시를 강의하고 있는 고은 시인이 만해축전을 앞두고 만해축전 대회장과 만해시인학교 교장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11일 경기도 안성 고은 시인의 자택에서 만나 만해와 불교 그리고 미국에서의 생활을 들었다.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만해스님이 던지는 화두는 무엇인가.

▲만해스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님'이며, 만해의 님은 공(公)이다. 공은 무사(無私), 곧 불교의 공(空)사상과 연계된다. 내가 발전적으로 해체돼서 나를 더욱 승화시키는 그런 것이다.

-이번 축전이 만해사상과 문학의 세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루이스 랭카스터(미 버클리대 교수), 데이비드 맥켄(미 하버드대 교수), 체코의 만해연구가 이반나 등 불교학과 만해 연구의 권위자들이 학술대회 발표자로 참석하니 이만하면 국제학술대회로 손색이 없다. 아카데미 프랑세스의 마크 온랑지오 교수가 참석치 못해 아쉽다. 2회 때는 인도 중국 베트남의 지식인도 아우르는 학술회의를 생각하고 있다.

-만해시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시가 있다면.

▲시는 근본적으로 어둠이다. 독자들이 한 편의 시와 만나 순결한 감동을 느껴야 한다. 이때 비로소 어둠은 빛으로 밝아올 것이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융합적 연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결핍되었던 보편정신을 길러내야 한다. 그동안 보편성은 늘 우리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강요됐다. 우리와 다른 곳의 특수성이 융합하면서 만들어지는 정신을 말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 속에 무엇을 담고, 어떤 느낌을 꽃피워야 한다고 할 때 전통사회의 종교와 문화현상을 끊임없이 재현하고 재해석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치로써 재생산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이 미국에서의 내 생활이며, 작품으로써 평쳐보일 것이다.

-미국에서 본 한국불교는 어떤가.

▲한국불교의 가풍은 육조혜능인데, 나는 신수의 점수(漸修)를 생각한다. 한국불교는 점수를 잃어버려 부황해졌다. 돈오(頓悟)의 매력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일상적인 지속성은 돈오로 감당할 수 없다. 돈오와 점수가 나눠졌음은 합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전일성을 실현해야 한다. 급한 사람에게는 점수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돈오로 후려쳐야 한다.

"만해축전은 오현스님과 관동불교계의 후의, 만해에 생애를 내걸었던 김재홍교수 등 집행위원회의 수고로 이뤄지는 것이다. 만해축전의 대회장으로 내 이름이 얹어져 외람됨이 없지 않으나, 더단히 기쁠 따름"이라고 밝힌 고 시인은 만해축전을 마치고 18일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내년 2월 귀국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나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더욱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만해스님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라고 강조하는 고은시인.

불교TV 노조 사장퇴진 요구 파업 돌입

불교TV 노조(위원장 윤상호)는 16일부터 뉴스를 비롯한 일체의 방송 제작을 중단하는 등 허문도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또 노조원들은 조계사 봉은사 대각사 등 서울시내 사찰에서 허사장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허사장은 퇴진 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조계종 btn 특위도 회생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5월10일 대표이사에 선임된 허사장은 직원들과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후 1백일이 지나도록 대표이사로서 출연금조차 내놓지 못했으며 7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룩할 출자자 또한 영입하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가 주장하는 허사장 퇴진 이유다. 또 7월 급여의 미지급, PD 등 제작부원을 사업부에 투입한 인사 단행, 신규 프로그램 제작비 미지급 등의 불만도 파업을 선택한 요인이다.

허사장 "퇴진불가"

임대료 지불 못하면

이달말 방송송출중단

이에 대해 허문도 사장은 "경영 정상화에 대해 직원들에게 2개월 이내에 노력하겠다는 뜻은 밝힌 적이 있으나 약속한 적은 없다"며 "불법 파업을 자행하고 있는 노조를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라도 경영 정상화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btn특위도 뚜렷한 대안이 없다.

7월23일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이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해 종단의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힌 이후 특위는 20일이 지났는데도 대책 회의 한번 주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불교TV가 최대의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태까지 지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교TV는 우선 8월말까지 금호전기에 지불할 6억1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거리로 쫓겨날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매월 8천만원 정도 지급해야 할 분배망 사용료도 현재로선 지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언제 송출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태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허문도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파업 농성에 들어간 불교TV 노조원들.

목어 부끄러운 일

이번 수해도 막심하다. 흔히들 이런 재난을 두고 천재지변이라고 한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자연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지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가. 보도된 자료를 근거로 적어본다. 사망과 실종이 64명, 이재민이 2만4천3백여명 도로와 하천의 유실이 541곳, 주택 파손이 9천4백13동, 농경지 유실이 4만1천190ha로 수해피해 추정액이 1조2천4백7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몇년동안 비슷한 천재인듯한 인재를 겪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불감증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한 번 짚어볼 필요를 느낀다. 우리네 성격이 대체로 쉽게 자극받고 쉽게 잊는다. 이런 속성은 다분히 현세적인 삶의 자세에 있는 것 같다. 유비무환이라고 말로는 번지르하게 부르짖지만 정작 정신을 쏟는 것은 지금의 찰나 뿐이다. 그리고 또하나는 현세적이라고 해도 부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현재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부정하는 기전을 통해 쉽게 외면하려 든다. 이런 속성은 사건이나 갈등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않으려는, 나아가선 현재만 모면하면 된다는 자기 방어적 기전으로 보인다. 세월이 약이란 속담이 공동정서로 정착한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그래도 외면되지 않는 사건이나 갈등도 얼마든지 있다. 그럴때면 누구 하나를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삼는다. 마치 그 한사람 때문인 것처럼,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란 속담의 정서와 같다. 이런 속성도 따지고 보면 우리네 마음들이 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매사에 급한 마음이니 그 급함 뒤에 뒤따르는 부정적인 부작용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같은 난리를 반복하면서도 급하게 대충대충 땜질하거나 급하게 마무리지워 버림으로서 우리들의 기억에서 쉽게 지워버리고자 하는 속성과 관련이 있다. 하도 여러번 당하는 재앙성 천재지변을 보면서 깊이 내재했을 속성을 연계시켜보며 언제까지 이런 반복을 이어가야 할까 부끄럽다. 알았다 하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 속성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근후(이화의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조계종의 속앓이

동국학원 이사추천 놓고 청림회등 이론

영축총림해제 이후 통도사 분위기 어수선

종립 동국학원 이사후보 추천, 통도사 영축총림 해제를 둘러싸고 조계종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휴회까지 불사했던 중앙종회 내 청림회 일여회가 동국학원 이사후보 재추천, 고산 총무원장의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쟁점화하고 있다. 특히 직영사찰 두 곳의 주지 겸임, 사설사암 종단미등록자의 본사주지 임명 등을 들어 총무원이 파행적인 인사행정을 펴고 있다고 고산 총무원장을 문제점의 원인으로 거론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산 총무원장 취임 이후 7개월여 동안 유지됐던 종회와의 밀월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세겨루기가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산스님에게는 종단의 조화로운 운영을 도모하고 무차화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력 발휘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일여회와 청림회는 11일 '현하 종단 상황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통해 △종회의원 탄우스님 사퇴 △총무원의 편파적인 인사행정 시정 △8월까지 동국학원 이사후보 재추천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특히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동국학원 이사후보 추천과 관련, "특정 사찰의 동국학원 장악"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8월말까지 재추천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새로 뽑힐 이사 6명 가운데 절반이 '특정사찰'의 영향력이 미치는 스님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청림회와 일여회에 의해 특정사찰로 지목된 이 사찰의 한 중진스님은 "동국학원 이사 추천은 종법기구인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재추천 요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국대 새 이사선임과 세차례 이사장을 지낸 녹원 현 이사장의 4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이사회는 13명의 스님이사 가운데 6명의 임기가 11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정관에 의거해 2개월 전에 새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청림회와 일여회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총무원 주변에서는 민주적인 종단 운영을 바라는 종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평가와 자기몫 챙기기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통도사 영축총림 해제 이후 통도사 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하스님의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패에 그쳤지만, '반월하' 그룹에서 차기 주지를 선출하기 위한 산중총회 개최 시도가 있었다. 월하스님 그룹 내에서도 의견충돌이 생기면서, 월하스님이 "그러면 내가 떠나겠다"고 해 한때 월하스님이 방장을 사퇴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주지 선출을 둘러싼 본격적인 세겨루기도 변화된 모습이다. 월하스님에 의해 주지직에서 해임된 월파스님 등을 중심으로 6일 모스님을 주지로 선출키 위한 산중총회 시도가 있었다. 이때 통도사 재적승 1백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하스님측도 9일과 12일 산중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 월하스님측에서는 △총무원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인물의 주지 선출 △정화회의 참가자들과의 거리두기를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종회 내 종책그룹간, 종회의원 일부와 총무원장과의 갈등, 총무원과 통도사와의 힘겨루기 현상을 두고 불교가 세속의 정치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구도와 중생제도라는 불교의 본분사에 매진하는 종단이 되기를 많은 불자들은 바라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한장에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24초) 3. 아미타경(13분38초)
4. 화엄경 약찬게(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성게(2분 49초) 9. 무상게(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02초) 11. 금강경(33분15초) 12. 반회심곡(13분07초)
13. 천수경(18분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00초) … 55. 회심곡(9분05초)
56. 탑돌이(8분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산업부선정



· 규격: W×D×H (26×18×65cm)
·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인켈에서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듣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

CD 한장을 비워 두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스님들의 포교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높은 법력이 담긴 좋은 법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CD에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님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간: 1999. 8. 16 ~ 8. 21
(기간안에 주문한 분에 한함)

구입 문의 080-900-0101 032-343-22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번호 : 서울은행 51304-6100001 (예금주 이희숙)

■보급처 : 법운 총법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32번지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이 '안전운행'을 기원하며 직접 전법 부채를 나눠주고 있다.

교통안전 전법부채 배포

진각종 지난달 31일 경부고속도 입구서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은 7월31일 진선여고 연화학생회 60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안전운행과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통행권을 나눠주며 '안전운행 기원 부채'를 배포했다.

이날 홍보행사는 교통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원하는 교통캠페인을 전개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실시됐는데 진각종은 전법용 부채 총 50만개를 제작·배포했다.

진각종은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서울 명동, 강남역, 대학로, 종로 등 서울 시내에서의 행사도 계획하고 있으며,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는 한국문화 전통수호와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을 위해 전통 윷과 윷판을 배부하는 2차 대국민 봉사 및 포교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전통-현대교육 조화있게 접목"

강원교직자회 초대회장 지오스님



"강원의 전통교육을 잘 전수하는 동시에 현대교육에도 뒤쳐지지 않는 내실있는 승가교육을 위해 교직자들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7월30일 해인사에서 열린 전국강원교직자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출된 지오스님(해인사 강주)은 "강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기존의 내전의에도 불교역사, 율문, 예식 등 학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해 한단계 높은 수행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오스님은 전국 강원의 강주 학감 강사 중강 등의 회원들이 오는 11월17일 가을 정기회의에서 강원 교과목 통일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미·사미니 의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미·사미니승인 학인스님들이 수행자의 본분인 하심(下心)하는 자세로 종단의 사미·사미니 의제 시행에 따라줘야 한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종단도 학인들의 고충을 이해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의 종단 분규가 계행과 계율의 무시에서 비롯됐다"는 스님은 학인들이 어른 스님과 은사를 존중하고 스스로 정진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교차로

수재민 돕기 탁발행사



현해 월정사 주지는 19, 20일 원주 군법당 법웅사와 관음사 강릉포교당을 중심으로 수재민 돕기 탁발행사를 갖는다. (0374)332-6664

특수전학교 군법당 낙성증명



정련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은 22일 오전 10시30분 육군 특수전학교 군법당 낙성식에 증명법사로 참석해 법문한다. 115평 규모의 이 군법당은 250명의 장병불자를 수용할 수 있다.

반부패 국민연대회의 부위원장



효림 실천불교승가회 상임지도위원은 24일 실천불교승가회 민주개혁국민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해 창립하는 반부패국민연대회의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다.

칸박사초청 '간다라미술' 특강



지홍 조계사 부주지는 21일 오후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파키스탄 문화부 고고박물국 부국장인 무하마드 아쉬랍 칸 박사를 초청, '간다라 불교미술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제7차 열린 강연회를 개최한다. 한편 지홍스님은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에 위촉됐다. (02)720-1390

선산스님 49재 봉행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27일 오전 10시30분 지난 7월10일 입적한 조실 선산스님의 49재를 봉행한다. (032)933-8234

인취사 백련시사 열어



혜민 아산 인취사 주지는 15일 마곡사와 아산시사암연합회 후원으로 제6회 백련시사(白蓮詩社)회를 개최했다.

대구 BBS 총괄국장에



돈관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장 스님은 6일 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에 임명됐다.

무불선원 주지맡아



주경 수덕사 교무스님(서산 부석사 주지)은 최근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 주지 소임을 맡아 참선지도와 선학강좌를 지도하고 있다.

복지원에 피아노·도서 기증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은 7월30일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에 피아노 1대와 도서 370권을 기증했다.

전국여법사회 정기총회



성순경 한국불교 전국여법사회 회장(법사종 총무원장)은 7월 30일 서울 평창동 전국여법사회 금강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중에 제3회 불교지도자 자격고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서출판 '명상' 편집부장에

최승천 前 법보신문 취재부장은 최근 도서출판 명상 편집부장에 임명됐다.

인 사

대한불교청년회 ▲대의원의장 이상번 ▲연수원장 이선세 ▲수석부회장 김인택 ▲부회장 김규범 김희영 구재완 정웅정 홍무흠 김익석 박법수

한불총 새회장에 김용래 전 서울시장



서울시장과 총무처장관을 지낸 김용래(65·대한체육회 상임고문)씨가 7월31일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견지동 홍익빌딩 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한불총은 김명윤 회장이 지난 3월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제출함에 따라 김용래씨를 새회장으로 추대했으며, 김신입회장은 내년 1월까지 6개월등안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86년에 호국불교도총연합회로 창설된 한불총은 지난 93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서울지하철법우회와 군불교진흥회, 그리고 삼보법회등 52개 불교신행단체가 회원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불교 알고 믿어야죠"

■불교대 입학한 김옥자씨 세모녀

"불교학공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은 줄을 몰랐습니다."

7일 동산불교대학에 입학한 경기 명창 김옥자씨(58·사진 가운데)의 흥분어린 소감이다. 이날 김씨는 신세대 국악스타인 장녀 김정민씨(32·오른쪽)와 차녀 정현씨(27)와 함께 입학해 눈길을 끌었다. 대부분 불자들이 가족과 함께 신행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모녀가 '알고 믿자'라는 공통된 신심으로 나란히 불교대학에 입학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93년 구룡사에서 기초교리과정을 공부한 어머니 김씨는 "불교를 모르고 믿는 것은 마치 입으로만 읊조리는 노래와 똑같다"며 불교공부를 강조해왔고 이에 영향을 받은 두딸은 동산불교대학 입학에 주저하지 않았다.

관소리를 전공해 영화 '휘모리'의 주연을 맡는 등 신세대 국악스타로 급부상한 김정민씨는 "관소리가 곧 불교공부일 정도로 불교용어들이 많다"며 "열심히 공부해 관소리를 불심으로 신명나게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현씨는 신행경력은 짧지만 가족들중에서는 '불교통'으로 통한다. 정민·정현씨는 "불법을 열심히 공부해 참된 신행의 길을 걷겠다"며 활짝 웃었다. 김중근 기자

■김지하 시인 '단군사상과 불교' 강연 내용

"원효사상과 단군사상 한뿌리"



조계사가 지난 7일 문화교육관에서 개최한 '열린 강연회'에서 강사로 나선 시인 김지하씨는 '단군사상과 불교'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지하씨는 최근 우리고대문화 속에 숨어있는 '율려(律呂)'를 찾아 새 시대에 맞는 문화운동을 전개하자는 '율려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강연요지다.

우리민족의 시원(始原)이자 미래의 대안은 단군조선이 개국하기 이전 시대인 신시(神市)에서 찾아야 한다. 신시의 체제에는 정치·경제·사회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씨앗'이 들어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실사(實事)'이고, 단군신화는 민족시원의 사상적 측면에서 재평가되어야 하며, 단군조선의 2천년 역사와 영토를 복원해야 한다.

단군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효사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군사상의 핵심은 천·지·인이다. 이것은 인간안에서 우주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는 원효사상이 바로 단군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특히 원효스님의 대승사상은 단군사상과 같은 골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신라의 화랑도는 사회통합을 이끌어낸 하나의 문화다. 여기에는 이기적 목적이나 주체적 자아가 아닌 우주에서 역사를 보고 역사에서 우주를 보는 원리가 들어있다. 바로 이같은 인간내면적 표현을 관통해 통일적 담론이 나와야 하고, 이것에 기초한 문화가 열려야 한다.

진정한 문화는 원효스님의 무애(無碍)행처럼 자연스럽게 대중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일체 율타리나 개념, 이데올로기, 조직화를 허용치 않는 원효스님의 사상은 바로 최근 본격적인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율려문화운동'과 맥을 같이한다고 본다. 율려는 우주의 질서를 지배하는 중심음(音)이자 그것을 반영하는 예술체계다.

불교는 '삼천대천(三千大千)세계'를 말한다. 이것은 마음의 층이고 여기에 들어가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듯이, 고대로 들어가야 인류와 지구의 문명을 열어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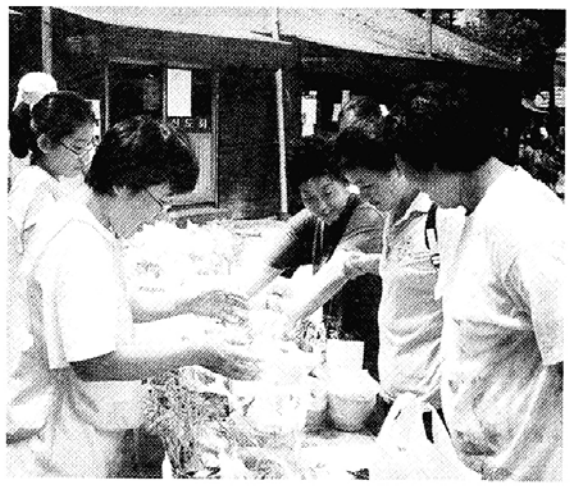
불교의 대승사상과 단군사상은 해체직전의 민족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핵심이다. 불교가 주체적으로 단군운동을 전개한다면 민족주체를 세우고 전인류적인 보편성을 세울 수 있다. 불교는 자기를 위하되 자기안의 불성이 얼마나 가치로운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단군운동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Focus

우리꽃 심어 맑고 향기나는 세상을

'꽃을 가꾸는, 생명을 키우는 마음은 아름답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회주 법정)가 지난 7일과 8일 조계사에서 '우리 꽃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맑고 향기롭게는 8일까지 조계사를 포함해 길상사와 도선사, 봉은사에서 6천여개를, 대구 대덕산 용두골과 동화사에서 '한라구절초'와 '동근 잎 굉의 이름' 등을 담은 화분 4천여개를 배포하는 등 모두 1만여개의 우리 꽃 화분을 시민과 불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맑고 향기롭게는 매년 이같은 행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참배움과 참실천의 보살행

제2기 복지보건 간병봉사자

· 신입생 모집 ·

불교복지보건대학에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복지보건 간병봉사자과정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전문화된 보건지식과 간병 실습을 통해
자신은 물론 내 가족과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입학안내

구 분	제2기 복지보건 간병봉사자과정
입학자격	간병봉사에 관심있는 19세이상~60세
강의기간	99년 9월 7일(화)~12월 3일(금) 3개월
강의일시	매주 화,금(오후 2~5시)
강의장소	불교복지보건대학
원서접수	1999년 9월 7일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원서교부 및 접수처	불교복지보건대학교무실 (☎ 647-6556)
모집인원	80명
입학식	1999년 9월 7일(화) 오후 2시
수강료	50,000원×3 (3개월 교재제공, 분납가능)
특전	유급, 무급 간병봉사자 활동 알선 (유급활동을 위한 상담실 운영)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학장 성오스님 학장 혜도스님

뜸.사.랑 부산동문회 결성

『침과뜸으로 승부한다.』의 저자
· 한국 최고의 침구사 ·
『김남수』 원장 초청 강좌 모임

김남수 원장은 …

「침」과 「뜸」에는 중국과 일본의 명의들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경제 인사들의 단골침구사로 활동하시며, 선생님께서는 복지보건 봉사활동 및 무의탁 노인들에게 참인술을 베푸시는 명인 이십니다.

다 음

◇첫 강 좌 99년 8월 30일 (월요일 오후 7시~10시)
◇강좌기간 99년 8월 30일(월)~ 2000년 2월 28일(6개월)
◇강의시간 매주 월(오후 7시~10시) 토(오후 2시~ 5시)
◇접수마감 99년 8월 28일(토) 까지
◇장 소 불교복지보건대학
◇참가대상자 스님,법사, 의료인, 지강인, 명퇴자, 주부, 대학생 등 전통의학 (자연요법, 대체요법, 민간요법)에 관심 있는 분)
◇문 의 051)647-65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47-18(건축사협회 빌딩 6층)
문의: 051)647-6556
팩스: 051)647-6554

전통있는 불교포교의 명문 학당

1999년도 후기
부산불교교육대학
경전연구과정 교리반 수화반
신입생 모집

▶ 입학안내 ◀

구 분	제4기 경전연구과정	제14기 교리반	제6기 수화반
1. 입학자격	본대학 포교사과정 수료자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수화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2. 교육기간	2년(1999년 9월~2001년 8월)	6개월(1999년 9월~2000년 2월)	3개월(1999년 9월~11월)
3.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매주 목·금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9시
4. 교육장소	화엄회관 본 대학 강당(구, 부산진구청 뒤)		
5. 원서접수	1999년 7월 21일 ~ 8월 31일		
6.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부산불교교육대학 교무실 (☎ 051-818-8659, 807-7351)		
8. 전형방법	서 류 전 형		
9. 입 학 식	1999년 9월 1일(수) 오후 7시	1999년 9월 2일(목) 오후 2시	1999년 9월 3일(금) 오후 7시
10. 등 록 금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20,000원	입학금 3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30,000원	입학금 2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10,000원
11. 특 전	본대학 학칙에 따라 자격증 부여	수료자는 포교사 과정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장애인포교의 기회를 제공하며 수화 통역사 자격시험에 추천됨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8/2
성원서면주차빌딩 2층 화엄회관 (구, 부산진구청 뒤)
☎ 051)818-8659, 807-7351

우리 모임에선

구미운불 · 청년회 합동법회

구미택시운전불자회(회장 서병욱)은 10일 구미불교포교원에서 구미불교포교원 청년회와 함께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50여 명의 구미운불련 회원과 가족을 비롯해 청년회원이 참석했다.

구미불교포교원 수정스님은 법어에서 "남녀는 1만겁의 인연으로 부부가 될 수 있다. 나에게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다시금 깨달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부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11-525-3330 서병욱

금융단 불교련 운영위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김윤하)는 26일 오후7시30분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금융단 합동법회와 보시활동 계획 등 9월과 10월 두달간에 걸친 사업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02)398-6464 이충훈

포항운불 정기법회

포항운전기사불자회(회장 권용재)는 26일 오전 10시 보경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개인택시 불자 운전기사와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562)277-9943

심상 칠석법회 사진촬영

석왕사 사진동우회 심상(회장 허애영)은 17일 7월 칠석법회 장면을 담기 위해 홍제동 백련사법회에 참석, 테마사진 촬영활동을 벌였다. (082)321-5332

교리 · 건강 · 교육상담 많다

인터넷 부다피아 상담코너 개통 100일

혜거스님등 전문 상담원 5명 보강
페이지 새단장 내달부터 내용 공개

법률, 세무, 건강, 교육, 교리 분야에 걸친 직장직능 전문직 불자들이 상담요원으로 참여하는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상담페이지(http://www.buddhapia.com)가 18일로 개통 100일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부다피아는 불자들의 상담내용을 분석, 상담요원을 세분화해 보강하고, 페이지를 새롭게 편성하는 등 제2의 서비스에 들어갔다.

불자들이 단연 관심을 보인 분야는 교리 및 종교와 건강. 교리상담은 북종선과 남종선의 비교(대전시 괴정동 손00씨), 용수의 팔불중도에 대해(강원도 원주 최00씨), 발우공양 방법과 사경법회 순서(경남 거제시 박00씨) 등 학술분야에서 신행실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온라인 상으로 질의응답이 빠르다는 점을 활용, Euny라고 밝힌 상담자는 '성(性) 또는 사랑, 여성과 남성의 소외에 대해 종교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라'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해 오기도 했다.

특히 건강 코너에서는 월경 주기가 고르지 않고 피곤하면 하혈을 해 고민이라며 상담해 온 25세의 전00씨(서울 월계동)를 비롯해 중학교때부터 치질로 고생하고 있다는 고등학생 차00씨,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31세의 백00씨 등 병원에 가기에는 쑥스럽고 용기가 나질 않는 젊은 불자들의 상담 건수가 많아 눈길을 끈다. 또 근저당 설정된 주택구입 방법, 매월 10~50만원 정도의 인건비에 대해 꼭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 세무 상담 등도 있다.

부산시 좌동 손충희씨는 "부다피아 상담페이지는 '보통사람'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부담없이 물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어서 자주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상담페이지가 활성화 돼 질문자와 전문 상담요원이 온라인 상으로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부다피아는 이같은 상담자들의 질의내용을 분석해 18일부터 5명의 상담요원을 보강했다.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를 통해 불자들에게 친근한 금강선원장 혜거스님과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 화암스님이 교리상담을, 치과전문의 김필성원장이 건강상담을 위해 앎을 나누는 보시에 새롭게 참여한다. 교육분야는 0년간 교편생활을 한 신수회 회장 이영자씨와 대전 법동초등학교 교사 조명숙씨가 불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특히 교육상담 코너는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세분화해 상담요원을 보강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 치의학 부분이 보강된 건강상담 코너는 점차적으로 각 의학분야 전문의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도 부다피아는 상담페이지 수정 작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 상담내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세요"

금강경독송회 청장년 수련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7~9일 포항 금강정사에서 금강경 수지독경 불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청장년 수련회를 개최했다.

선착순 40명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는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금강경 7독, 1시간30분간에 걸친 미륵존여래불 정진, 낮시간 울력과 '마음 바치는 법'에 대한 법문 경청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수련회 참가자들은 마지막날 2시간여 동안 각자의 공부를 점검하고 법사단의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청송감호소 재소자 36명 수계법회

교화복지선도회 의류등 보시

청송 제2보호 감호소 재소자들을 위한 수계법회가 7월28일 청송감호소 내에서 열렸다.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이사장 혜철스님)의 주관으로 봉행된 이날 수계식에서는 재소자 36명이 5계를 수지하고, 불제자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3백50여 명의 재소자를 비롯해 혜철 교화복지회 이사장, 청공 부이사장, 이정희 혜원사 주지, 자은 심불정사 주지, 청산 고경사 주지와 신도 10여 명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혜철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율은 등불과 같으니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정진에 매진해 자유의 몸으로서 사회의 유능한 역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는 수계법회 후 청송 제2보호 감호소에 티셔츠와 속옷, 엽주, 빵 우유, 도서상품권 등을 보시했다. 도필선 기자



탐방 부산불교거사림회

상담 · 법보시로 생활불교 일궈



◇부산불교거사림회는 8월 10일 통도사 부산포교원 법당에서 종범스님 초청법회를 가졌다.

28년간 6백13회 법회
매월 선지식 초청법문

28년동안 6백13회의 법회를 열면서 초심자들을 불법의 숲으로 이끌고 있는 모임이 있다. 72년 50명의 거사들이 주축이 돼 창립되었던 부산불교거사림회(회장 엄영건)는 이름처럼 모임 자체도 거대한 숲으로 함께 성장했다.

28년 동안 매월 두차례씩 빠짐없이 열어온 정기법회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신심을 다지고 초심자들은 불법과 인연을 맺어왔다. 그렇게 부산불교거사림회를 통해 불법과 인연이 된 이들이 몇 만명을 넘어 섰을 정도. 창립 당시 '생활불교'를 제창하며 거사들만으로 시작했던 거사림회가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불법홍포의 장이 되고 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 상임 지도법사 지안스님(통도사 강주)의 법회와 마지막주 화요일 선지식 초청법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특히 마지막주 화요일 선지식 초청법회에는 그동안 향곡스님, 탄허스님, 서암스님, 석암스님, 이기영박사 등 선지식의 사자후로 불자들에게 바른 깨우침을 전해 왔다. 오는 9월에도 서울 금강선원 혜거스님 초청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 수련대회를 매년 여름과 겨울에 실시하고 연 2회 성지순례를 겸한 사찰법회를 봄, 가을로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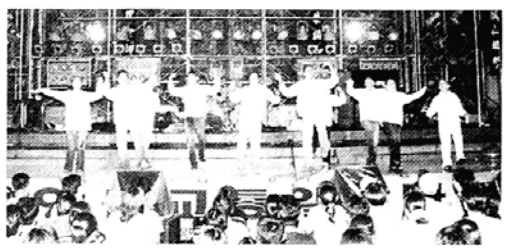
11대 회장인 서영건 회장은 "초심자 포교에 주력하고 법회를 통한 법보시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며 "초심자를 위한 교리상담, 가정 상담 등의 활동으로 불법홍포의 환한 등불이 되겠다"고 밝혔다. 불법이 가정과 사회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불법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거사림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숲이고 서원이다. 부산불교거사림회 7백여 회원들이 세운 서원은 30년 가까이 이어온 세월만큼 굳세고 올곧게 이어갈 것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길상사 설법전 석가모니불 점안

길상사(주지 황선)는 11일 설법전에서 석가모니불 점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길상사 회주 법정스님, 주지 황선스님과 길상사 공덕주인 길상화 보살을 비롯한 사부대중 6백여 명이 참석했다. 법정스님은 "진정한 예배는 부처님 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이라며 "맑고 향기롭게 길상사를 가꿔 나가자"고 법문했다.



불추위 조계사서 통일한마당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지선스님)는 7월 31일 조계사에서 '99 불교통일한마당을 개최했다. 불교통일한마당은 1부 기념법회와 2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됐으며, 불교계 인사 1천명 참여한 민족화합선언문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원택(조계종 총무부장) 지성(태고종 총무부장) 지홍(조계사 부주지) 스님, 고형렬 시인, 대불련·대불청 회원, 일반불자 등 7백여 명이 참가했다.



염불만일회 건봉사 성지대회

전국염불만일회(공동대표 해장·보광스님·김재일)는 2일~4일 2박3일간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전국염불만일회 2차년도 성지대회를 봉행했다.

이번 염불성지대회에는 정토사 주지 설산스님, 건봉사 주지 해장스님, 법천스님, 동산반야회 김재일회장 등 1천여 명의 불자가 동참해 등공대 관음부 헌공법회, 철야 아미타 일만염송법회 등으로 진행됐다.



대구BBS 신행일기 공모 시상

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한 제1회 신행일기공모전 시상식이 10일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대상은 시각장애인인 강시열씨(대구시 서구 중리동)의 작품 '불교와의 인연', 금상은 안영미씨의 '귀한 만남'에 각각 돌아갔다. 이 자리에는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타스님, 강인성 대구경실련불교시민회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거든 하물며 정식을 가진 사람이겠는가?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다라니와 더불어
무농약 유기농 재배로 깨끗하고 약성이 뛰어 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법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점이 **황토삼백초** 만의
다른 점입니다.
손님 접대, 선물용으로 제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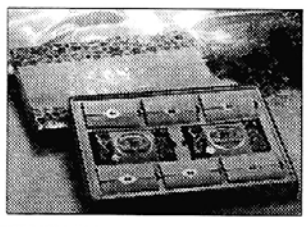


참고서적 :
조규형 편저 [삼백초 건강법]
97.11.6 MBC-TV '고향은 지금'
98.9.24 KBS-TV '6시 내 고향'
99.7.10 SBS-TV '모닝 와이드' 등 방영
http://WWW.teafarm.com

SAM BU FARM
삼부농산
전통식품지정업체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7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皿)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담담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6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외아들 아끼듯 자비심 내라"

이렇게 들었다 이웃돕기

매년 반복되는 각종 재해와 사건사고로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초 내린 집중 폭우로 문산, 김포, 동두천 등 경기 일대의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애써 가꾼 농작물이 폭우와 태풍에 쓸려나가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마가 휩쓸고 간 현장에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선 수많은 자원봉사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ARS나 신문·방송을 통한 성금기탁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도와야 하는지 경전속 말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보살은 이웃들이 온갖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대비심(大悲心)을 일으켜 이렇게 다짐한다. '나는 온 세상의 낱낱 이웃들을 위해 그들과 같이 무량겁을 지내면서 그들의 덕을 충만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버려두고 모른체하지 않으리라.' 보살은 모든 것이 무아(無我)라고 생각하고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이웃을 구제하면서도 그 일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세상을 따르고 있다. 이것이 보살의 집착없는 행이다.

〈화엄경 십행품〉

▨비록 육신은 허망하다 해도 오직 은혜로운 보시의 복은 있어 자기를 따르는 양식되나니, 갑관을 잘 거두어 단속하고 선정을 닦는 공덕을 의지하여 돈이나 재물이나 또 음식을 그 힘 따라 보시하고 잠에서 깨어나면 그것은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니라. 〈잡아함 노사경〉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든지 조그마한 보시를 하고라도 능히 증상심(增上心)으로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는 가장 수승한 선심을 내어 얻는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면, 그 이익은 다할때가 없으리라. 만일 향(香) 하나를 보시하더라도 마땅히 이런 뜻을 내라. '원컨대 일체중생이 모두 가장 좋은 계향(戒香)을 얻고 일체 낙구(樂具)가 구족하여 모두 여의하여지이다.'

〈방등경〉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가 가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복된 결과가 따르리라. 그러므로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때 없는 깨끗한 보시를 행하라. 보시를 행하면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기쁨은 거기 있으리.

〈잡아함 환희경〉

▨대비란, 중생의 귀의할 곳 없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사악한 길에 떨어짐을 관찰하고, 중생이 선근없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긴 생사(生死)에 잠자는 것을 관찰하고, 중생이 욕(欲)에 묶여있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오랜 병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선법을 바라지 않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제불의 법 잃음을 관찰하여 그때마다 대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화엄경〉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일로 친척을 가까이하고 공경해야 한다. 물건을 나누고 쓰고 말을 인자하게 하며, 이익을 같이하고, 속이지 않아야 한다. 이와같이 친척을 공경하고 가까이하면 그들은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육방예경〉

▨대승에 이르려면 네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보시로 모든 궁핍한 이를 도와주며, 높고 낮은 이를 차별하여 마음을 두가지로 쓰지 않으며, 무엇을 남에게 주면서 무슨 희망이나 갚음이 있기를 바라지 않고, 공덕을 중생에게 두루 베푸는 것이다.

〈방등경〉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가지 일로써 알 수 있다. 계를 가지는 바른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 바른 법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 아까와하는 마음이 없이 깨끗한 손으로써 널리 보시하고, 보시를 바라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보시하기를 즐기는 것. 이 세가지를 갖추어서야 비로소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아함경〉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법구경〉

열린마당

전국신도회 지도자 수련대회
신도운동의 새로운 방향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10, 11일 대전 유성 호텔 스파피아에서 3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세미나와 함께 전국불교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미래의 재가불교 운동은 철저한 불교적 가치관과 보살정신의 실천쪽으로 그 의지를 모아나가야 한다는데 동감을 표하고 눈밝은 신도들을 많이 배출해 새로운 불교신행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도자신의 쇄신운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정신을 사회에 구현하는 포교 봉사 사회복지 등의 교화정신을 배양해야 하며, 신도운동의 자율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생활속에서 불교의 목적인 자각을 통한 인격완성과 타각을 통한 정토구현에 매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음은 세미나 주제발표 내용. 〈편집자 주〉

"불교적 가치관-보살정신 실천"

정병조 〈동국대 교수 · 국민윤리학〉



미래의 한국불교는 더 이상 은둔과 안일, 관광차원의 불교이해 수준에 머물 수 없게 되어 있다. 미래의 재가불교 운동은 철저한 불교적 가치관과 보살정신의 실천쪽으로 그 의지를 뭉쳐나가야 한다.

출가승이 도덕성 청정성으로 사회의 스승이 될 때 재가자들은 오늘의 사회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불교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불교의 사회화는 외형적 성장보다 내면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우선 사찰환경을 보다 친화적으로 바꾸어 지역별로 그 일대의 문화공간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야 한다. 불교문화강좌와 어린이 교실, 주부클럽 운영, 도서관 설립 등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여름철 두 달을 개방하도록 하고, 주변의 각종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신행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화운동을 펼쳐야 한다.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을 주도하거나 소비자연맹운동, 북한 등 제3세계 포교문제, 종무행정 전산화, 인터넷 포교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미래사회의 불교는 결코 교세를 내세우는 허장성세에 있지 않다. 오히려 부처님이 표방해 온 진여(眞如)의 세계에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서 있느냐 하는 실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인격완성-정토구현 신도의무"

한정섭 〈금강선원 이사장〉



초기불교 교단에서는 출가제자와 재가제자의 구별이 엄격하여 재가제자는 출가제자를 의호하는 불교신자로서 섭생(攝生)을 본위로 하였으나, 대승불교에 이르면서 일불제자가 되어 바라밀의 실천자로서 대각운동의 선구자가 된다.

불교의 대각운동은 자각각타(自覺覺他)로서 정법에 의한 수행과 교화를 담당하는 운동이니, 신도들은 불교의 목적인 자각을 통한 인격완성과 타각을 통한 정토구현에 매진해야 한다.

신도들은 불법을 호지하여 시간나는대로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여 어두운 길에 빛이 되고 힘 없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각기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되 평등사회의 질서를 지킬 줄 아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불교 운동을 통해 신도들은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각 종단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포교활동을 위해 적극 후원해 주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속에 구현해 참된 신도운동과 포교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 즉 평상심 가운데서 의식주를 분명히 하고(法會因由分), 선후배의 질서를 지키며(善現起請分), 일체중생을 제도하되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을 내지 말고(大乘正宗分), 색·성·향·미·촉·법에 주착하지 말고 바라밀을 실천(妙行無住分)하는 것이다.

"환경 · 인권등 대사회활동 전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전국신도회는 지부, 지회의 조직화를 서두르기 보다는 중앙조직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운동, 민족통일운동, 각종 자선사업, 문화재보호운동, 홍관홍보사업 등 의미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활동을 전개하기 보다는 불교 내부의 행사에만 치중해 온 것도 국민대중과 불자 모두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회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사업의 전개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을 총재로 추대하는 규정(정관 제13조)을 삭제하고, 일상적인 사업과 관련한 결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한다. 포교활동에만 필요한 상임법사(정관 제7장)와 교육원(정관 제8장) 제도를 없애고, 목적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각 위원회(환경보호·민족통일·인권보호위원회 등)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전국신도회는 전국의 불교신도 전체를 조직화할 필요는 없다. 회원 역시 조계종 신도로 국한할 필요가 없으며 불교신자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단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게끔 교구본사나 사암단위의 신도회는 두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종단 내부 보다는 외부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해 신도회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종무참여 등 재가 자율권 확대"

황진수 〈한성대 교수 · 행정학〉



불교신도 조직은 부처님의 법에 따라 보다 심오한 신앙생활을 하고 종단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신도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신도조직은 분업과 통합의 합리적 활동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국단위 조직하에 연령별(어린이, 학생, 청년, 장노년) 지역별 직능별 직장별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도운동의 자율성에 관련된 가능성과 방법론은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재가신도들의 도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에 조심스럽고도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투명한 원융살림을 위해 사찰재정 공개가 절실하다. 사찰재정 공개는 신도들 시주등 수입에 대해 지출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를 의미해 스님과 신도간의 불신의 벽을 해소할 수 있다. 신도들은 포교전문가라는 자세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면서, 각 사찰에 각종 위원회(사찰운영·교육·포교·재정·법회·성지순례·사회봉사·국제포교·교리강습위원회 등)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사찰은 포교교육기관, 불교와 현실문제를 접목시키는 커리큘럼, 포교기술 및 방법론을 숙지하고 포교전문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신도의 종무행정 참여, 종회의원·호계위원 진출 등 신도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신도자신의 쇄신운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정신을 사회에 구현하는 포교 봉사 사회복지 등의 교화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목탁소리

토굴의 '별장化'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거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스님이 토굴을 보여준다기에 북한산으로 따라갔다가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본사에 성토성(?) 전화를 걸어왔다. 내용인즉, 그 토굴이란 곳에 TV, 냉장고, 오디오 등 그야말로 웬만한 살림집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없는 게 없었다는 것이다. 김거사는 "그러니 수행을 제대로 하는 스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개탄했다.

토굴은 말 그대로 산자락의 자연굴이나 수행을 위해 지은 작은 암자다. 치열한 용맹정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굴에는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것을 거부한다. 생쌀과 솔잎만으로 차가운 토굴에서 눕지 않고 3년간 수행했던 구산스님과 직접 지은 토굴에서 묵언과 생식을 하며 수행에 몰두했던 성철스님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토굴이 화려해지고 부유해져 간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수행장소가 아닌 '별장화' 되어가는 곳이 많아 '토굴'이란 이름을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곳이 많다는 것이다..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 토굴은 주방기구를 포함한 각종 살림살이는 물론 찜질방까지 갖추고 있다고 한다. 경기 남양주 외곽에 위치한 한 토굴은 밥해주는 공양주 보살까지 두고 있고, 심지어는 "누구누구 스님 토굴은 출입문이 이태리제 대리석으로 돼 있을 정도로 호화스럽다"는 말도 들린다. 몇 년 전에는 공금횡령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소쩍새마을 원장 일력의 호화 토굴이 공개돼 일반에 충격을 준 적도 있다.

전국의 토굴이 다 이렇게 호화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토굴다운 토굴도 많다. 그러나 상당수의 토굴이 스님 개인의 위락시설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토굴을 휴식처로 여겨서도 안되고, 그런 곳이라면 아예 토굴이라고 말해서도 안된다. 토굴은 '생사를 건 정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다. '토굴'에서 진정 수행에 열심인 스님들에게 누를 끼치는 '가짜 토굴'이 사라지길 바란다.

(mwhan@buddhapia.com)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 · 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동문 졸업 · 40기생 모집중>

1.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 · 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외 범패의식 (법현스님) 특강(동 · 하계 스쿨링때 범패의식 교육)

1학년	1학기 (16주)	◇불교경전의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불교상용 의식	◇유식사상
	2학기 (12주)	◇화엄사상 ◇구사론(아비달마)	◇중국불교의 이해 ◇불교상용의식 실습	◇비교종교
2학년	1학기 (18주)	◇부파불교의 이해 ◇대승기신론	◇밀교학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반야사상
	2학기 (12주)	◇한국불교의 이해 ◇선사상	◇대승불교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천태사상

3. 교 수 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종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법사, 법현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불교학 출강 00명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불교학 통신 00명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제천 묘장암 (0443)653-3249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 원주 법웅사 (0371)742-2701
▶ 진해 삼밀사 (0553-542-6531
▶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6. 특전사항
◇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조선초 간행 '삼국유사' 발견

범어사 개사이래 첫 소장유물 학술조사

'함허어록' 등 성보 1천6백여점 '햇빛'

연내 학술세미나 열어 소장유물 재평가

현재 보물 419호로 지정돼 있는 〈삼국유사〉(서울대박물관 소장)와 동일본인 조선 태조조(재위 1392~1398)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국유사〉 1책(冊)이 발견됐다. 또 〈대전화상주심경(大顚和尙注心經 1411년)〉 〈함허어록(涵虛語錄 1440년)〉 〈지공직지(指空直指 1475년)〉 등 임진왜란 전에 간행된 불서들이 쏟아져 나와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유물들은 조계종 제14교구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가 개사(開寺)이래 최초로 실시한 소장유물 조사에서 발견 공개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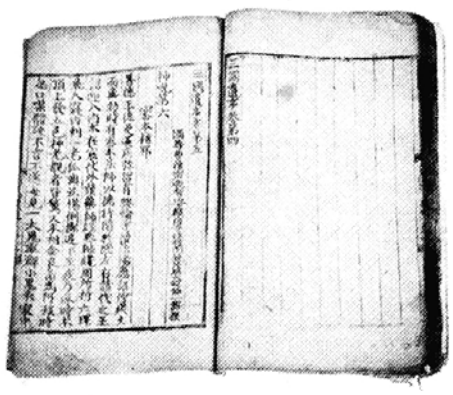
성보전시관 건립을 서두르고 있는 범어사가 경성대 한국학연구소(소장 강대민)에 의뢰, 지난 5월 한달간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전적 1천2백96종 3천여책, 목관 2백6판, 현판 21점, 서화·골동류 1백21점 등 총 1천6백여종의 성보가 발견됐다. 한국학연구소측에 따르면 이 가운데 22종 283점이 중요유물로 밝혀졌고, 부산시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번 학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손꼽히는 유물은 〈삼국유사〉 권4~권5 1책. 보물 419호로 지정돼 있는 책과 동일 간행본인 이 책은 보존 상태가 양호해 끝부분 몇장이 떨어져 나가고 없는 보물 419호를 보충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또 〈불조역대통재〉(1420년),〈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변상〉(1570년), 〈영가집〉(1525년) 등과 범어사에서 간행한 '천수(千手)'(1676년), '범어사 사적기' '어산집' 등의 목관과 1863년 제작된 '극락해상도' 등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돼 불교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들 유물들은 26일 열리는 부산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소장유물의 양이 방대한 만큼 지속적인 연구를 거친다면 귀중한 사료로 평가될 유물들이 추가 발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범어사는 소장 유물의 재평가를 위한 연내 학술세미나를 계획하는 한편 제14교구 말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성보문화재들의 수집·조사·보존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범어사 수장고에서 발견된 〈삼국유사〉 1책(册). 서울대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419호 〈삼국유사〉와 동일본으로 밝혀져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범훈 교수 불교음악 박사 1호 '탄생'

"현대찬불가 전통성 보완해야"

"화청·평염불은 순수 한국범패"



"우리나라 불교 음악은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유입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불교 음악이 한국적 불교 음악으로 변천한 것이며 불교 음악은 불교가 전래된 장소에 따라 그 상황에 알맞는 음악으로 변한다."

한국불교음악사를 집대성한 논문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관한 연구'로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범훈 교수(중앙대 작곡과·국립중앙관현악단장). 불교음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음악인으로서 박교수의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전(佛典)상에 기록된 불교 음악'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수용' '불교음악의 한국적 전개' '창작 찬불가' 등 485쪽에 걸쳐 총 4장으로 구성된 이번 논문에서 박교수는 "불교음악의 발전은 전통음악의 발전과 직결되는데 현대 찬불가는 전통성을 상실한 부분이 많다"며 "현대 찬불가의 한국적 전개 운동을 위해서는 불교음악의 실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작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논문을 쓰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박교수는 또 "2년에 걸쳐 경전속에 나타난 불교음악에 대한 묘사를 꼼꼼히 분석 해본 결과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열반 등 성스러운 종교체험의 세계가 모두 음악적으로 표현돼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적 범패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전래된 범패가 오랜 시간을 통해 한국적인 율(律)로 변천되었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역시 중국에 있다"며 "하지만 우리 가락과 어문에 맞춰 창작된 화청과 평염불은 음율이 민속적이기 때문에 순수한 한국범패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논문에서 조선시대에 쓰여진 〈사리영응기(舍利靈應記)〉를 인용해 세종이 직접 찬불가를 작곡하게 된 동기와 곡명, 가사, 악기연주자와 악기 편성 등을 소개했으며 세종이 지은 찬불가의 음악적 특성까지도 추론해 냈다.

5년동안에 걸쳐 완성한 이 논문은 인도의 고대 불교음악과 중국에서 새로 창작된 범패음악, 세종대왕의 불교 음악 작곡 등 국내외 각종 희귀자료와 주장이 다수 수록돼 있어 불교음악의 교육적 자료는 물론 후학들이 불교문화권의 음악을 비교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범훈교수의 논문은 내년 2월경 단행본 〈한국불교음악총론〉으로 출간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화제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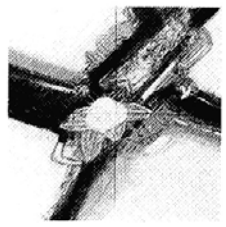
원성스님 '동승의 세계' 경인미술관



천진한 동자승을 화폭에 담고 있는 원성스님이 18일부터 24일까지 경인미술관에서 '동승의 사계' 개인전을 연다.

해남 대흥사와 인도에서 1년간 작업했던 '청정한 바람과 나' '오직 한마음' '도반을 그리며' 등 1백여점이 출품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원성스님은 보다 성숙해진 동자승의 모습을 선보이고, 구도여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해내 표현하고 있다. (02)733-4448

이종봉씨 '동자승의 꿈' 공평아트센터



"불가의 인연법은 이 세상의 모든 유·무정물에 적용된다." 18일부터 24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종봉씨의 '회향-동자승의 꿈' 전은 부처님의 인연법을 비구상의 창으로 엿볼 수 있는 전시회다.

연꽃, 목어, 모탁 등 박씨가 즐겨 채용하고 있는 그림의 소재들은 하나같이 굵고 검은 선 위서 끊일 듯 이어져 있다. 마치 서로가 귀 귀울여 듣고 바라보며 또 다시 다른 유·무정물로 변형되어 탄생하는 순간을 기다리듯. (02)733-9512



갈항사지 팔부신중상 직지사 박물관에 이관

면사무소 뜰에 방치되어 있던 갈항사지 팔부신중상(八部神衆像) 4기가 직지사 성보박물관(관장 홍선스님)에 봉안됐다. 높이40㎝ 폭 1.45m 두께20㎝ 크기의 갈항사지 팔부신중상은 70년대초 김천시 갈항사터에 있는 보물 제245호 석조석가여래좌상의 보호각을 설치하기 위해 땅파기작업을 하던중 발굴되었으며 10여년전 2기를 분실했다가 대구에서 암거래 직전 회수된후 보안을 위해 남면사무소 뜰에 보관해 왔었다.

그러나 관리소홀로 훼손이 우려되던중 직지사측의 요구로 이운하게 됐으며, 보존처리를 한후 전시할 예정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간다라 미술대전을 보고

장충식 교수〈동국대 박물관장〉



불자들에게 있어 간다라는 무엇인가. 동서문화의 요충지요, 서구 헬레니즘문화와 로마풍 미술양식이 불교의 사상과 전통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잉태한 환상의 도시 유적이다.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야 왕조의 걸출한 인물, 아쇼카왕을 비롯하여 기원 2세기 경 카니시카 왕대에 더욱 번창하였던 불교미술의 요람이다. 이 지역은 인도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인 불상의 발상지로서도 잘 알려져 있거니와 중부 마투라 지역에서도 기원 1세기경 거의 같은 시기에 불상의 탄생을 보게 된다. 이들의 특징 가운데 전자는 외래양식, 후자는 고유양식의 양대 축을 형성하지만, 간다라지역은 고대 인도의 서북 지방인 페샤와르 분지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서구풍 불상양식의 본거지가 된다. 불상의 모습은 어딘지 생동감 넘치는 인간미를 지니고 있으며, 안용의 표현 자체에도 심오한 불성의 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조각된 석질이 우리의 화강석 암질과도 다른 연질의 점판암 계통인 점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때로는 점토로서 빚은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것 역시 간다라 조각이 지닌 고전적 테크닉의 완성이다.

"부처님 부조상 살아 움직이는듯"

수많은 부조상이 나타내고 있는 대소의 조각상은 각기 독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듯하지만 이들은 모두 절묘한 조화와 총화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지닌다. 부처님의 일생을 나타내는 불전 부조상은 한결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요, 하나의 관타지이다. 율동적 모습 그 속에는 동적인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음악적 요소가 흐르고 있다. 이는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부조상에서 뿐 아니라 모든 조각상, 일테면 궁중생활이나 유성출가상 등 모든 조각상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간다라 불상조각의 특징은 살아 움직이는 동적인 부조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고대 조각에서는 이와 같은 불전 설화문학을 대변하는 공에적인 조각상을 볼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조각상이 화강암을 소재로 한 차별상에서 이해되고 있지만, 일단 간다라 부조상들은 불세계에 대한 무한한 상상과 전설적 향연 속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라흐르박물관을 찾았을 때 고행상 앞에서 발길을 옮길 수 없었던 그 충격과 감회를 이곳에 온 모조상 앞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 역시 종교미술이 지닌 정신성의 문제라는 점을 새삼 강조해야겠다. 미술품의 진정한 가치는 언어와 문자 표현에 있지 않고, 시각에 호소되는 가슴의 언어, 이곳에서 종교미술의 특징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지적에 찾아온 간다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행복이다.

"잃어버린 문화재 찾습니다"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사이트' 신설

"사라진 도난문화재를 찾습니다." 문화재청이 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도난문화재' 코너를 신설, 잃어버린 문화재에 대한 안내와 함께 회수에 나섰다.

이 코너에는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도난 당한 문화재 87건을 수록했다. 각 문화재마다 문화재명, 지정종별, 도난일시, 도난목록, 원소유자, 도난장소, 사진 등을 소개하고 있다. 보물 제1043호인 송광사 16국사 진영, 고성 옥천사 영산회상도 등 지정문화재는 물론 보존가치가 높은 비지정문화재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문화재 찾기' 검색엔진을 설치, 정보량도 4만5천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세계유산' 코너에는 석굴암 등 7건의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재 원형복원' 코너에는 총 54건의 훼손된 문화재를 3차원 입체영상(VRML) 기술로 복원된 원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http://www.ocp.go.kr

오종욱 기자

무진장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강좌
육조단경 대강좌(1년)

근세 한국불교포교에 앞장섰던
무진장 큰스님께 직접 대승불교경전을 공부할
평생경전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뜻을 기리고 수행공부코져 합니다.

1.강의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2.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안국동로타리 웅전갤러리 2층)
3.개강일시	1999년 9월 5일(일) 오후6시
4.입지수계	매과목 경전공부후 정기적으로 무진장 큰스님으로부터 입지수계
5.입 학 금	50,000원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불교교리 강좌개강(3개월)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7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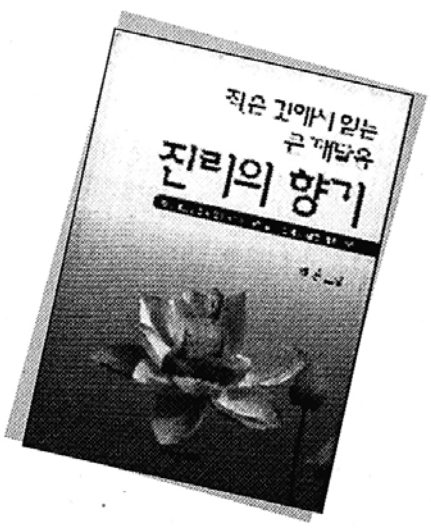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가을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로타리 웅전갤러리 3층)
3.개강일시	1999년 9월 1일(수)오후7시
4.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 산 반 야 회**

부산 BBS 불교방송국에서 1년간 강의된 기초교리
21C기를 겨냥한 불교기초교리 강좌
진리의 향기



원천스님
■통도사 교무국장 역임
■통도사 포교국장 역임
■통도사 총무국장 역임



● 작은 것에서 얻는 큰 깨달음 ●

불교신도 중에는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 없이 무조건적으로 불교를 믿는 경우가 많다. 불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찰 예법이나 교리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BBS 불교방송국에서 〈진리의 향기〉란 제목으로 방송 강의된 내용들을 보강하고 재편집하여 초심자들이 불교의 기초교리를 공부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알찬 내용들로만 묶었다.

· 출판기념법회 ·
● 일 시 : 1999년 8월 31일
● 장 소 : 부산 코모도 호텔 충무홀
● 시 간 : 저녁 7시
● 문의전화 : 0525-329-1056
출판기념법회를 앞 예정이오니 무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육바라밀과 행복

일타스님 이야기 법문집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기도〉〈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등으로 출판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일타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최근 이야기 법문집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불교시대사 刊)를 내놓아 또다시 출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발간 1주일만에 재판에 들어갈 정도다. 이처럼 〈집착을 버리면…〉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은 책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위해 '집착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불변의 법칙을 체득해 행복하고 청정하며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집착을 버리면…〉은 일타스님이 20여년전부터 각종 법회장에서 설한 수많은 법문 가운데 보시·지계·인욕 등 육바라밀 수행의 참뜻만을 간추려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각 주제마다 경전에 수록된 일화와 교훈적인 세속 이야기를 먼저 설명한 다음, 그 속에 깃든 의미를 때론 가슴 뭉클하게, 때론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이야기처럼 재미있게 풀어내는 일타스님만의 독특한 어투가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자리를 버리면 부처가 보인다' '불법의 핵심은 평등심' '우연은 없다' '신심으로 유혹을 뿌리쳐라' 등 각 장마다 펼쳐지는 소주제들을 가슴속에 새겨보는 것도 가외의 즐거움이다. 불교시대사 刊, 값 1만원.

"왜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될까 난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픈데"

김재진씨 어른들의 동화 '엄마의 나무'



◇김재진씨

꽃이 다 지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엄마를 기다리는 섬아이 구노. 구노는 엄마가 좋아하는 나무만을 그리며 엄마를 기다린다. 마음의 아픔을 잊고자 섬으로 들어온 선생님은 구노와 지내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시인이자 소설가 김재진씨(45)가 펴낸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엄마의 나무〉(샘터 刊)의 줄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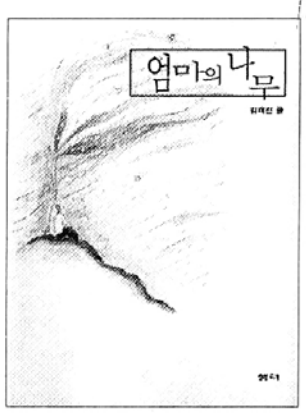
소설속 주인공 아이인 구노는 저자의 아들 군호(12)가 모델이다. '동백꽃'과 '엄마' 그리고 '선생님'과 '기다림' 등은 어른들에게 고향 같은 포근함을 주는 소재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날/ 반짝이는 햇살이 다가와 아니라고 말했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니 / 아마것도 잃은 것 없다고/ 어깨에 앉은 햇살이 내게 아니라고 말했네.'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는 무소유의 세계를 이야기한 시로 이 책은 시작된다. 불교방송 편성제작국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저자가 내놓은 〈엄마의 나무〉는 처음부터 어른용 화두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화두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은 수수께끼이다.

선생님은 지붕끝에 풍경이 달려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묻는다.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는 바람이 우는 걸까요? 풍경이 우는 걸까요?" 아무 답도 하지 않는 구노에게 선생님은 "마음이야"라고 대답한다. 그 순간 구노는 선생님에게 되묻는다. "선생님 마음은 어지럽겠네. 늘 그렇게 높이 매달려 있어야 하니까."

저자는 "구노가 맞는 답을 한 건지, 그리고 스스로 얼마만큼이나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수수께끼라는 질문법을 문학적 도구로 사용한다. 의도한 함정속에 오답과 평답을 유도하고, 미처 예상치 못한 제3의 잠언으로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어른들에게 탐욕 집착 어리석음 등이 자신을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스스로 어둠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게 달라지는 법이다. "고통이 찾아올 땐 어떻게 하지"라는 질문에 구노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 고통은 흔들면 흔들수록 더 커지는 것이야"라는 대답을 비롯 이 책속에서 주고받는 수수께끼는 모두 불교적이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머리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을 때 어른들은 공허함을 느낀다.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왜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될까. 난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픈데?" 아마도 어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욕심이 없어서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런 어른들에게 이 책을 권해본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남산스님 에세이집

'좋은인연 맺는법'

파스요법을 창안해 교계에 널리 알려진 남산스님(양산 여래원장)이 산중에세이 〈좋은 인연맺는 법〉을 내놓았다. 이 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 그러나 남산스님은 그속에서 좋은 인연 맺는 법을 설파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좋은 인연맺는 법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중립적 입장에 서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좋은 인연 맺는 법〉은 차원 높은 종교적 경지의 불서는 아니지만 주위를 깨끗하고, 부르럽고, 원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저자 남산스님, 이소 刊, 값 8천원.

불교미술서 찾은 예술과 신앙

강우방교수 '미술과 역사 사이에서'



신간 〈미술과 역사 사이에서〉는 한국미술에 대한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의 수상록이다. 불교조각을 전공한 미술가가 단지 자신의 전공에만 머물지 않고 불교회화 불교건축 등도 함께 연구했다. 한 유적의 종합적 고찰을 통해 불교사상과 신앙에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술과 …〉는 한 미술가의 삶의 궤적, 정신적 학문적 모색과 체험과정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유적과 유물에 큰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묘사 비평하고 있다. 또한 고대미술에 대한 탄탄한 안목을 바탕으로 현대미술, 특히 회화·영화·사진 등에 대한 심미적 비평을 시도하고 있다. 김홍도에 대한 연구, 장욱진 박수근에 대한 연구 등이 바로 그것.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종교 철학 문학 과학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으며, 삶의 체험에 근거한 예술의 이해와 감상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즉 종합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열화당 刊, 값 1만8천원.

채외신간



▲선(禪)을 찾아서=화두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나선 〈선을 찾아서(After Zen)〉가 출간됐다. 추리 소설가이자 명상가이기도 한 베털링은 이 책에서 선사와 얽혀있는 많은 일화들을 토대로 화두의 본래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화두의 대부분은 미국인 불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화두집 〈비스테리아 탱글(Wisteria Tangle)〉에서 채용하고 있다. Martins Pr. 출판. ISBN 0312204930



▲꽃망울 맺는 연꽃=틱낙한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34가지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는 〈꽃망울 맺는 연꽃(The Blooming of Lotus : Guided Meditation for Achieving the Miracle of Mindfulness)〉이 출간됐다. 틱낙한 스님은 이 책에서 매년 여름 프럼빌리지 찾아온 각국의 불자들에게 가르쳤던 수행법을 고스란히 옮겨놓았다. Beacon Pr. 출판. ISBN 080701123878



▲인내의 증거-평화=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미국에서 거리의 성자로 불리우는 글래스맨이 발간한 〈인내의 증거(Bearing Witness : A Zen Master's Lessons in Making Peace)〉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불교적 미덕을 이끌어 내고 있다. Random House 출판. ISBN 0609803913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99종교지도자 세미나 자료집 출간

'99종교지도자 세미나 자료집이 나왔다.

이 자료집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회장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가 지난 6월24일부터 25일까지 '새천년을 위한 한국종교계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내용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장의 기조강연과 이재정 성공회대학교 총장의 '민족공동체의 미래와 종교', 김용정 동국대 명예교수의 '종교와 생명문화' 제목의 주제발표와 토론에 대한 답변 및 질의응답을 각각 싣고 있다. 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종교의 역할, 새천년 통일민족사회이 공동체 문화, 종교와 생명윤리, 생명보존 운동의 실제와 과제 등에 대한 각 분임별 발표와 토의결과도 수록하고 있다. 비매품.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영가천도	일 타	효 림
2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3	나는 아직도 스님이 되고싶다	최 인 호	여 백
4	자 떠나자 원효찾으러	장 희 욱	시 공 사
5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6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참작시대
7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	주 민 황	정 우 사
8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연학연구원	불교시대사
9	문무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10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정 찬 주	해들누리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청산에 묻힌 보궁을 찾아 | 박명자 지음

5대 보궁서 만난 자연과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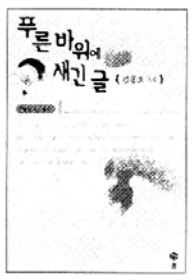


사리신앙의 핵심인 5대적멸보궁. 신간 〈청산에 묻힌 보궁을 찾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불사리 신앙을 형성하며 현재의 5대 적멸보궁으로 자리잡게 된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

1부 사리의 전래와 우리나라 불사리 신앙의 핵심을 형성한 자장율사의 삶을 〈삼국유사〉〈동사열전〉〈속고승전〉 등의 기록을 통해 추적해 가고 있다. 2부는 통도사, 봉정암, 법흥사, 오대산 중대, 정암사 등 5대 적멸보궁의 기행을 통해 각 사찰이 가진 뛰어난 건축미와 절을 둘러싸고 깃들인 갖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 절을 찾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재에 대한 애정이 따뜻한 시각으로 그려져 있다. 저자 박명자, 중명 刊, 값 7천원.

푸른 바위에 새긴 글 | 김흥호 지음

신학대 교수가 쓴 벽암록 해설



감리교신학대학 종교철학과 교수인 김흥호 목사가 선가의 최고의 어록인 벽암록에 담긴 참뜻을 풀어낸 해설서 〈푸른 바위에 새긴글〉을 내놓았다.

저자는 "단지 무뚝뚝하게 경문 풀이를 던져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벽암록〉에 담긴 진리를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와 일화로 풀어서 이야기하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을 따라 읽다보면 어렵게만 생각됐던 선가의 화두가 쉽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도서출판 솔에서 펴내고 있는 '김흥호 전집' 가운데 유학의 대가 왕양명의 〈견습록〉을 풀이한 〈양명학 공부 1·2〉와 수상집 〈생각 없는 생각〉에 이어 세번째 권. 값 9천8백원.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160면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백중 · 49재
법보시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법보시는 위아시는 분을 초대하여 함께 수희하십시오. 언제에나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신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월간 『법공양』을 보셨습니까?



월간 『법공양』은 불자들의 바른 신행생활을 위해 매월 1회 발간하는 64쪽의 조그마한 잡지입니다.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어 주는 큰스님들의 비중있는 법문과 신행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김현준 원장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년 구독회비는 1만원이며 법보시를 원하는 분을 운영위원으로도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월간 『법공양』을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이 한 권의 잡지가 틀림없이 신행생활의 기초를 다져주고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회원가입 및 문의 : ☎ (02) 587~6613

불교신행연구원

스위스·일본서 국제불교학술회 잇달아 열린다

국제적인 불교학술대회가 스위스와 일본에서 연이어 열려 국제불교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제불교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IABS)는 23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로잔대학에서 제12회 세계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비다르마(데션), 남·동남아시아의 사회와 불교(곰브리히), 불교와 브라마니즘(하라), 불교와 다오이즘(범바허), 서구의 불교(바우만), 불교 논리학:예제의 기능(캇슈라, 스테인켈너), 초기불전의 새로운 발견(살로몬, 록스), 불교 심리학(벡첼러), 초기대승불교와 대승경전(해리슨, 실크), 불교 연구에 근거를 둔 전자원전·인터넷·컴퓨터(뮬러), 17세기 이후의 일본불교(모르), 한국불교(뮐러), 불교에서의 자연의 가치(슈미츄센), 율연구(프리비쉬) 등 23개의 분과가 개설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각스님(동국대)이 '깨달음에 대한 선적일고'를, 해주스님(동국대)이 '일승법계도의 저자에 대해서'를, 현원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 기획실장)이 '한국 불교 유물의 역사적 의미'를 발표한다.

이어 9월9일~10일에는 일본인도학불교학회가 주최하는 제50회 학술대회가 일본 경도시 용곡대학에서 열린다. 전체 10부로 구분돼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불교의 예수재에 관해'(법산스님), '의상의 법계연기관'(도업스님), '원효의 화쟁원리·화엄일심에 관해'(해주스님), '사무량선에 대하여'(김형준), '밀교승 혜초의 재고찰'(이정수) 등이 발표된다.

용성스님·이능화 박사가 이등박문에 보낸 서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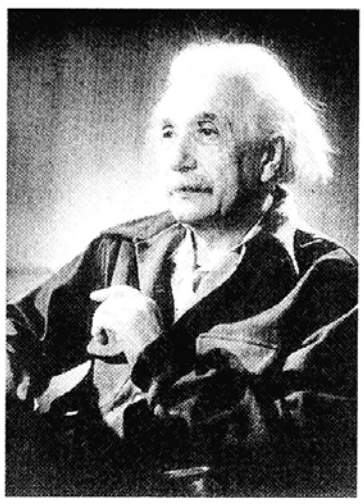
국사편찬위 日국회자료실서 자료수집

구한말 및 일제시기에 조선인 인사가 일본의 정·관계 등 유력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수집 공개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최근 일본국회 헌정자료실에서 이능화 박사가 조선침략의 수뇌인 이등박문(伊藤博文)에게 보낸 서한 등 300여통에 이르는 서한자료들을 수집했다. 이 서한 가운데는 백용성스님과 이회광스님이 경성일보 사장이자 일제시기 총독부 뿐만 아니라 국내 민족운동진영에도 막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부충가(阿部充家)에게 보낸 서한과 불교에 귀의한 후 영친왕의 보모를 맡았던 최송설당이 조선총독 재등실(齋藤實)에게 보낸 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불교계의 항일운동〉이란 단행본을 준비하고 있는 혜봉스님은 "일제시대에 있었던 항일 독립 운동 가운데 의병활동과 국채보상운동에 있어 불교계의 역할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수집된 이런 서한들까지 포함해서 일제시대 불교계의 활동성향과 내용 등에 대한 보다 조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인슈타인이 알아야 할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





◇소광섭 교수는 〈대승기신론〉에서 한계에 부딪친 물리학의 대안을 찾는다. 사진은 원효대사 진영(위)·아인슈타인

소광섭교수 '물리학과…' 펴내

"가까운 미래엔 물리학=심리학"

자연현상의 실재성을 전제하고 그 궁극의 법칙을 추구하는 물리학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주장하는 불교의 유심적 세계관은 서로 화해와 일치가 가능한 것일까?

소광섭 교수(서울대)는 〈물리학과 대승기신론〉에서 "〈대승기신론〉이 담고 있는 심리적 관찰자에 관한 통찰 속에서 한계에 부딪친 물리학의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며 "〈대승기신론〉 주석에 있어서 단연 독보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원효는 중관 유식의 통일적 회통을 실현하고 있는데 현대 물리학의 언어도 이러한 회통의 언어인 〈대승기신론〉의 언어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책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이 주창한 상대성이론의 세계관에서는 물체나 인간의 몸과 같이 실체라고 여겨지는 존재들을 세계의 근본적 구성요소라고 보지 않는다. 대신 찰나생 찰나멸하는 시공간의 각점의 집합으로 이 세계를 파악한다. 이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함께 계속 일어나면 이것을 물체의 존재(생주이멸)로 오인하는 것이 상대성이론의 세계관이다.

소 교수는 "관찰자의 여러 가지 변환(이동 회전 속력 등)에 관한 상대성(대칭성)이 현상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양자장론에서 본다면 자연현상의 모든 법칙이 관찰자의 상대성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아직까지의 물리학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찰자의 변환대칭성으로 규정된 것은 소립자계의 일부 성질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물리학이 더욱 발달하면 결국에 가서는 '모든 현상은 관찰자에 의하여 이미 그 성격이 결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상을 보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다름없고 자기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안다면 모든 대상에 대하여 다 알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이겨나갈 대안으로 소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승기신론〉이다. 그 가운데서 자연현상과 인식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 '심생멸문'을 중시한다. '심생멸문'에서 인식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한 마음(一心)'은 이러한 분리 이전의 절대 공(空)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를 언어나 형상으로 나타낼 수도 헤아려 알 수도 없다. 불교와 기독교 언어의 상호 이해를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소 교수는 "한 마음의 본질적 측면을 인격화하면 하나님(眞如)이라 하겠는데, 이 하나님 자리는 맑은 하늘과 같이 공하다. 여기에 어둠(無明)의 사탄이 욕망의 바람을 불어 일으켜 나(妄心)가 생기면서 대응하여 현상계(妄境界)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 전체는 원래 하나이며 각 요소는 한 마음의 갈라 본 양상일 뿐 각각의 요소가 실재인 것은 아니다"며 기신론의 주장을 기독교적인 언어를 빌어 해석하고 있다.

소광섭 교수는 "원효는 물질의 근본을 알기 위해 물질을 계속 쪼개 나가는 일은 아무리 오래 한들 자연의 궁극적 원리에 닿할 수 없고, 결국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한다"며 "20세기 말에 소립자 물리학이 부딪친 근본적 장벽은 물리학과 심리학의 통일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예고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물리학과 심리학의 통일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산지형 가람 7세기이후 발달"

장헌덕씨 '한·중 고대사원건축 비교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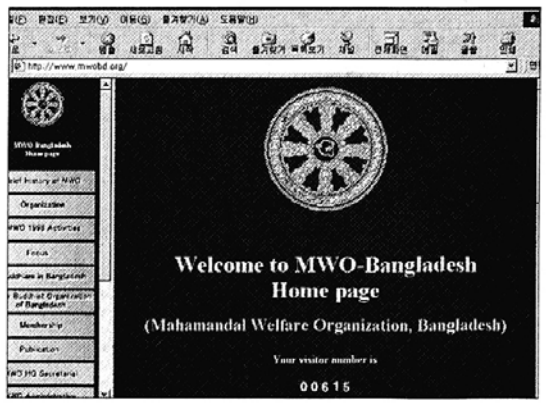
한국과 중국의 고대 사원건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비교 분석한 논문이 나와 화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장헌덕(張憲德) 연구원은 중국 청화대에서 받은 99학년도 공학박사학위논문 '중한사찰전당목결구비교연구(中韓寺刹殿堂木結構比較研究)-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에서 "한국과 중국의 가람은 '평지형(平地型) 가람'에서 '구릉형(丘陵型)가람'으로, 7세기 선종 흥기이후에는 '산지형(山地型)가람'으로 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평지형 가람을 대표하는 사찰은 낙양 영녕사, 서안 자은사 등이고 한국의 대표적인 평지 가람은 부여 정림사, 경주 흥륜사 등이다. 평지형 가람은 거대한 탑이 가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가람양식은 10세기 이후까지 이어진다. 구릉형 가람은 중국 남방 사원에서 많이 발견된다. 장 연구원은 구릉형 가람이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통일신라 이후라고 지적했다. 감은사 불국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

7세기 이후에는 경전과 참선 등을 통한 수행을 강조하는 화엄종과 선종의 흥기로 인해 사찰들이 수행중심의 '산지(山地)가람'으로 바뀐다. 중국 오대산 화엄도량, 남송 때 세워진 오산대찰(五山大刹), 한국 부석사 등이 산지 가람을 대표하는 사찰들이다.

장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 사찰의 차이점으로 쌍탑(雙塔)의 유무를 살핀다. 중국에 현존하는 쌍탑은 대개 10세기경 유물인데 비해 한국 쌍탑은 7세기 전후에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중국 사찰들은 종루와 경루가 있고 한국 사찰들은 종루와 경루가 점차 소멸되고 있는 것도 차이점으로 밝혔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마하만달

최근 오픈…'방글라데시 불교' 소개

불교문인 40여명의 작품 읽을거리

빈곤의 땅 방글라데시. 이 곳에서의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 네티즌 가운데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불자가 있다면, 인터넷 사이트 '마하만달(Mahamandal)'을 방문하면 된다.

올 7월초 오픈한 마하만달은 가상공간에서 방글라데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사이트이지만, 총인구 1억2천여명중 불교인구가 1.3%에 불과한 이곳에서 불교사이트를 개설한 자체는 대단한 일이다.

마하만달은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노인·어린이·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님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가라지 시라란카스님이 1986년 세운 사회복지재단이다.

이후 불교도청년우의회(WFBY)와 참여불교협의회(INEB) 등 국제불교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90년대 이후 방글라데시 종교계에서 가장 유력한 복지단체로 떠올랐다.

이 사이트에서는 △불교사 △불교조각 △사원건축 △불교문학 및 출판 △불교교단 △기타 불교단체 등 방글라데시불교와 관련해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불교조각'은 인도 아쇼카왕의 통치권이 미쳤던 북부지역 즉 '벵갈'에 집중되어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기원전 3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하스탄'을 볼 수 있는데, 이 불상은 방글라데시에서 최초의 불상으로 꼽히고 있다.

또 이 지역에서 7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불상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으며, 상좌부·대승·티벳불교의 불상들이 뒤섞여 발견되고 있다는게 특징이다.

'불교문학 및 출판'에는 방글라데시 스님과 불자들이 가장 애송하고 있는 시(詩) '차르야기티(Charyagiti)'의 정보를 제공된다. 총 46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 프라지나(Prajna·태양)와 아드반야(Advaya·달)의 이미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시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인도 초기불교의 영향을 받은 시로 알려졌으나, 프로보드(인도) 박사가 1938년 티벳불교의 경전에서 같은 내용의 시를 발견, 새롭게 연구되고 있다.

또 이 메뉴에서는 아티사 디판카라(980~1053) 람 모혼 레이(1772~1833) 등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불교문인 40여명을 소개하고, 아티사 디판카라의 작품 〈벵갈의 눈〉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카지방에 있는 방글라데시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불교 유물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제공한다.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단체인 '방글라데시 불교연합' '팔바트야 상가' '청년불교연맹' 등 7개 단체를 소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mwobd.org/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을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이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업.

◆ 장꿰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탄생!



· 이글루형 황토방 규격

표준형 : 높이 1.9m 면적 11.3m²

◐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 황토방을 이글루형으로 시공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

◐ 전통방식의 구들시공으로 황토의 장점을 최대화

◐ 정신수양 및 건강을 위한 최적의 황토방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 성 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30-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삼광법사(三廣法師) 맹이청은 포교원을 개원하여

모든 부자님들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보전에 귀의하고 싶은 분 ※불사에 도움을 주고 싶은분

※불사에 동참하고 싶은 분 ※불교 연구를 함께하고 싶은 분

삼광법사 맹이청은…

♣ 오랫동안 역학을 연구하다가 만유음양(萬類陰陽)을 발견하여 1979~1983년까지 종로6가 백제약국뒤 금용빌딩에서 1984년~1987년까지 여의도 제일빌딩에서 "동서양 자연철학 한구산아조절연구원"을 개원 세계최초로 "아들""딸"을 임의대로 임신가능함을 연구발표해 세인의 화제거리가 된 바 있습니다.

♣ 사업문제, 진학문제, 결혼문제, 궁합, 택일, 이사, 길흉, 화복

♣ 신생아 작명, 개명, 해명, 핑가 등. 인생문제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특히 가족계획을 꼭 하고 싶거나 실패하신 분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결혼상담소 개원

※초혼·재혼으로 고민하시는 분 또는 자녀들의 「혼사」문제로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위하여 평생을 배필을 찾아주기 위하여 무료로 상담소를 개원하였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이합, 3합, 상,충,파,해를 가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양철학, 점성학, 성명학, 서예(서도)및 불교를 연구하고 싶은 불제자 또는 불모살님을 몇분 모시고 싶습니다.

☎ 844-2124, 834-9491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13번지 대광빌딩 4층

불 심 도 원 (약사사)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韓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韓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주문이 많으므로 단체주문은 사양합니다. (1가정 1부씩)

◀용린 佛字체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마음을 거둬들여 지켜보라

경전 속의 禪 사상 30

대승기신론 (下)

글쓴이



박 태 원

〈울산대 철학과교수〉

止觀門의 실참요점 정교하게 전개

大悲 실천등 선의 사회적의미 확인

석가모니 부처님이래 참선의 요점은 지(止)와 관(觀)의 두 말에 압축되어 계승되고 있다. 중국 당·송대의 선종에서 개성있는 정형을 갖추어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 화두 참구법 역시 지관을 떠나서 말할 수가 없다. 지관에 대한 체험적 이해의 심천 여하에 따라 길고도 광범위한 불교역사에서 등장한 다양한 수행법들에 대한 이해 수준이 결정된다고도 하겠다. 그런 점에서 기신론이 설하고 있는 지관문(止觀門)은 실참실구(實參實究)하는 분들에게 참으로 요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느 한 구절 건성으로 넘길 수 없는 내용들이 정교하게 압축되어 있음을 볼 때, 기신론의 저자가 얼마나 깊은 수행적 토대 위에서 이 논서를 저술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기신론은 일체 경계의 상(相)을 그치는 것이 지(止)이고, 인연생멸의 상을 분별하는 것이 관(觀)이라고 정의한 후 그 구체적 내용을 전개한다.

일체 경계의 상(相)을 그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기신론은 지(止)의 핵심을 이 간단한 말로 요약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도의 혜안과 깊은 선 체험이 정확한 형태로 압축되어 있다. 그런 만큼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가 결코 쉽지 않을 터, 기신론은 그 현묘한 경지의 실마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제시하고 있다. "마음을 따라나가 밖으로 경계를 생각한 후에 마음으로써 마음을 제거하려 하지 말라. 만약 마음이 이리저리 치달려 나가거든 곧 거두어 들여 '정념(正念: 지켜 봄·알아차림)'에 머물도록 하라. 정념이란 것은 유심(唯心)이니 바깥 경계가 없으며, 다시 이 마음도 또한 고정된 모습이 없어서 생각 생각에 얻을 수가 없다."

감관을 통해 무엇인가를 보거나 기억·상상으로 그 무엇을 떠올려 지각할 때, 중생의 마음은 그 대상들(일체 경계의 상)을 따라나간다. 그 순간 언제부터인지 마음 안에 자리잡고 있던 해석의 틀이나 버릇으로 그것들을 각색하여 오호(好惡)에 따라 취사선택하고 급기야 그것에 달라붙어 속박된다. 그러다 보니 그것들의 맨 모습(실상)은 두터운 장막 저 너머로 숨어 버리고, 오해와 편견과 무지로 인한 판단·정서·행동의 장애와 그로 인한 갖가지 혼란들이 자신을 덮쳐온다.

자신의 마음이 대상들의 참 모습을 놓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무지와 불안과 속박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민감한 영혼들은 이 사태를 수습하려 든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정도만 눈치 챈 사람들도 뒤늦게나마 마음을 돌려보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미 마음을 따라나가 밖으로 경계를 생각한 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수습하려 든다. 정신 집중이니 정신 통일이니 하면서.

그런 방식도 열심히 진행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변화와 힘을 성취한다. 모든 훈련법은 나름대로 득력(得力)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와 힘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냐가 다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불교의 참선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마음이 대상(경계)을 따라 나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려 하는 그 때, 그리하여 경계의 참모습을 왜곡하는 해석과 경험의 선입 틀과 버릇이 작동하려 드는 바로 그 때, 마음을 거두어 '지켜 봄·알아차림의 상태(正念)'로 둔다. 이 국면을 '오직 마음뿐(唯心)'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진여삼매(眞如三昧)와 일행삼매(一行三昧)는 그 연장선상에서 성취된다는 것이 기신론의 가르침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한 참선법인 정념(正念) 수행을 대승불교의 애용어인 유심(唯心)과 명백히 결합시키고 있는 이 대목은 두고두고 음미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역대 기신론 주석가와 연구가들은 이 대목을 충분히 주목하거나 음미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후학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 부분의 연구는 철저하게 실참실구의 체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호기심이나 총명만으로 접근하려든다면 막막한 벽으로 남을 것임도 물론이다.

기신론이 관(觀)에 대해 설하는 내용도 매우 주목할만한 교훈을 담고 있다. 특히 다분히 지(止)의 측면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 선종의 수행 풍토에 비추어 볼 때, 세간을 향한 대비(大悲)·대원(大願)의 실천과 관(觀)을 결합시키면서 지관의 쌍운(雙運)을 설하고 있는 기신론의 입장은 참선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과 학 산 책

대립과 조화

"반대되는 것은 서로 보완"

빛과 어둠 함께 있어야 물체인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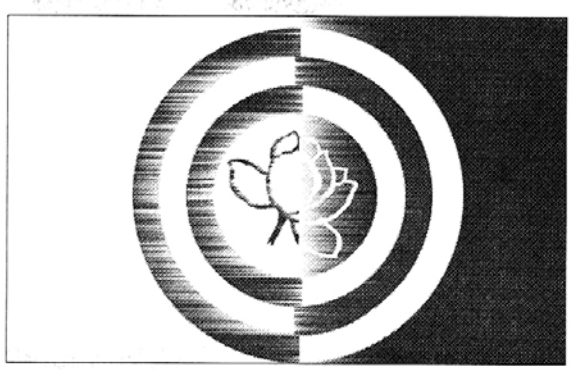
서로 대립되는 성질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실제로는 다른 한 쪽이 있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통합 관점에서 양면을 보기보다는 대립 관점에서 그 중 한 면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체가 우리에게 인식되는 과정에서도 예를 찾을 수 있다. 우리들은 흔히들 빛이 있어야만 물체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빛만 있고 어둠이 없다면 과연 물체를 볼 수 있을까? 세상이 온통 어둠 속에 묻혀있으면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밝음만 있어도 결코 물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생소하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들어가거나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얼마동안은 아무 것도 볼 수가 없게 된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차츰 우리의 눈이 환경에 익숙해지면 서서히 물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우리의 눈에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물체와 그 주변의 상대적인 명암의 차이 또는 색깔, 질감 등의 차이로 인해 특정 물체가 그 배경에 대립되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식하려는 물체와 그 주변 배경이 서로 명암, 색깔, 혹은 질감 등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은 그 물체를 전혀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주변 색깔과 동일한 색깔을 취해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색도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 예이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눈으로 인식하는 것은 물체 자체의 성질에 의한 것보다는 그 물체와 배경과의 차이점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아군의 장비가 적에게 발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를 위장할 때에는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조치를 취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그렇다면 물체가 빗대어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배경이나 환경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물체를 볼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상대적 차이이다.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 밝음과 어둠만 다루어 보면, 밝음과 어둠이 같이 있어야만 물체가 인식되는 것이며 그것도 절대적 밝음과 절대적 어둠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상대적 밝음과 상대적 어둠이 실제적 결정 요소이다.



또한 어둠이라는 것은 밝음에 대한 상대적 의미이다. 어떤 밝기에 비해서 덜 밝은 것이 어둠이다. 많은 경우 우리들이 대하는 어둠이라는 개념은 이 같은 상대적 개념에 의지한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어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빛 없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어쨌든 어둠이나 밝음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나타나는 개념들이다.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적 발견의 하나인 양자역학을 낳게 했던 빛의 성격 규명도 이러한 대립성질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과학자들은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결정하려고 했다. 이 두 개념인 파동과 입자는 서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대립 성질로서 파동이면 파동, 입자이면 입자이지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왜냐면 입자는 어떤 곳에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지만 파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빛은 파동 성질과 관련된 실험에서는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고 입자 성질과 관련된 실험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나타낸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의 성질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다가 양자역학과 불확정성원리라는 새로운 학문이 생기게 되었다. 양자역학 창시자인 보어는 "우리들의 눈에는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성질들이 자연현상에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며 "반대되는 것은 서로 보완적이다"라는 상보성원리를 주장했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11)

진리의 향기 ③

모든것 변화·소멸한다

즐거운 일 생겨도 비어있는 것으로 보라

집착 없이 바르게 보아야 해탈의길 열려

선과 악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주의깊이 지켜본다면, 우리가 일생을 바쳐 연구해야 할 주제를 얻게될 것이다. 이 주제는 결코 우리를 권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방에 앉아서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면 된다."

이것은 좌선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에서 운전을 할 때에도, 결혼을 할 때에도, 친구를 사귈 때에도, 사무실에서 일할 때에도 스님의 지적은 동일하게 큰 힘을 발휘한다. 사실 법은 우리의 눈길 닿는 어디에나 있다. 집을 짓는 일, 길을 걸어가는 일, 선방에 앉아 있는 일, 이 모든 것이 법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면, 이 세상에서 법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바르게 보지 않으면 안된다. 행복과 불행, 고통과 즐거움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그 본질을 이해하면 부처와 법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명료하게 볼 수 있으면 그때 순간 순간의 모든 경험은 다 법인 것이다.

하루는 경내를 걷고 있는 마하부아 스님에게 한 사람이 스님의 수행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청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우리의 마음에 그 해답이 있지라고 대답했다.

잎이 무성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한 그루의 나무는 나무일뿐이며 새들이 날아와 열매를 먹고 둥지를 틀뿐이다. 다시말해 나무는 나무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일화는 올바른 수행의 자세를 잘 설명해 준다.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해 가고 뜻밖의 선과(善果)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 매주 매월 깨달음을 얻겠다 세간의 문제를 풀겠다 자신을 변화시키겠다 등과 같은 특별한 목표를 지양하고 자연스럽게 정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깨달은 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개 즐거운 것이면 무엇이나 참 좋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져라, 지겨워, 필요 없어하면서 맹목적으로 반응한다.

바르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은 너무나 소박하고 순수하다. 즐거운 일이 생기더라도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된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모든 현상을 자신인 듯이, 혹은 자기가 그 소유주인 듯이 여기지 않게 되면 마음의 균형을 얻게 된다. 이러한 균형이 바로 팔정도이며 수행자를 해탈로 이끌어주는 부처님의 정법인 것이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감각을 갖는 일이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상상만 해보거나 이곳 저곳으로 방황할 일이 아니라, 지도를 들여다 보든가 아니면 이전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아 가는 길에 대한 감을 익혀야 한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가르친 해탈에의 길은 감각에의 탐닉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행도 아닌 중도였다. 수행자의 마음은 균형을 잃거나 이러한 양극단에 빠지는 일이 없이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든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그대로 하여금 되잡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혐오함이 없이 사물을 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도 시달림을 당하거나 상처입지 않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게된다. 그러한 길이 바로 우리를 해탈로 인도하는 길인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낙태영가를 천도 해 드립니다.

"한번도 저항 해보지 못하고 죽어간
낙태영가를 천도해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중에 가장 큰죄가 아버지를 죽인 죄이고 두 번째가 어머니를 죽인 죄이며 그다음이 태아를 유산시켜 죽인 죄입니다.
그 어린생명이 태어나고저 하는 원을 짓밟아 버린 우리는 한 맺힌 어린마음을 꼭 풀어주어야만합니다. 그 어린 생명을 죽이고서도 참회하지 못하고 모른채로 일상생활에 임하고 있으나 그 한이 우리들 생활속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하던사업을 한순간에 망하게 하며 자식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아무런 이유없이 몸이 아프니 이러한 모든 것은 원한 맺힌 태아들의 한 입니다. 광명수자 성불사에서는 매월 지장재일마다 못다핀 어린 생명의 영혼을 해탈시켜드리오니 인연되는 모든 분들은 지극하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유산이 되었거나 태어나서 죽은 아기의 영혼과 조상님의 영가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상담해드리고 있으며 원인모를 병고에 시달리는 분들 또한 영가천도가 되고 나면 곧바로 시달리는 고통으로부터 해방 될 수 있습니다.

◆비용 : 영가 1위당 3만원
(부처님전에 올리는 공양과 옷, 우유, 과자등을 포함)
◇ 본인의 주소와 성명, 생년월일을 동봉할것, 집안식구의 인적사항을 동봉해도 무방함
◆일시 : 매월 지장재일(음력 18일)
◆연락처 및 온라인번호 (053)957-9551, 011-398-9807

축 협	613-72-14831-417	예금주 : 장봉임
제일은행	153-20-227927	

대구시 동구 신암4동 648-5

광명수자 성불사 주지 법장 합장

신 개 발 품



김시연스님

시·연·쑥·뜸·기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수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량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종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케 해준다고 하였다.

♣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분은 本社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점입니다.

·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 통
전립선	조루증	냉 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숙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2,000원)포함

시방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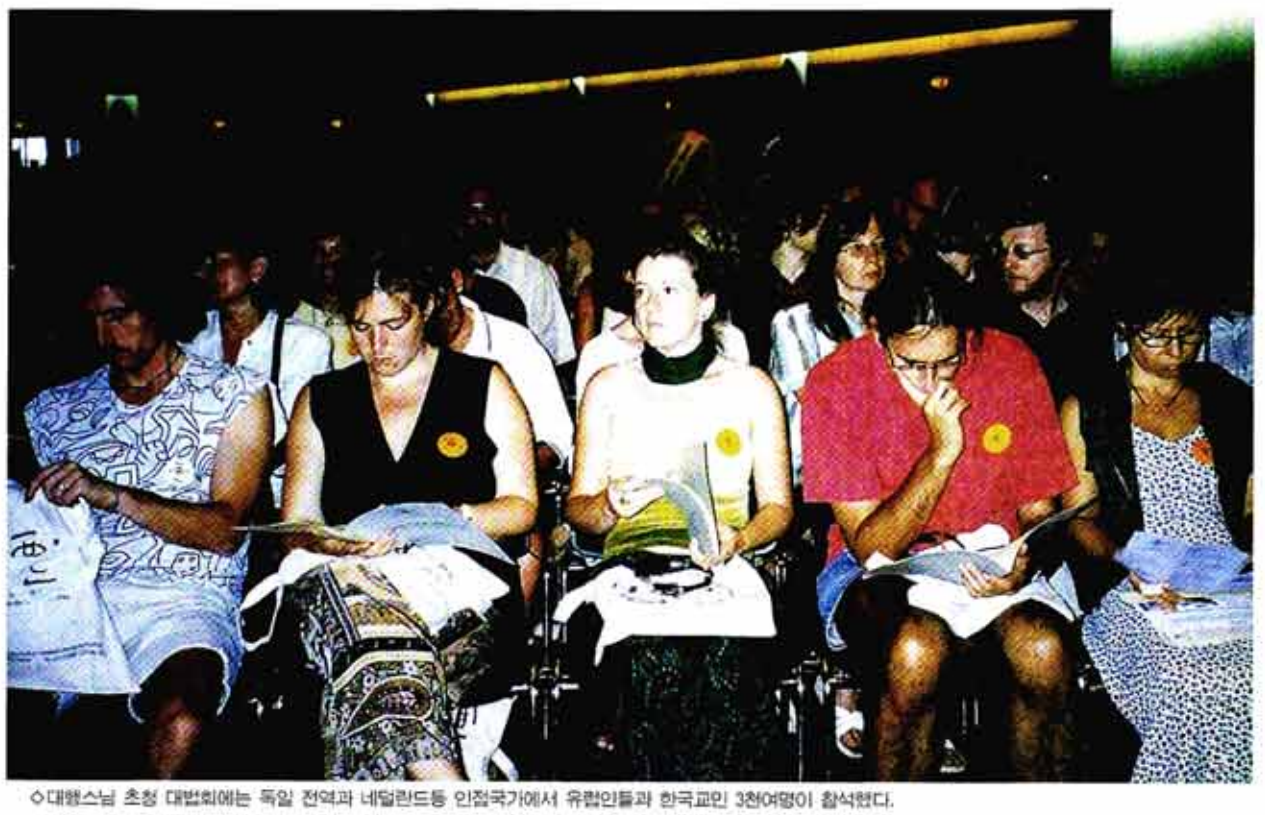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지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입증력 풍녀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대행스님이 '해탈의 문'을 주제로 꿈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하고 있다.

▼법회로고 (문범강교수作).





◇대행스님 초청 대법회에는 독일 전역과 네덜란드등 인접국가에서 유럽인들과 한국교민 3천여명이 참석했다.

대행(大行·73)스님은 독일인들을 해탈의 일주문으로 인도했다. 유럽 한복판 독일에 울려퍼진 스님의 생활禪 법문은 한줄기 청량한 바람이었고 감로법우였다. 7월31일 오후 4시(현지시각) 독일 뒤셀도르프 근교 라팅겐 시민회관. 그곳에서 독일불교계에 새 바람을 일으킨 대행스님 초청법회가 열렸다. 회관 주변은 축제분위기였고, 법회에는 3천여명의 청중이 운집했다.

대행스님 독일대법회 현장

해탈의 일주문으로 독일인들 인도

"'나'라는 집착 버리고 믿고 관하세요"
생활禪 법문 들으며 3천여 청중 감동

독일 전역에서 온 독일인이 2천여명으로 한국교민보다 훨씬 많았다. 네덜란드, 스위스 등 인접국가에서도 참석했다.

1100석의 강당 좌석이 모자랐다. 사람들은 바닥에 앉거나 서서 법문을 경청했다. 입장 못한 이들은 강당옆 전시장과 로비에서 TV 모니터를 지켜보며 법회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주 주독 한국대사, 슈톰 한국 명예영사, 헬무트 글루브레히트 전 UN 핵에너지위원회 상임의장(하노버대 교수) 등 독일의 저명인사와 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대행스님과 동행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단의 회장 광우스님, 수석 부회장 진관스님, 운영위원장 법운스님,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스님이 법석을 빛냈다.

독일은 물론 유럽 언론의 시선을 끈 이번 대법회는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이 주최하고 주독한국대사관과 명예 영사관이 후원했다.

식전행사로 대금선율 속에 한국산사의 아침과 대행스님의 간단한 행장을 소개하는 비디오가 상영되고, 부산 한마음 선다회의 전통다도 시연이 있었다. 청중은 숨을 죽였다. 법회장에는 선기가 감돌았다.

광우스님은 '대행스님의 청중인연은 과거 선근복덕을 심은 보살행의 인연공덕'이라며 "모두가 너와 나 차별없는 한마음이 될때 세계평화와 정토를 이룰 수 있다"고 축사를 했다.

한마음선원 합창단의 음성공양, 묵탁소리에 맞춘 뜻으로 푼 반야심경 봉독, 청정삼배 입정등 예불의식은 한국불교문화를 보여주는데도 한몫 했다.

대행스님이 법좌에 올랐다 "여기 여러분과 한마음 되어 한자리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행스님은 '해탈의 문' 주제 법문을 시작했다. 법문은 동시통역으로 전달됐다.

"세상은 하나의 공기 주머니입니다. 모습·말·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인간과 축생 미생물까지 한 생명 한 마음으로 살리만상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갑니다. 정신을 빼놓고 밖으로 찾으니까 길이 나타나지 않아요. 안으로 찾으세요. 주처는 자기에게 있어요. 주처는 뿌리이고 자기 모습은 싹입니다. 싹은 뿌리를 믿고 뿌리는 싹을 도와야 푸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때 발걸음 옮어지고 온 사람 없듯이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믿고 관(觀)하세요. 모두가 호합니다. 우리는 연기법(緣起法)으로 삽니다. 더불어사는 공용·공체입니다. 그 길을 만들려면 자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참자기를 만나면 苦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1시간여의 설법이 끝났다. 질문이 쇄도했다. 독일교포신문 황성범기자는 감사의 인사를 했다.

"가치관이 상실되고 있는 때에 오늘은 해탈의 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재독한인사회 3만5천 교민들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독일인은 "기독교인이 신에 의지하지 않고 진리를 찾게 되면 10계를 어기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대행스님은 답했다. "주인공에 맡겨 자성신을 찾으면 10계뿐 아니라 100계 200계도 지킬수 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독일불교연합 공동대표 다그마 도코 바스쾨닉(56) 비구니스님은 "생활선을 강조한 대행스님 법문에 감명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톨릭신자로 큰 십자가를 목에 건 미모의 독일여인은 말했다.

"문화에 따라 문제해결의 방법이 있다는걸 새롭게 배웠습니다."

나란히 앉은 중년의 두 독일남자는 법회시작전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어려운 병을 앓고있다. 생사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기독교 책으로 공부했는데 답을 못찾았다. 고통을 이기는 법을 찾고자 왔다."

"정년퇴직 후 뭔가 찾고 있었다. 4년전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졌는데 라디오 코리아에서 대행스님 법회소식을 듣고 친구와 함께 왔다."

두 도반은 법문을 듣고 어떤 법담을 나누었을까.

법회가 끝날무렵 하늘은 맑은데 한줄기 지나가는 비가 더위를 식혔다. 감로법우가 목마름을 풀어주듯.

'해탈의 문' 법회안내 현수막에 달린 5개의 연꽃 애드벌룬이 마치 해탈의 일주문처럼 선명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본 것이 인연입니다.'

'참나가 무엇인가 진실로 관하라. 내가 있기에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다.'

대중은 법회장 안팎 플래카드에 적힌 대행스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연꽃 일주문 쪽으로 향했다.

독일 뒤셀도르프=최정희 편집국장



◇라팅겐 시민회관 앞 '해탈의 문' 법회안내 연꽃 애드벌룬.



◇대행스님 법어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한마음선원 합창단의 음성공양은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이모저모

나치정권 학살영혼 천도재

○… 대행스님은 8월5일 뮌헨 근교에 있는 다하우시 강제수용소 추념관(관장 바비라 디스텔)을 방문 나치정권에 학살당한 영혼 천도재를 지냈다.

독일언론 '쥐트 도이췌 짜이퉁'과 '다하우어 낙흐리시텐'은 천도재 기사를 8월7~8일자에 사진과 함께 비중있게 다뤘다.

대행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천도재의 의미를 설하면서 '말로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당시 3군데 수용소(다하우, 아우슈비츠, 플로센뷔르그)가 있었는데 수만명의 영혼들이 오늘 다 모여 모두 해방됐다고 말했다.

합창단 음성공양 '앙코르'

○… 한마음선원 합창단(단장 최선희)의 음성공양은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서울본원과 부산지원에서 온 67명의 단원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법회 전후 2회의 음성공양을 했다. 반야심경, 무상게송, 지혜의 노래등 찬불가와 한국민요 농부가에 이어 '노래의 날개위에' '숭어' 등 독일가곡이 흐르자 청중은 박수로 환호했다. 지휘자 서윤재씨가 독창으로 '슈베르트의 소야곡'을 부르니 갈탄과 박수가 끊이질 않았다. 결국 합창단은 두 차례나 앙코르 무대를 꾸몄다.

독일언론 법회취재 경쟁

○… 독일의 언론들은 대행스님 초청법회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7월28일 오후 늦게 독일지원에 도착한 스님은 29~30일 이틀동안 신문·방송 인터뷰와 독일인사들의 방문으로 쉴틈이 없었다. 일간지 '베스트 도이췌 짜이퉁'은 7월20일자 16면 전면에 대행스님 법회안내와 가르침, 독일지원을 소개했다. '라이니쉐 포스트'는 7월 31일자에 법회소식을 전했다.

행사 후에도 방송사에서 출연요청이 있었으나 스님은 짜여진 일정관계로 응하지 못하고 8월11일 귀국했다.



◇대행스님 법어집과 테이프 행사로 고가 새겨진 가방·컵 등을 사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96년 개원…1일 첫 보살계 법회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대행스님 독일방문에 맞춰 96년 10월 개원이후 첫 보살계 수계법회를 8월1일 봉행했다. 110명의 수계불자중 독일인은 40여명. 수계불자들은 대행스님의 수계법어를 가슴에 새기며 불자의 삶을 다짐하는 연비의식을 치렀다(사진).

뒤셀도르프 카스트에 위치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매주 일요일(오전 11시) 정기법회를 한국어와 독일어 동시통역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요일(오후 5시30분)에는 참선법회를 열고 있다. 법회 참석인원은 40~50명 안팎으로 독일인 불자들이 주를 이룬다. 그밖에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새해맞이 촛불제, 칠석법회, 우란분재 천도제, 추석법회가 연중행사로 열리고 있다. 지원장 혜진스님과 혜백 혜남스님이 상주한다.

혜진스님은 "유럽인들이 뿌리깊은 기독교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열린 신앙관을 갖고 있어 유럽불교의 장래는 밝다"고 전망했다.

독일불교 현황

신도 10만여명 · 50여불교모임 '활동'



"현재 독일에는 50여개의 크고 작은 불교모임이 있습니다. 신도수를 정확히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대행스님 대법회에 참석한 독일불교연합 공동대표 다그마 도코 바스쾨닉 비구니스님(56·사진)이 말하는 독일불교 현황이다.

독일불교의 새로운 현상은 티벳불교, 미얀마의 위빠사나, 일본 선불교등 여러 종류의 불교들이 함께 모임의 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

독일불교연합은 뮌헨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1명의 공동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계간지 '로터스레터'(연꽃소식)를 간행하고 있다.

독일 최초의 불교단체는 1921년 뮌헨에서 결성된 독일불교회. 게오르규 그림(1868~1945)에 의해 창립됐으나 하틀러 압제정치의 탄압으로 해체된다.

1955년 독일불교협회가 창설되고 1960년 독일불교도연합회(DBU)로 재발족된다. DBU의 주장으로 독일불교는 1985년 연방정부로부터 세계적인 종교로 인정받는다. 같은해 유럽불교도연맹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국제불교도(WFB)협회 회원이다.

독일불교학자 한스 볼프강 슈만은 독일시사지 '슈피겔'의 불교특집에서 "유럽인들의 상당수는 물신주의에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불교의 온유함과 관용에 큰 매력을 품고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행스님의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아니게 돌아간다는 요지의 법문과 생활선은 유럽인들에게 새 길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독일에는 카스트의 한마음선원지원, 베를린의 보문사(주지 명오), 브레멘의 광법사(주지 회상) 등의 한국사찰이 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⑥

問汝言頓悟漸修兩門 千聖軌轍也
문여언돈오점수양문 천성궤철야
悟旣頓悟 何假漸修 修若漸修
오기돈오 하가점수 수약점수
何言頓悟 頓漸二義 更爲宣說
하언돈오 점수이의 갱위선설
令絶餘疑
영절여의

물었다. "소님께서는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이 모든 성인이 밟아온 길이라 하였습니다. 깨달았다면 이미 돈오한 것인데 어째서 점점 닦아야 하며, 그 닦음이 만약 점점 닦아야 할 것이라면 어째서 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오와 점수의 두 가지 뜻을 다시 설명하여 남은 의심을 끊게 해주십시오."

答頓悟者 凡夫迷時 四大爲身
답돈오자 범부미시 사대위신
妄想爲心 不知自性 是眞法身
망상위심 부지자성 시진법신
不知自己靈知 是眞佛也 心外覓佛
부지자기영지 시진불야 심외멱불
波波浪走 忽被善知識 指示入路
파파낭주 홀피선지식 지시입로
에 심광(心光)을 돌이켜서 자기의 본성을 보면, 이 성품에는 본래 번뇌가 없고, 번뇌가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돈오라 하는 것이다. 점수라는 것은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으나 오랜 세월의 습기(習氣)는 갑자기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그 깨달음에 의지해 닦고 점점 익혀서 공을 이루고, 또 오랜동안 성인의 자질을 잘 길러나가야 성인이 되는 것이므로 점수라 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기관이 갖추어져 어른과 다르지 않지만 그 힘은 충실하지 못하므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성인(成人)이 되는 것과 같다."

問作何方便 一念迴機 便悟自性
문작하방편 일념회기 변오자성

물었다. "어떤 방편을 써야 한 생각의 기틀을 돌려 자성(自性)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에 의지해 닦고 점점 익혀서
성인의 자질을 길러가는 것이 점수

一念迴光 見自本性 而此性地
일념회광 견자본성 이차성지
原無煩惱 無漏智性 本自具足
원무번뇌 무루지성 본자구족
卽與諸佛 分毫不殊 故云頓悟也
즉여제불 분호불수 고운돈오야
漸修者 雖悟本性 與佛無殊
점수자 수오본성 여불무수
無始習氣 卒難頓除故 依悟而修
무시습기 졸난돈제고 의오이수
漸熏功成 長養聖胎 久久成聖
점훈공성 장양성시 구구성성
故云漸修也 比如孩子 初生之日
고운점수야 비여해자 초생지일
諸根具足 與他無異 然其力未充
제근구족 여타무이 연기력미충
頗經歲月 方始成人
파경세월 방시성인

답하다. "돈오라는 것은 범부가 미혹했을 때, 사대(四大)를 몸으로 삼고 망상을 마음이라 하여 자기의 성품이 참 법신(法身)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신령한 지혜가 참 부처인줄을 알지 못해서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결치듯이 흘러다니다가 갑자기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바른 길로 들어가 한 생각

答只汝自心 更作什麼方便 若作方便
답지여자심 갱작십마방편 약작방편
更求解會 比如有人 不見自眼
갱구허회 비여유인 불견자안
以謂無眼 更欲求見 旣是自眼
이위무안 갱욕구견 기시자안
如何更見 若知不失 卽爲見眼
여하갱견 약지불실 즉위견안
更無求見之心 豈有不見之想
갱무구견지심 기유불견지상
自己靈知 亦復如是 旣是自心
자기영지 역부여시 기시자심

대답했다. "오직 그대 자신의 마음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쓴다는 말인가. 만약 방편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하고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째서 다시 보려고 하는가. 만약 잃지 않았음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보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겠는가. 자신의 신령스런 앎도 역시 그와 같아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째서 알려고 하는가."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극락과 지옥은

혜정스님 〈법주사 율주〉



약력
- 1933년 7월 전북 정읍 출생
- 1967년 경남대 종교학과 졸업
- 1953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72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역임
- 1977년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 1962년~83년 제 1~8대 중앙종회 의원 역임
- 1976년~77년 법주사 주지
- 현재 법주사 율주

"만법이 마음에서 일어나니 어려움 이겨내는 지혜도 마음공부 통해야 얻어요"

벌써 입추(立秋)가 되었습니다. 아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 며칠 후 돌아올 말복이 지나면 더위도 한풀 꺾이겠죠. 무더위 속에서는 '나'를 잊기가 쉬운 노릇이죠. 더위에 짜증내고, 예(禮)도 무시하기 일쑤란 말입니다.

이 '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중생들은 '나'의 참모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합니까. 마음 속에는 우주법계 삼라만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모르고는 내 근본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알기 힘듭니다. 자기을 모르는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의 정체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이 핵심입니다. 부처님 말씀의 골조가 이 '마음'이고 수행의 근간이 되는 것도 이 '마음'입니다.

요즘 '신창원 신드롬'이 젊은 이들 사이에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신창원을 영웅시할 뿐만 아니라 신창원이 잡힐 때 입었던 티셔츠며 반바지, 심지어는 그가 읽었던 만화책까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창원은 살인강도범으로 재판을 받고 수감 중에 탈옥해 2년3개월 만에 잡혀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난감하게 했는데도 말입니다.

신창원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 선(善)이고, 악(惡)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혼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혹시 '신창원이가 조금 더 있다가 잡혔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중생의 성낸 마음이 이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자라 온 환경이 열악하고 불우했다 하더라도 한 생각을 바로 다스릴 줄 알았다면 신창원도 없었을 것이고 '신창원 신드롬'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래 마음자리는 청정무구합니다. 그리고 본래 마음자리는 그 마음이라는 것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이어서 마음을 움직여 8만4천 번뇌와 망상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마음을 찾아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참선입니다. 참선을 통해 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불자들은 아마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 질리고 식상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빼놓고 불교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을 밝히는데 참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선을 뺀다면 허수아비와 다름없습니다.

나는 19살 때 수덕사에서 출가해 행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덕사는 경허-만공선사로 이어지는 한국 선의 본산이죠. 만공선사의 선맥은 보월-금오 선사로 이어지는 덕숭산문의 거대한 선맥을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그 금오선사를 은사로 득도, 선(禪)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금오 스님은 평소 "중은 책을 봐서는 안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 했죠. 당시 책 읽기를 좋아했던터라 글씨가 큼직한 경책은 달빛에서도 읽을 수가 있었기에 달이 밝으면 법당 뒤에서 경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금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글 읽기 좋아하는 놈은 중노릇이 어렵다."

금오 스님은 선종 본래의 사상인 '불립문자 견성성불(不立文字 見性成佛)'을 말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뒷날 이를 깨닫고 책을 불살라 버리고 참선에 몰입했습니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 사람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불교에 귀의한 것은 참으로 우연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전라북도 정읍의 선비집안에서 태어나 정읍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마을 훈장이셨던 조부의 영향으로 청년 시절에는 책에 파묻혀 살았었죠. 인도주의 작가들이 쓴 소설을 비롯해서 각종 소설류를 닥치는대로 읽었습니다.

그 즈음 6·25가 터지고 세상은 그대로 삶과 죽음이 맞닿은 현장이었습니다. 휴전이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사람들은 길거리에 잡지책을 많이 가져다 놓고 팔았었는데 거기서 월간(불교)라는 잡지책을 발견하고 한 권을 사 밤을 새워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생(生)과 사(死)의 의문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어요.

생종하처래(生從何處來) 생은 어디를 좇아 왔으며

사향하처거(死向何處去) 죽음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생은 곧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남이요,

사야일편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 죽음은 한 조각의 뜬 구름이 사라짐과 같나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슴 한 구석에서 찡한게 물밀 듯이 전해져 왔습니다. '생은 어디를 좇아 왔으며, 죽음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라는 구절이 날이 갈수록 가슴을 파고 들어 며칠 동안 그 구절을 생각한 끝에 입산

이제는 집에서도 온 가족이 손쉽게 법회를!

가정법회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5계 수지문 낭독 · 찬불가 · 성구 및 해설 · 발원문 · 사홍서원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축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은 가족이 날짜나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학종 편저/신국판/350쪽/값 10,000원

중국과 대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선학총서 첫 번째 권

불교와 유학

불교와 유교, 동아시아 사상계의 가장 큰 충돌,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와 불교화된 유교!



불교와 유학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상호간의 투쟁, 배척, 흡수, 융합 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한 관점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이 갖는 각각의 특징,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 유학이 미친 영향, 역으로 중국의 유학에 불교가 끼친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의 결과 및 의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賴永海 저 · 김진무 역/신국판/363쪽/값 12,000원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현대 한문해석법의 완성과 반야심경에 대한 최초의 문법적 분석



불교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책은 한문의 기초부터 한시는 물론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이다. 특히 반야심경을 현대의 한문해석법에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장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값 12,000원

初發心自警文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게 꾸민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번역 및 자해난은 물론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 해석의 순서와 방점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혜공 편역/신국판/136쪽/값 4,500원

1999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지.

전 서적에 대한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전체목록 색인란과 출판사별 색인란을 두어 목록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가까운 불교서점에 가시거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비 2,000원 동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큰스님 수행한담

자기 스스로 만듭니다”

‘신창원 신드롬’은 선악 판단 못한 혼돈 한 중생의 성난마음 엄청난 결과 초래



◇ 1967년 법주사주지 월산스님 진산법회후 기념촬영.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혜정스님.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은사이신 금오 스님은 첫 인상이 달마 스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스님을 뵙고는 단번에 ‘그래, 내 인생의 행로를 정할 수 있는 스승이 바로 이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나는 금오 스님과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고 출가인으로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덕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 나에게는 ‘마음자리’를 생각케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원주스님이 당신에게 온 한 장의 편지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내용인 즉 여기에 분명히 적어 보내니 꼭 한 번 읽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봉한 것은 하얀 종이 한 장뿐이었죠. 그 백지 종이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자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원주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그 스님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참구해 보세요. 화두가 없으신 분은 화두로 삼아 참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군요.

행자 생활 2년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화두를 참구하며 수행인으로서의 자세를 놓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비록 출가하기 전 행자라고 할지라도 화두만은 꼭 챙기게 하셨습니다.

화두에는 1천7백 공안이 있는데 각 화두마다 개성이 있어서 자신의 근기에 맞는 화두를 간택해야만이 깨달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수덕사에서 마곡사로 와 행자생활을 하면서 나는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라는 화두를 간택했습니다. 이 화두는 지금까지 나에게 선(禪)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화두야말로 나의 인생관을 뒤바꿔 놓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화두는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삼경(三更, 밤 11시~새벽1시)이 지나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느새 마곡사의 하루는 적막을 깨는 도량석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철야 용맹정진을 하는데 앞 벽이 무너지면서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경지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경지를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참선이라는 것이 인생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40여 년간 이를 순일하게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화두를 탁마할 때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를 관하는 것이 아니라 ‘만법은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계속 의심했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화두를 참구하면서 월추산 상견성암에서 3년간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토굴생활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토굴수행이란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조해야만 깨달음에 당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타행이라고 하는데 성불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으로, 오직 두타청빈의 생활로 단련시켜야 합니다. 심달다 태자도 바로 자신과의 싸움인 6년 고행을 통해 견성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상견성암에서 혼자 좌선은 물론 밥 짓고 빨래하고 나무하며 백장청규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았죠. 그 때 출가인으로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한 두타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불교가 선종 일변도로 가다보니 자연 교(敎)와 율(律)이 선(禪)에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율은 출가사문의 입장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도 말입니다. 계·정·혜 삼학을 바로 지킬 때, 선방이나 강원에서 계를 지킬 때, 선·교·율이 한 길임을 깨달을 때, 참부처를 만나는 것입니다. 선이 맞는 사람은 선을, 주력이 맞는 사람은 주력을, 기도가 맞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자기의 근기에 맞게 수행할 때 깨달음은 좀더 가깝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출가인에게는 오직 견성성불을 위해 24시간 화두를 놓지 말라고 이르고, 신도들에게는 참선, 간경, 염불 등 자신의 근기에 맞게 해야만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염불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면 꿈 속에서도 항상 성현을 만나고, 마음이 쾌활하고 밝아집니다. 그와 반대로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여 마음이 탁해지면 꿈에도 컴컴한 그림자 속에서 헤매게 되지요. 그러니 극락은 어느 누가 던져주는게 아니라 스스로 믿고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 어느 군인이 모 스님을 찾아와서 ‘극락과 지옥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랍니다. 그러자 스님이 번들개가 나게 그 군인의 뺨을 후려쳤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군인이 부아가 날게 아니겠습니까. 그 군인이 아무리 도가 높다고 소문이 난 스님이지만 괘씸한 생각에 혼내주려고 권총을 뽑자 그 노장이 눈치 빠르게 그만 버선발로 내뺐습니다. 그러자 군인도 스님을 막 따라나와서 도량을 이리 돌고 저리 피하고 쫓고 쫓기기를 몇 바퀴 돌아보니 스님도 숨이 목에 차고 군인도 헐떡거리고 쓰러지니까 스님이 “아, 그 참 지옥 설명하기가 힘드는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군인이 한참 도량을 돌다 보니 감정도 좀 삭아지고 몸이 노곤하여 반은 풀린데다가 그 소리를 한마디 탁 들고 보니 ‘아하, 내가 둔했구나’하는 지혜가 일어나 ‘하하’ 웃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극락일세.” 스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극락과 지옥이 다 그 자리에 있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우리 관념에서 일어납니다.

‘일체유심조요, 삼계가 유식이요, 만법이 유심이라.’

육계, 색계, 무색계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만법이 다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 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 어려움을 그때 그때 대처하는 지혜도 이 마음 공부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은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 든든한 후원자, 지지자를 얻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라도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살아 가십시오. 그런 가운데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몸이 부서지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 내 스스로 하루 24시간 또렷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마음자리 찾는것은 자기와의 싸움
‘불교와의 인연’은 삶의 든든한 후원자

나의 수행일기



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10년째 금강경 독송하며 불교공부
108배 마치면 작은풀도 귀해 보여

지난 86년 뒤늦은 유학시절에 처음으로 〈천수경〉 독송을 시작했다. 내용이 비교적 쉽고 발원과 진언으로 이루어진 〈천수경〉은 힘든 유학생활에서 마치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짧은 시간이나마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스릴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시작한 〈천수경〉 독송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금강경〉 독송으로 바뀌게 되었다. 어머니를 통해서 느낀 존재와 인식의 허망함과 거짓됨에 대한 가르침을 〈금강경〉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없이 매일 매일을 〈금강경〉을 10년째 읽던 지난해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합천 해인사 인근에 건설될 예정인 도로 문제 때문에 공청회에 참석하고 스님 몇분과 저녁공양을 하면서 한 스님의 말씀 중에 재미삼아 흘어나온 “무식한 귀신에게는 진언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다. 이 말은 그동안의 내 생활을 되돌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강경〉을 읽었다지만 그 속의 가르침을 되집어 곰곰히 생각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금강경〉에 비추어 반성하고 개선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보낸 10년 세월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내 자신이야말로 비할 바 없이 무식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그 때부터 한글본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이 늘 말하는 그 시간이 없다는 굉계로 매일 매일 그 수준에 머물고만 있을 뿐이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부딪치는 모든 인연은 나름대로 중요함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아무리 힘든 일도 지나서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첫 걸음이었고, 그 힘든 일의 시작은 아주 좋은 일로부터 발생한 것도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좋은 일은 그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우룡스님께서는 법회마다 스님 자신의 뺨을 철석 철석 때리시며 말씀하신다.

“우리는 남의 부모 될 자격도, 자식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도…, 내다, 남이다. 불자다, 기독교인이다 말하지 말고, 남 허물보지 말고, 안으로 안으로 자기 단속 잘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복과 덕과 지혜가 가득찬 법계의 하나가 돼야 한다”

우룡스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108배와 염불이라는 또 다른 수행이 시작됐다. 일상의 생활과 가족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감사와 참회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더운 여름날 비오듯 땀을 흘리고 108배를 끝내고 작은 동산을 내려오면 이 걸음 옮기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의 작은 풀까지도 참으로 귀하고 새로운 존재로 보인다. 아마도 잠깐으로도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서 사물의 존재가 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 진정한 불자로서의 수행은 이렇게 투명한 상태를 몸과 마음으로 유지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돌이켜 보면 내가 불자로서 하고 있는 것은 수행이라기보다 마치 블법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다. 적당히 넘어가고 싶을 때, 우쭐대고 싶을 때, 게으름을 피울 때마다 “바위에 피가 베이도록 진실해야 한다” “세상은 정성 성(誠)자 하나로 살아야 한다”라는 큰스님들의 법문을 되새기며 참불자의 길을 걷고자 노력한다.

아직 가야할 길은 아득하지만 이렇게 쉼없이 계속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것을 잊지 않고자 한다.

모든 불자들이 업보업장 해탈하고 세세생생 부처님전에 복많이 짓고 행복하길 발원한다.

1 奉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8월 25일, 음 7월 15일) 行
우리조상 천도발원 후손들의 보은공덕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 672-2448

2 奉 일시 : 8월 25일 (음 7월 15일, 수요일) 行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
한국불교법륜종 보현정사 ☎ 276-1730

3 奉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8월 25일, 음 7월 15일) 行
조상님 공경하고 어버이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금성산 다보사 ☎ 334-4201

4 막대구멍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라
사랑하고 연민하심 한결같고 끊임없네
단것은 아기에게 먹이느라 당신은 안찾으고
쓴것은 삼키면서 찡그림적 한번없네.
- 부모은중경中 -

5
어머님의 크신 은혜 땅에다 견주리까
아버님의 높은 은혜 하늘에다 비기리까
하늘 은혜 땅의 은혜 아무리 크다해도
어버이의 큰 은혜에 견줄 수 없어라.
- 부모은중경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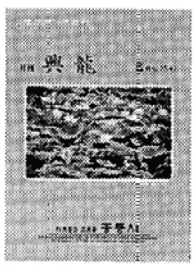
불교서원 전화 (062) 226-3056, 전송 (062) 226-5056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93-6

어버이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 어른되니 그 분 이미 세상에 없네.

8月 맞춤사보 (특집) 백중영가천도법회

우리 절 편집실처럼 스님의 뜻을 헤아려, 필수적인 내용과 경제적인 가격으로 사보(월간, 격월간, 계간)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신도교육과 포교, 행사안내와 신도사업체 홍보, 사찰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등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사보제작 5년 역사를 지닌 불교서원과 만나십시오



8월호내용
특집(1)백중(우란분절)과 영가천도
특집(2)불교에서 바라본 효도와 조상공경
특집(3)조상천도기도로 다시 찾은 가정의 평화

사보(1) 20쪽, 표지칼라
기본 (100부) 10만원, 추가 100부당 4만5천~5만5천원
사보(2) 8쪽, 흑백인쇄
기본(100부) 6만원, 추가 100부당 2만8천~3만5천원
※사찰 전용지면(4쪽)에 스님설법, 행사안내, 신도원고, 신도사업체 후원광고 등을 실을 수 있습니다

개량형 영가위패(1장에 15영가 위패)
각종 현수막(행사안내,부처님 말씀 등),책상용 명패(주지,사무장)
상패(임명패,감사패), 상장, 수계증, 사찰기, 조의기 등도
주문제작, 통신판매 합니다.

※주문입금계좌(농협 613-01-092143 예금주 : 선우), 입금시 사찰명을 꼭 기입바랍니다

영가를 천도드릴 때 염송하는 각종 “왕생기도발원문집”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왕생기도와 천도재

(구)『무상법문집』 증보판 4×6배판, 값 3,500원

왜 그리고 어떻게 천도기도를 드려야 하며 실제로 기도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각종 왕생기도문(자신의 앞길을 닦는 사람이 올리는 극락왕생기도, 상가조문시, 낙태아천도제, 49재 등 천도재에 올리는 왕생기도)과 영가천도의 바른 이해와 인연공덕, 그리고 천도기도체험기는 사찰에서 필요한 왕생기도 신행지침서(백중, 49재 법공양판)가 될 것입니다.

※법공양을 원하시는 분은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오니 연락바랍니다
※사찰에서 법공양판 제작시 특별할인 해 드립니다

불교서원은 불교서점(전화주문 통신판매, 법공양 할인판매)와 불교전문인쇄, 출판사(7년 역사)입니다

불교서원 전화 (062) 226-3056 전송 (062) 226-5056

굽은 대들보…역동의 미학



청룡사 대웅전

우리 전통 건축의 원초적이고 역동적이며, 종용적인 미학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청룡사 대웅전의 휘어진듯 곧은 기둥들

청룡사 대웅전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가람의 장면들 10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청룡리에 있는 청룡사는 고려말 명승인 나옹왕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한다. 나옹은 보우스님과 함께 조선시대 불교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고승으로 현재의 조계종이나 태고종과도 연관이 깊다. 나옹스님은 지금의 청룡사를 중창하면서 한 마리 푸른 용이 오색빛 찬란히 빛나는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보고는 산이름을 서운산, 절이름을 청룡사라 고쳤다고 전한다.

현재는 대웅전과 관음전 등 5동의 단출한 사찰이지만 산사치고는 웅장한 대웅전이 보물 824호로 지정되어 있다. 번듯하고 화려한 정면의 얼을 돌아 측면으로 가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다. 우선 4칸인 측면의 칸수는 3칸 정면보다 한칸이 더 많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둥들이다. 구불구불한 기둥들. 심지어는 곧 쓰러질 것같이 심하게 휘어진 기둥들. 휘어진 나무들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한 작품과도 같다. 측면의 기둥들은 하나도 곧바른 것이 없다. 모두 구불거리며 굽기도 위아래가 현저히 다르다. 그러나 이 건물은 800년이 넘도록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 이 건물을 만든 목수들은 나무의 성질을 꿰뚫고 있었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

한국의 소나무들은 곧고 굵은 것이 부족했다. 오히려 가느다랗고 휘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목수들은 항상 이 불규칙한 목재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휘어진 소나무들을 억지로 깎아서 반듯하게 만든다면, 기둥이나 보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가늘어지기 때문이다. 묘안을 찾아낸 것이 휘어진 나무를 휘어진 대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겉보기에는 원시적이고 초라해 보여도, 이 기법은 매우 우수한 구조적 장점을 보장하게 된다. 대들보와 같이 수평으로 걸리는 부재에는 항상 지붕에서 내려오는 수직적 하중이 걸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들보는 아래로 쳐지는 힘을 받게되

곧 쓰러질듯 휘어진 기둥
800년 넘게 굳건히 버텨

나무성질 꿰뚫은 기법 '감탄'

고 심할 경우 힘을 못이겨 부러지게 된다. 그러나 마리 위로 휘어진 나무를 사용하게 되면 밑으로 처질 염려도 없고 부러질 위험도 없다. 또 시각적으로도 위로 휘어진 나무는 안전하게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이유 때문에 한국건축에는 위로 휘어진 대들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미학적 기준으로 고착되었다.

휘어진 나무들을 기둥으로 또는 대들보로 그대로 사용한 예는 한국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의 대들보들은 아름드리 휘어진 나무들이다. 심지어는 두 개의 나무를 이어붙인 것도 있다. 실내로 들어가면 온통 휘어지고 거친 들보들로 아늑한 맛이라고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원초적이고 역동적인 감동이 가득하다. 섬세하게 단장된 다른 건물들과는 또 다른 미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을 인간의 모범으로 삼았던 노자(老子)의 철학에 의하면 '크게 완성된 것은 마치 찌그러진 듯하며, 크게 곧은 것은 마치 굽은듯이 보이며, 크게 정교한 것은 마치 서투른 듯이 보인다(大成若缺 大直若屈 大巧若拙)'라고 했다. 자연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건축이 가졌던 모습도 그런 것이었다.

옛사람들은 직선을 곡직(曲直)하다고 표현했다. 휘어진 듯 곧으며, 곧은 듯 휘어진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한국건축에서 사용한 직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바른 수학적 직선이 아니라, 곡직한 직선이었다. 이러한 반어법적 표현은 한국건축 곳곳에 숨어있다. 예컨대, 열린 듯 닫혀있다든가, 내부인 듯 외부라든가, 가득 찬 듯 비워진다든가 하는 음과 양이 하나로 조화되는 음양본적 사고일 수도 있다. 또는 어떤 극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용적인 미학을 존중한 결과일 수도 있다. 직선적이 아닌 곡선적이며, 정교한 것이 아닌 투박하고 역동적인 미학이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이었다. 그 위태위태한 아름다움을 청룡사 대웅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사찰도서실은 전법과 포교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각종 문헌정보와 영상정보, 여기에 인터넷과 같은 첨단 전자정보 등을 두루 갖춘 사찰도서실은 그 자체가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워준다. 이런 사찰도서실을 잘 활용하면 참신하고 알찬 포교와 전법을 할 수 있어 금상첨화다. 도서실 공간이 마련됐다면 다음 일은 불서선정 구입과 불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를 분류하는 것이다.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신도 법공양운동 '지름길'

전문인 자문받아 도서 선정
본사 캠페인 동참하면 경비절감
서점식 분류 찾기쉽고 실용적

불서구입·분류

넉넉치 않은 도서구입비를 알뜰히 활용해 신도들의 입맛에 맞고 질도 좋은 책을 선정 구입하는 일은 사찰 도서실의 숙제다. 이 숙제를 풀어가는 방법의 첫째는 도서실의 주된 이용자인 신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선 신도들의 독서경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도서마련은 가능하면 '불서보시운동'을 결처 모으는 방법을 택하면 도서구입비를 절감하고 신도들에게 독서문화를 활성화해 도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행및 교육과 관련지어 신도들에게 읽고 싶은 책과 그 이유를 적어 내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단 경전류나 선서의 경우에는 주지스님이 명확한 자세를 가지고 선정 구입해야 신도들이 체계적으로 독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다른 방법중에 하나가 저명한 학자나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도서선정위원회를 꾸리거나 자문을 받는 일이다. 많은 종무행정을 담당하는 주지스님이 도서실 운영까지 총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도서선정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사찰도서실을 방문해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어떤 책이 필요한가를 선정해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도서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계신문, 잡지 통신망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신문·잡지에 소개되는 신간서적이나 출판사 등에서 발행하는 권장도서목록 중에서도 좋은 도서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밖에 책방 여시아문(buddhapia.com), 불교시대사(buddhistbook.co.kr) 등에서도 도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사 캠페인에 동참하면 할인혜택은 물론 상담과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서실 관리자는 새로운 정보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어야 저렴하고 질좋은 도서를 선정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서가 마련됐다면 신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처지에서 읽히는 책과 자료를 쉽고 정확히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열쇠다. 분류는 분류번호대로 책을 배열해 같은 주제의 책들이 옆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사실 분류번호란 정답이 없다. 사찰이 추구하는 목적과 신도들의 수준에 따라 책의 분류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류는 이용자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춘 나름대로의 분류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도서기호(ISBN), 한국십진분류법(KDC)상의 분류 등이 있지만 사찰도서실의 경우 도서의 양이 적고 불서만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같은 분류법보다는 나름대로의 분류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다. 즉 서점의 배열처럼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무엇보다 신도들 각자가 관심있는 분야가 눈에 쏙쏙 들어오게 분류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불교입문, 불교사, 교리, 불교경전 및 관련서, 법회·의식·예불·사경 관련서, 제불·보살 및 스님 전기, 포교 교육 윤리, 불교문학, 법어집, 설법집, 선서 및 관련서, 불교예술(미술 건축 음악), 어린이 도서, 명상서 등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불서 종합목록을 만들어 보자. 신도들이 관심이 높은 새로나온 책, 소설, 정기간행물 등의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불서선정및 구입과 분류를 위해서는 주지스님과 신도회 등 각 신행단체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동참한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읽은불서·새책 한권씩 절로 보내자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해 동안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1회 기획기사를 통해 도서관과 불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 만들기·운영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아울러 도서실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우리절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결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읽은 불서 또는 새로나온 불서 한권씩을 더하는 점에 법공양 한다면 많은 절들이 도서실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주지스님을 비롯 교계인사, 신행단체, 불자 여러분이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동참안내
①도서실 만들기에 뜻이 있는 주지스님들은 본사 캠페인팀과 상담해 주십시오.
②불자 여러분은 소속 사찰에 읽은 책 또는 새책을 보내거나 본사 캠페인팀과 법공양을 의논하시면 됩니다.
● 상담전화: (02)737-8881 출판부장
후원: 조계종 포교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협찬: 교계 출판사
(사찰도서실 법공양 불서 30% 할인)

현대불교신문사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좋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제 기자)

한형조 지음/ 96 변형 39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돌고 도는데 무엇이 자기 겁니까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고정됨 없으니 근본에 의지해서 자유롭게 행함이 생활속 공부

스님이 회색승복 입는 까닭

문 늘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언젠가 스님께서 법문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많고 많은 색상들 중에 왜 하필이면 스님들 입으시는 승복은 회색인지요?

답 승복의 회색은 중도를 말하죠. 그래서 안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이 혼합된,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거죠. 중도가 되기 때문에 중심이 되고 중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먹물 옷은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해서 방편으로 입는 거죠. 흑백의 분별을 벗어난 근본자리의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서 죽는 방법

문 저는 대학시절부터 이렇게 고생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 전에 스님이 법회에서 아버지에게 맞아죽으면 어떻습니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대면할 때마다 맞아죽을 바엔 아버지의 손에 맞아 죽는 게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기를 스님은 살아서 '내가 죽는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언뜻 떠올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우에 따라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되는 것과 보는 것, 만나는 것도, 다니는 것도 일정치 않으니 내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다 달라도 그게 다 나 아닌가하는 생각때문에 언뜻 수긍이 가지를 않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으나 제겐 염원하는 것이오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어느 거 할 때를 꼬집어서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기에 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일체를 내가 하는 것이요, 또 일체를 내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만날 땐 아들이 되고 아들 만날 땐 아버지가 되고 아내를 만날 땐 남편이 되고 순간 순간 나투며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바뀌어 돌아가는데 어떤 때를 꼬집어서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만났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정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하든 근본을 의지해서 자유스럽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공부의 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길일 것입니다.

24시간 계속 참선 하려면…

문 저는 이 생이 다하기 전에 꼭 참나를 상봉해야겠다고 발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시간 나는대로 참선을 하고 있는데 참선을 하지 않을 때는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순간도 끊어트리지 않고 참선을 하는 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어떠한 망상이나 습과 업도 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인연들을 실제적으로 녹여나가는 방법을 일러 주십시요.

답 우리는 24시간 살면서도 항상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고 화해서 돌아갑니다. 금방 어머님 만났을 때 마음, 친구 만났을 때 마음이 달라지고 또 동생 만났을 때 달라지듯이, 그렇게 화해서 옮겨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없다 있다 할 수도 없거니와 또는 내세울 것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나투고, 한시도 머무르지 않고 일분 일초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이지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일분 일초도 떼어놓지 않는 것이, 우리 생활 그대로 자고 깨고 똥싸고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일초도 떼 놓지 않고 돌아가는 참선입니다.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 그 도리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아가면서도 아는 거 모르는 거 몽땅 믿고 일임해서 놓는다면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듯 참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육이 나온 것은 육의 탄생이지 참나의 탄생은 아닙니다. 참나의 탄생을 하려면 그만큼 마음의 근본으로써 참나의 새싹이 터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금 씨가 여물어서 그것이 무르익어야만이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나무에서 무르익은 그 실과는 온 누리에 같이 맛을 볼 수가 있고 같이 먹을 수가 있고 같이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돈을 내서 사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니까 아주 값싸게 생각을 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써 공생·공용·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공심으로써 공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체로써의 일체 만물이 생기고 만생이 같이 융합해서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긴것 짧은것 모두 놓을 때 참나 솟아나 얼키고 설킨 인연줄 마음으로 녹이세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줬고, 내가 망했고, 또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그 껍질을 벗어날 수가 없고, 습을 벗어날 수가 없고, 욕심을 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도대체 무엇이 자기 겁니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기는 관리인 밖에는 안됩니다. 자기 것이 있읍니까? 돌고 도는 것인데. 돈도 자기 것만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관리인 밖에는 안돼요. 그런데 자기 거라고 하거든요. 자기 거라고 자꾸 고집하니까 돈이 생각을 할 때 "흥! 네 거라고? 좋아하네." 하면서 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주면 '아! 여기 가면은 관리를 잘하니까 내가 가야지' 하구서 스스로 돈이 들어오는 거지 달아난 돈을 쫓아가고 내 거라고 쫓아간다면 더 한없이 달아나갑니다.

가난도 불을 데가 없는 것이므로 주인공에다 다 일임해 버린다면 '어어, 내가 이거 정말 원수를 갚을려고 속을 썩일려고 이렇게 나왔더니 씻은듯 부신듯 하니까 이거 뭐 안되겠어.' 하며 달리 생각을 하고 착한 마음과 더불어 자기도 그 뜻을 알고서 착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상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녹이라는 겁니다. 놔서 녹이라는 거지 끊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망상이 없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으니 망상을 끊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것이고 한마음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너, 두고 보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있어보세요. 들어오면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야! 뭐' 그러고 꽥꽥 악을 쓰고 오히려 한술 더 뜹니다. 그러니깐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로 본다면, 자기와 같이만 본다면 자비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의리도 나오고, 도의도 나오고, 무궁무진하게 자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거기까지 풍겨서 에너지와 같이 여러분이 공생을 하고 공심으로 공용을 하고 있으니 공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고 옴이 없이 마음의 향기에너지는 거기까지도 다 밝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오기도 전에 바깥에서는 '아, 이거 미안한데.' 하구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보! 나 참, 미안했어!" 하구서 이런 말 한마디를 들을 때 그냥 겨울에 고드름이 녹아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녹아 떨어지게 되죠. 사랑을 주는 거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받게끔 돼있으니깐요.

내가 해놓은 거 어디 가겠습니까? 나쁜 일을 해놨어도 내한테 올 것이고 좋은 일을 해놨어도 내한테 올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준다면 자비롭게 의리를 도모하고 참 그렇게 믿는데에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모두가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고 또 화목하게 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뿐만 아닙니다, 세세생생입니다. 현실에 나쁘고 좋은 게 다 그냥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끊어진다면 별 문제인데, 세세생생에 억겁을 거치면서 또 얼키고 설키고 자기 한 대로 그게 얼키고 설킬테니 어떻게 끊으렵니까? 물질이라면 아예 단번에 끊어버리고 말겠는데, 물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찔깃 찔깃한 인연줄, 그 인연줄은 아무 걸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온 거 마음으로 끊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은 둘이 되니까 녹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왔던 자리로 다시 놓으세요. 나온 자리에 다시 놓는다면 개발이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만법을 응용하게끔 생동력 있게 개발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낙태아 영이 빙의 됐다는데

문 저는 스님께 많은 질타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몇 개월 전에 병든 몸과 마음을 기로 치료한다는 곳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여러 우울 증세들로 삶에 의욕이 없고, 마음이 괴로워서 찾아가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 치료과정 중에 엄마가 낙태했던 아이의 영혼이 제게 빙의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과 달리 부정적이고 마음이 어두웠던 것이 그 영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치료와 천도재를 지내면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너무 강하게 부정하셔서 그 곳에 다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빙의 되었다는 말도 반신반의합니다. 언젠가 대행스님께서 천도에 관해 법문하신 테잎을 들었습니다. 너무 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마치 제게 하신 말씀처럼 따갑게 와 닿았습니다.

제가 스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제게 정말 빙의가 된 것인지와 빙의됐을 때는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뿌리가 싱싱하면 잎은 절로 푸르르다

믿음은 불가사의한 힘을 갖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완전한 믿음은 그 어려움의 얽힌 실타래를 깨끗이 풀어 버린다.

믿음은 믿은 만큼 보답한다. 일체를 믿는 이에겐 일체를 주고 절반만 믿는 사람에겐 절반만 준다. 주인공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쳤다 해서 좌절할 것은 아니다. 믿음이 있는 한 어려움을 준 거기에서 풀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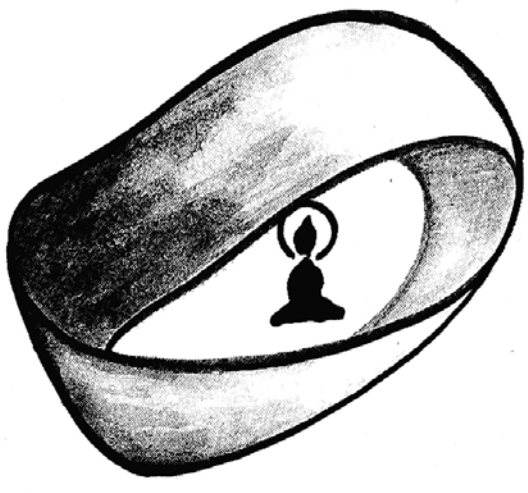
우리들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것, 그러므로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믿음의 크기만큼 본래 부처로서의 광명이 우리의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게 된다. 그 광명 앞에는 어떤 어둠도 당해 내지 못한다. 온갖 더러움과 욕심, 어리석음이 일시에 사라질 것이다.

"당장 급한데 어떻게 주인공을 믿고 전부 맡기라 하는가?" 하는 말을 하지 말라. 뿌리가 싱싱하면 가지와 잎이 절로 푸르르니 썩을 일도 없게 된다.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공덕의 탑을 쌓고 믿음은 결코 시들지 않는 지혜의 나무를 자라게 한다.

주인공에게 믿고 맡길 때 주인공의 응답이 온다. 뒷전에 물러앉아 있던 주인공이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 주인공은 결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다.

진실하게 믿고 물러서지 않을 때 비로소 해결하면서, 체험하면서, 감흥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아! 내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단호하게 쥐고 들어가 맛을 보고 감흥이 되고 마침내 참 나가 드러나게 된다. 참 나가 드러나 부자 상봉이 이뤄지면 부와 자가 더불어 자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그 자리에 일임하게 되면 왜 모든 일이 잘 풀리는가? 그것은 근본 자리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힘이 우러나와서 유위의 법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때에 따라서 다보 여래가 되기도 하고, 지장보살이 되기도 하며, 관세음 보살·문수 보살·보현 보살이 되기도 한다. 또 신장이 되기도 한다. 주인공은 무엇이든 아니되는 게 없으니 주인공 자리는 본래 공한 것이지만 그러한 묘법이 있다. 그러므로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놓는다면 주변이 화락해질 것이다.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치라고 굳게 믿었을 때, 에너지는 속사포같이 한찰나에 전달이 된다. 또 그런 믿음으로 주인공을 부르면 우주 전체가 한꺼번에 듣는다.

주인공밖에 할 수 없다고 믿어 진실로써 맡겨 놓는다면 믿고 맡기는 순간 마치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이 모든 게 밝아진다. 나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사회, 내 국가, 이 세상이 다 밝아지게 되어 있다. 고로 믿고 맡기느냐 않느냐의 한생각에서 천지가 벌어진다. 한생각 잘하면 무량의 밝은 빛을 낼 수 있을 것이고 한생각 잘못하면 무량수의 죄업을 뒤집어 쓰게 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본래로 죄가 없기에 죄 붙을 자리 또한 없으나 한생각 잘못 일으켜 어둠에 빠져 든다는 뜻이다.

한마음 자리에 대한 굳은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억겁 년 이래의 업보도 그 행복한 마음 앞에서는 솜처럼 가볍다. 왜냐하면 한마음의 그 무한 광대한 복락에 비추어 볼 때, 중생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온갖 근심과 번뇌와 경계를 한짐 부려 놓는 것과 같다. 믿으면 편안해진다. 나는 본래로 부처라, 죄업에 물들지 않고 인과에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 대광명의 존재임을 알아서 자신의 근본 마음에 귀의한다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놀듯 편안해진다. 나는 진리의 바다를 자재로이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 해도 여한이 없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했다면 생홀 속에 어찌 잡다한 불안이나 걱정이 있겠는가.

믿음이 자라면 즐거움이 나오고, 그 즐거움 속에는 죽음이 목전에 닥쳐도 태연자약할 만큼의 진실이 자리잡는다. 생활 속에서 마음의 힘을 체험해 보라.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모든것 자기로 보면 무궁한 자비 나와

☞ 15면에서 계속

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대인공포증도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의 사람들처럼 배우고 놀고 친구 만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요. 죄송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 자기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인데 산 귀신, 죽은 귀신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모든 게 둘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보든지 귀신을 보든지 선신을 보든지 놀라지 말고 항상 둘이 아닌 걸로 알고 어떠한 귀신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나를 테스트 해보려고 환상으로 내보내는 작용인 줄 아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깐 그 자리에다 도로 놔버린다면 바로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네 의식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속지마라, 그렇게 나오걸랑은 네 주인공에다 모두 일임을 해라' 이렇게 믿는다면 곧장 나아요. 모든 것이 딴 데서 온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이 의식 속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건데 딴 데서 귀신이 와서 그러는 줄로만 아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가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 육체 안에, 이 마음 안에 영가가 셋도 들어가 있고 둘도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도 딴 데서 들어온 게 없이 '내 이 의식 속에서 다 나오는 거로구나' 하고선 모든 걸 속지 말고 그냥 주인공에다 일임하고 '너만이 이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는 그냥 모두 거기다 맡겨놓으면 다 편안할 것을, 이해가 가요? 그러니 이 마음공부를 함으로써 내 집을 지키는 주인을 완벽하게 세워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근본 뿌리인 주인공을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저 나무들을 보니까 잘났든지 못났든지 다 뿌리에서 싹을 안고 있구나, 그래서 싹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뿌리야! 네가 만든 므습인 이 싹이 이렇게 나빠졌으니 좋게 해.' 라고 관한다면 뿌리가 알아들고 '그래! 네가 나를 잊지 않고 알고 있구나' 하고 좋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속에 있는 생명들이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관을 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믿고 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광대하고 무변한 묘법을, 마음의 모법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 마음에는 어떠한 거든지 녹여서 재생시킬 수 있는 용광로가 있다. 이 내 마음의 용광로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으면 스스로 재생이 돼서 나온다. 그러니 그 용광로에다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무조건 갖다 넣기만 하라는 겁니다.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정말이지 이건 세세생생에 광대무변하고, 조상과 자식들을 다 건지는 공부고, 나중에 가서 공부를 더하면 세상을 다 건질 수 있는 공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안 죽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는 사람, 즉 멸하는 사람이 있어야 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둥글게 돌아가고 둥글게 돌아가기 때문에 진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부처님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여러분의 법입니다.

그리고 대인공포증이라고 하셨나요? 그것도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세요. 마음자리는 공해서 어느 것도 붙을 것이 없으니 대인공포증 또한 본래 공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올 때마다 '주인공, 당신만이 자신감 있게 상대를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세요. 어떠한 거든지 수없는 과거생을 살아오면서 모두 내가 입력시켜 놓은 것이니 현실에 나오는 대로 주인공을 믿고 관한다면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하세요.

기독교 아가씨와 결혼후 갈등

문 안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을는지요. 달리 물을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찾아뵈옵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선 착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절에 가서 절도 올리고 밥도 먹곤 했습니다. 다른 종교보다는 훨씬 정도 가고 나중에 종교를 가지면 불교를 선택해야지 하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연인지 어떤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난해에 교회 다니는 아가씨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쪽 집안의 심한 반대로 인해 한 번 헤어졌다가 만나는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다닌다는 조건하에서 지난달에 결혼을 했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막상 교회를 안 나가려니 아내와 말다툼만 할 것 같고 또 나가자니 할머니께서 노발대발이십니다. 이유인즉

여러 종교 성인들이 대신해서 먹고자고 깨달아 줄 수 있나요 이 도리를 터득 하셔야 합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싸운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진 않습니다. 구하는 바는 무슨 종교든 같다고 봅니다. 사랑이든 자비든 말입니다. 정작 불교에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도 답답한 심정으로 사연을 띄웁니다. 부디 저의 사연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답 기독교를 다니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내가 이 세상에 출현을 했으니까 나부터 있는 겁니다. 나부터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든 가톨릭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그 주처는 내게 있는 겁니다. 나 이외의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기독교를 믿더라도 주는 나의 근본이요, 마음의 근본이요, 하나님은 그 근본으로 인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바로 당체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불교(佛敎)'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불(佛)이요, '교(敎)'는 전체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것을 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처는 모두들 각자의 가슴에 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은 당신의 아내 가슴에 있는 거니까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으라고 아내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라도 주처는 너의 가슴에 있으니까, 그 가슴 깊이 들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말고 안으로다가 '주님, 당신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그렇게 관하라고 일러주신다면 당신 하나로 인해서 아내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변해갈 겁니다.

영가 부모님께 용돈드려

문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어머니 아버지께 용돈을 십만원씩 드리겠노라고 하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인가를 끝내놓고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꿈을 깼습니다. 꿈에서라도 부모님이 제 용돈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뵙고 싶었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참을 멍히 있었지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 2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남들처럼 친정 부모님께 용돈 십 만원이라도 쥐어드려 봤으면 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애석한 마음에 다음날 법회가 있어 불전함에 아버지 어머니 영가 이름을 적어 각각 십만 원씩을 불전함에 넣었습니다. 안타까운 제 마음을 보고싶은 부모님께 전할 길은 그 길 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저의 부모님이 제 마음을 받으셨겠지요? 음력으로 유월 초하루가 아버지 제사, 유월 스무닷새가 어머니 제사거든요. 큰스님께 여쭈어 봅니다.

답 아침 쇳송에 부모님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나라의 은혜, 만물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은혜 갚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길러 주시면서 온갖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낳아서 기르느라고 잡수시고 싶은 것 안 잡수시고, 배우고 싶은 것 못 배우시고 때로는 허덕하던 갖은 고생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느라고 부모님은 이 마음도리를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신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으로 눈물겨운 일입니다. 살아 생전에 나를 기르시느라 어느 때는 다투기도 하셨을 것이고 욕심 아닌 욕심도 부리셨을 것이고 마음에 없는 일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런 일들로 인해 많은 빚을 지셨으니 그것을 갚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은 본래 가설이 돼 있다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그게. 그것을 넓게 지혜롭게 모르는 사람은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거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라도 그것을 알아야 전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는 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가르쳐주시기를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길러 주시면서 온갖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낳아서 기르느라고 잡수시고 싶은 것 안 잡수시고, 배우고 싶은 것 못 배우시고 때로는 허덕하던 갖은 고생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느라고 부모님은 이 마음도리를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신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으로 눈물겨운 일입니다. 살아 생전에 나를 기르시느라 어느 때는 다투기도 하셨을 것이고 욕심 아닌 욕심도 부리셨을 것이고 마음에 없는 일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런 일들로 인해 많은 빚을 지셨으니 그것을 갚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은 본래 가설이 돼 있다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그게. 그것을 넓게 지혜롭게 모르는 사람은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거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라도 그것을 알아야 전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는 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가르쳐주시기를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길러 주시면서 온갖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낳아서 기르느라고 잡수시고 싶은 것 안 잡수시고, 배우고 싶은 것 못 배우시고 때로는 허덕하던 갖은 고생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느라고 부모님은 이 마음도리를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신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으로 눈물겨운 일입니다. 살아 생전에 나를 기르시느라 어느 때는 다투기도 하셨을 것이고 욕심 아닌 욕심도 부리셨을 것이고 마음에 없는 일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런 일들로 인해 많은 빚을 지셨으니 그것을 갚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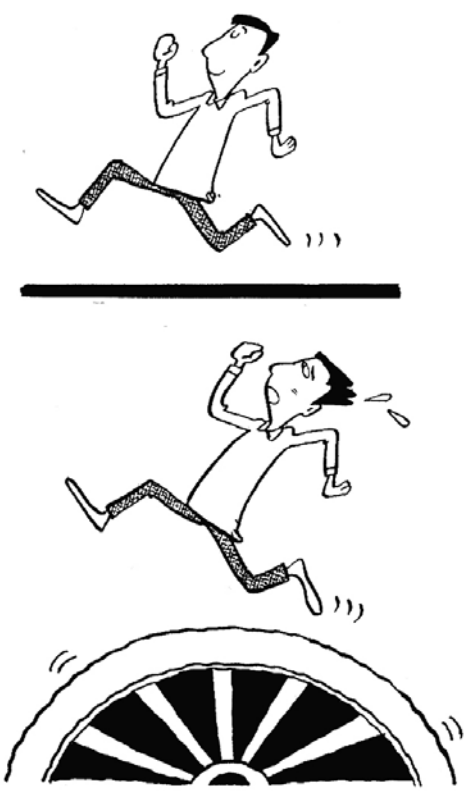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은 본래 가설이 돼 있다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그게. 그것을 넓게 지혜롭게 모르는 사람은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거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라도 그것을 알아야 전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는 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가르쳐주시기를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길러 주시면서 온갖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낳아서 기르느라고 잡수시고 싶은 것 안 잡수시고, 배우고 싶은 것 못 배우시고 때로는 허덕하던 갖은 고생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느라고 부모님은 이 마음도리를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신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으로 눈물겨운 일입니다. 살아 생전에 나를 기르시느라 어느 때는 다투기도 하셨을 것이고 욕심 아닌 욕심도 부리셨을 것이고 마음에 없는 일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런 일들로 인해 많은 빚을 지셨으니 그것을 갚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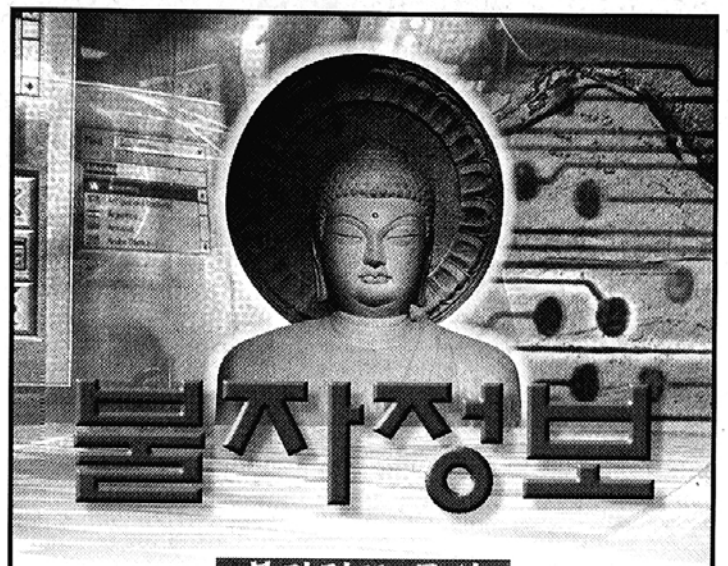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은 본래 가설이 돼 있다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그게. 그것을 넓게 지혜롭게 모르는 사람은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거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라도 그것을 알아야 전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는 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가르쳐주시기를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길러 주시면서 온갖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낳아서 기르느라고 잡수시고 싶은 것 안 잡수시고, 배우고 싶은 것 못 배우시고 때로는 허덕하던 갖은 고생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느라고 부모님은 이 마음도리를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신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으로 눈물겨운 일입니다. 살아 생전에 나를 기르시느라 어느 때는 다투기도 하셨을 것이고 욕심 아닌 욕심도 부리셨을 것이고 마음에 없는 일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런 일들로 인해 많은 빚을 지셨으니 그것을 갚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용광로…무엇이든 녹여서 재생 자기 근본뿌리 믿지 못하니 남에게 의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은 본래 가설이 돼 있다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그게. 그것을 넓게 지혜롭게 모르는 사람은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거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라도 그것을 알아야 전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는 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가르쳐주시기를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길러 주시면서 온갖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낳아서 기르느라고 잡수시고 싶은 것 안 잡수시고, 배우고 싶은 것 못 배우시고 때로는 허덕하던 갖은 고생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느라고 부모님은 이 마음도리를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신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으로 눈물겨운 일입니다. 살아 생전에 나를 기르시느라 어느 때는 다투기도 하셨을 것이고 욕심 아닌 욕심도 부리셨을 것이고 마음에 없는 일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런 일들로 인해 많은 빚을 지셨으니 그것을 갚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우리 몸에 氣를 충전시켜 주십시요!!!
"신비의 공간을 직접체험해 보십시오."
· 氣功훈련 · 명상수련
· 학습능력향상 · 질병치유촉진
"10分내에 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氣를 체크해 드립니다.
KBS-TV지료 氣제품 카다로그 무료수송
고혈압, 당뇨, 간, 비만, 변비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
미국 일본에서 최근 유행하는 면역요법 성인병 상담해 드립니다.
※ 책자 무료 우송 ※
韓國 氣健康 硏究院 02)455-6944/453-5851 FAX02)454-0646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갑상선 · 간질 당뇨완치
한국불교태고종 **세운정사**
주지 한진성
전북 남원시 하정동 226
전화 0671)626-4984
팩스 0671)626-4980

전통불교 의식 연구원
02) 511-0108

강좌

수맥파 (나쁜기운) 차단
1. 수맥찾기 강좌(신비의 추 L-로드)
2. 건강과 행운의 목걸이
종일 온몸이 나른 하신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등
3. 수맥 차단제 판매
4. 활동 공간의 기 균형
02)734-2118/011)239-6817
대붕 氣 살림

최면-견성지도 수련테프 판매!!
1.생물 = 생명(?+기록물)+물질(육체)
(1).?;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 무게부피無
(2).기록물(업);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무게부피無
(3).물질(육체);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 生滅, 有形, 무게부피有
2.견성; 볼래야 볼 수 없는 ?을 ?이 본다.
3.?을 보면 법과 운명으로부터 자유
4.팝고해탈/만성난치병/금연 금주/ 악습비만체질교정/학습력강화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017)609-9068

구인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412) 752-7938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2) 877-7514

부전스님 구합니다.
◆ 60~70대(남) 부전스님 1분
◆사찰서 공부하며 상좌로 계실 20대 비구니스님 1분
0458) 333-9777

사람을 찾습니다

◆ 성명: 윤정숙(윤정림) ◆
주민번호:500215-2042419
강남구 도곡동 934-10 역삼우성아파트 2동 705호
42세가량으로 보이며 키는 163cm, 체중 60kg,충청도 말씨,얼굴 갸름한편
현재 공양주로 있을 것으로 예상
윤정숙씨 아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사례금: 3백만원)
011)217-7468
(주 02-521-6587/ 야 02-3463-5770)

사람을 찾습니다
연락처 : 051)751-6556, 642-5738
051)632-3409,012)518-3438

◆성명: 경순이
◆1942.3.18일생(59세)
◆빈손으로 만나 4남매를 키운다고 너무나 고생했소. 모든 문제는 무조건 해결 하겠소. 부디 속히 연락주시오.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후사금 5백만원

직원모집 공고
사무직(여)
◆불교인으로 재적사찰주지 추천 가능자
◆25세이상 35세미만 여성(독신40세미만)
◆PC가능자로 고졸이상
◆급여 : 본회기준에 의함
◆전화문의 사절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우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 779-2
한국근본불교 회관 총무부
※ 담당자 총무부장 ※

귀 알림 귀
철학관 수강생 모집
과목: 육효점, 평생사주, 일년신수, 궁합 기타
▶적중 100% - 전과목 3주완성
02)962-9871
자비원 석산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기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항상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당뇨병, 고혈압, 체질개선
정력증강, 손발냉증, 변비, 요통등...
■가격: 분말 230g 39,000원
환 250g 45,000원
동양물산(주)
02)832-0742 / 011)381-8157

간 병 신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로, 유료 간병 서비스는
물론 무의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간병 자원봉사
전화 02)363-7884
팩스 02)364-7884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 기운보강 · 스트레스해소 · 노화방지
· 면역성강화 · 질병예방 · 순환기장애에…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녹옥
난치병 치료에 신비!
쥬천 玉山家 (02)777-0105



귀 달마스님
◆사주: 대운 · 행운 · 신수
◆작명: 출세 문자 비법
◆관상: 빈부 귀천 학당
◆풍수: 자손 창성 번영
◆부적: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15:00
02)999-5551
02)999-4804
051)418-4804 **달마사**

달·마·보·급·처
02)545-2011

수맥차단
차량운행
이사,삼재
3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불사용달마도 보급중>

사찰안내

포교당 안내
◆서울포교당 30평
◇가액 : 전세 5천만원
◇시설비 없음
◇아파트 대단지앞(급매)
◇강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근교**
◆부지 : 약 1,000평(대지 약740평, 임야250평)
◆법당 : 40평/요사 : 40평,
◆특징: 주차장 및 조경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대작불사에 적합한 포교 및 기도도량입니다.
◆위치 : **경남 진주(암자)**
◆법당 10평 / 요사 20평 / 산신각 5평
◆가액 : 3,000만원
해동불사 이처사 합장
02)389-7880/ 019)390-6110

사 찰 안 내
◆위치 : **강원도 영월군** ◆대지 : 700평
◆법당 : 40평(후불,칠성,신중탱화)/ 주지실
◆요사 : 방7칸 / 산신각
◆가액 : 1억 5천만원
※전국에 소재한 사찰, 포교원, 사찰부지 급히 구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성실히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찰을 양도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즉시 좋은인연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多寶佛事 02)3545-056 019)234-5506

사찰 안내
◆위치 : **대전 논산 국도 중간지점**
◆산속에 위치하여 기도도량으로 적합
◆법당 : 35평(목조건물 외 5표 내 7표)
◆삼성각 : 5평(목조건물)
◆요사채 : 35평(현대식 건물)
◆대지 : 602평
◆가액 : 답사후 가격절충
0461)733-3048/011)458-3048

사 찰 안 내
◇위치: 서울
◇법당: 20평(목)
◇요사: 70평
◇부지: 800평
◇가액: 5억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급) 안내
◆위치 : 진주시
◆부지 142평,대지(등기필) 법당 · 요사채 37평
◆가격 : 1억 1천만원 (답사후 가격절충)
◆특징 : 진주시내 10분거리 소재, 교통편리, 준공4년, 고급전원주택 (임법당), 시설일체 무상기증
◆현재 비어져 있음
0599)933-7988/011)488-3339

사찰 안내
◆위치 : **이문동 대로변2층 40평**
◆방4, 입법당
◆가격: 보증금 500만원-55만원 (이런 싼곳은 없습)
◆무속인, 철학 기타
자비원 02)962-9871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경남
◆가격 : 전세 2천5백만원 매매 3800만원
0591)758-4895

사찰 안내
◆위치 : **경기 파주**
◆대지 273평,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방6, 주방3, 욕실3, 화장실3, 주차장 완비
◆특징: 산세좋고 물좋고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운영하실스님께 양도)
◆가격: 4억 2천(답사후 결정)
0348)952-7905

사찰(급) 안내
◆위치 : **경남 남해 봉화리**
◆부지 7필지, 대지 및 임야 준농림 약 4만 5천평, 주택 2동, 현재 유실수 농장임.
◆특징: 경관수려, 약수有, 사찰 수련원 및 실버타운, 납골당 · 절터 최적지임.
◆가격: 11억 2천만원
011)551-3535
0591)758-7370

연수원 및 사찰부지(급)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특징 : 홍천강 유원지 및 대명리조트 10분거리
서울에서 40분거리, 숲속의 분지
약2500평(토목공사완료)
◆가액 : 2억5천만원
한라공인 중개사 0343)386-6444 016)212-0988

포교당 안내
◆위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평수: 35평(포교 최적지)
◆가액: 5천만원(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 ※
02)307-2616
011)416-2782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무한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
◆평수 : 약 2500평
◆특징 : 고성읍서 10분거리, 약사전 법당안에 석간수가 흐르며 약수물 유명, 경관수려, 불사에 필요조건 구비, 주차장 완비
◆가액 : 4억 (절충가능)
0556)674-7598/0556)674-0392

사찰 안내
◆ 군산월명공원내
◆ 법당 20평
◆ 요사채 38평
◆ 최저가 가격절충
◆ 급한사정으로 전세가함
062)224-2851
011)633-2851

사찰 안내
◆ 위치: **장호원(경기 이천)**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약 43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만원 (스님인수시 대지값으로 대폭 절충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

사찰 안내
◆위치 : **경기 파주**
◆대지 273평,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방6, 주방3, 욕실3, 화장실3, 주차장 완비
◆특징: 산세좋고 물좋고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운영하실스님께 양도)
◆가격: 4억 2천(답사후 결정)
0348)952-7905

사찰부지 안내
곤지암 근처 사찰명당
◆위치 : 경기 광주 태화산 입구
◆부지 1500평(토목공사완료)
◆서울에서 40분거리, 교통편리, 태화산 입구, 산세가 좋고 계곡물이 좋은 수양도량
032)466-4867/011)9775-4867

사찰(급) 안내
◆위치 : 서울 노원구
◆대지 65평, 임법당, 건평 100평 (위층 법당, 아래층 요사채)
◆가격: 3억 5천만원
◆특징: 주차시설 완비, 전철역에서 2분거리, 주위에 아파트 5천세대
10월 입주-포교당으로 손색이 없음.
02)3391-4845/02)3391-4848
011)752-4842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마산
◆법당 약20평, 요사채 3동, 수세식 화장실, 시설 일체 기증
◆가액 : 9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011)859-2252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산청
◆부지 : 2113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2동)
◆매매희망기간 : 백중전후
◆가액 : 1억 8천만원
※집은 소박한 한옥이나 산세가 편안하며, 넓고 조용한 수양도량으로 식수가 아주 좋음. 도량까지 차량진입가, 주차장 있음.
053)651-9363/0596)973-0305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시내에서 2분거리)
◆대지 : 100평
◆건평 : 110형(거용도실1,2층 약20·30평 별도)
1층 30평 (법당3칸 거실큼) 1동
2층 30평 (법당3칸 거실큼)
1층 25평 (방2칸 (실평주)
2층 25평 (방2칸 (실평수) 2동
등으로 사용가능
◆ 전망좋음, 전원주택처럼 튼튼하게 이주 잘지었음.
◆가액: 전세 5500만+은행융자 8천=3억5천
◆받을금액: 2억1500만(가격절충)
0348)959-1997/011)399-7981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서산군 마서면 장선리 지장암
◆법당 : 10평, 방4칸, 요사2동 태양열 온수기 설치, 욕실
◆가액 : 6천만원
◆서천 시내에서 차로 5분거리
0459) 953-7938
011) 671-7229

사찰 안내
◆위치 : 충주시(충주댐 강변도로변)
◆평수 : 현 사찰150평 부지외 수천평 분할가
◆내용 : 석굴암 및 법당, 요사채, 칠성각 오층탑, 관세음보살상 아미타불상 산신각 칠성당
제2석굴암지와 미륵보살 성지 300평완성, 도로포장완성, 재력투자 한분에게 사찰 양도가능, 주차장 450평 허가 방생최적지

사찰 및 실버타운 부지
◆위치 : 밀양시
◆면적 : 1.준농림 1만8천평
2.대지 1천평 상대농지 8천평
◆특기 : 4차선 도로확장 및 시외버스 정류소 개설, 전원 주택지 적합
0527)351-1008
011)596-5028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 7층 석탑에 관해 관심 있는 분 문의(스님에 한함)

사찰 안내
◆위치 : **이문동 대로변2층 40평**
◆방4, 입법당
◆가격: 보증금 500만원-55만원 (이런 싼곳은 없습)
◆무속인, 철학 기타
자비원 02)962-9871

사찰 안내
◆ 위치 : 포천군 소재
◆ 부지 600평, 법당 25평, 요사채 90평
◆산세 좋음.
◆가액 : 답사후 절충
한국불사 02)561-7791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근교
◆부지 500평, 법당 12평, 요사채 30평
◆가액 : 답사후 절충
02)561-7791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동면 밀양시내에서 5분거리
◆부지 : 총 236평
◆법당 : 17평(스레이트), 요사 22평
◆가액 : 1억(절충가)
0527)355-2478

사찰 안내
◆위치 : 마산시 합포구
◆법당 : 약 20평 주지실, 요사2동, 후원, 수세식 화장실1동, 주방有
◆가액 : 9천만원
011)859-2252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진역 부로 대로변
◆평수 : 3층 건물 22평 시장상가 밀집지역
◆가액 : 보증금 3백(월 25만원) 시설비 있음
011)563-4454

사찰(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 대 지 : 85평
◆ 건 물 : 법당17평, 주지실, 상담실, 거실, 방3개, 주방, 욕실(건평45평)
◆ 가 격 : 일억 팔천만원 (매매가)
◆ 특 징 : ●건축한지 3년 됐으며 사찰로 등기 되어 있어 어떠한 종교 행사도 할 수 있음. ● 건물 전면에는 주택 단지, 뒷면에는 야산에 산책로 조성되어 있음 (2K) ●전철역에서 택시 기본 요금거리 위치 (지하철4호선)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탱화 모셔져 있으며 법당 조성되어 있음. ● 단독주택이나 구조는 사찰용도로 건축하였음(현재 운영중) ●웅자(오천만원) 할 수 있음
0345)419-3224 / 011)417-1008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수도권 물 이용부담금 늘어

생활 9월부터 팔당상수원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민들은 수도요금외에 25.5~41.2%의 물이용부담금을 더 내야한다.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80원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안산 수원 성남 안성 등 22개 시·군에 대해 9일 사용분부터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4인가족 수도료는 지금의 6,280원에서 7,880원으로 25.5% 오른다.

지하철에 팔각형의자 설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0월19일까지 35개 지하철 역 대합실에 나무 재질의 팔각형 의자를 설치해 승객들의 휴게장소 및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자가 설치될 지하철역은 5호선 올림픽공원·청구·영등포시장·신정역, 8호선 암사·강동구청·몽촌토성역 등이다.

유아 교육비도 소득공제

세금 유아들의 미술-음악학원 비용 등 유아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유아미술학원과 음악 등 기타학원 교육비도 특별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76만여명의 유아 학부모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잘못된 민원처리 보상

민원 대검찰청은 12일 민원사항의 친절 신속 공정 처리와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과 보상 등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검찰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공표했다. 헌장에 따르면 검찰청 직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이상 같은 일로 검찰청을 방문한 경우 5,000원 가량의 교통비를 민원인에게 보상해 주고, 방문시간과 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예정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돼 있다.

암예방 치료지원 특별법

건강 2001년부터 모든 국민에 대해 암의 조기진단이 의무화되며, 국가기관은 암 환자를 등록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여야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 예방 및 치료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최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정부로부터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고, 암 관리 및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와 보호자도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초콜릿으로 암·심장병 예방

네덜란드 국립환경보건원 연구팀은 최근 초콜릿이 암과 심장병을 예방해 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6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초콜릿에는 암 예방 물질인 카네킨이 차보다 4배나 많이 들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물난리 연중 방재활동 절실

국가차원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해야
유수지 확충-하수구 정비등 서둘러야

파주,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은 최근 4년동안 세 차례나 물난리를 겪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를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수재민들은 정부의 '무방비'라는 또 다른 재앙 앞에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무능력과 무책임, 뒷북치는 사후약방문격의 행정보다는 예방능력을 높이는 수방정책의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치수·방재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해발생후 응급복구체계 미비를 탓하기보다 재난에 대비한 예방조치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좋은 본보기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연방재해관리국'이 재해대책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해 다발지역에 재해방지 시설을 집중 건설하는 등의 사전예방기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은 95년 한신 대지진을 교훈 삼아 총리 직속으로 '재해정보반'을 신설하고 24시간 재해발생을 감시하는 '정보집약센터'를 총리관저에 설치해 만일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국가차원의 재난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명필교수(인하대 토목공학과)는 "상시적이고 종합관리형 기구를 설치해 방재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치수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송재우교수(홍익대·국립방재연구소장)는 "직할급 하천이 모여 국가급 하천으로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유역 전체를 한 기관이 관리해야 하며, 황해도 유역 등에 2~3개의 댐을 짓고 북한과 공동관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호우시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바다쪽으로 흘려보내는 유수지의 확충과, 이번 수해가 하수구 정비 미비로 인한 역류현상이 피해의 최대원인으로 지적됐듯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같은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관련예산 증가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수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총 1조 5,828억원이었고, 이와 관련한 예산이 고작 104억에 불과했던 점은 감안하면 자연재해' 피해규모의 30~40%만을 예방시설에 써도 투자액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 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일 비를 내리시려거든 내리시옵소서."〈숫타니파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다니야와 같은 철저한 준비자세다. 이젠 재해집계나 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天災아닌 人災다" 수재로 큰 피해를 입은 파주시 문산을 주민들이 지난 4일 시가지에서 행정당국의 허술한 방재행정을 비판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종교활동하면 오래산다"

美서 논문…스트레스 면역체계 강해

매주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8%정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외국 연구논문이 나왔다. 지난달 미국의 '노인학저널'에 논문을 기고한 해럴드 쾨니히박사는 "종교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은 사망률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6%나 낮았다"고 밝혔다.

64세 이상의 미국 성인 4천명을 표본추출해 조사한 이 논문은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논문은 또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성인 5천2백명에 대한 28년 동안의 장기 연구에서도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기사망률이 23%나 낮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쾨니히박사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억압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현저히 적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여해 갖게 된 강한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특히 노년의 건강문제에 잘 대처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세계 첫 안락사 법제화

법안의회 통과 확실시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10일 치유 가망이 없는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표, 의회에 제출했다. 세계 최초로 국가가 제정하는 '죽음의 권리장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의회 통과가 확실해 세계적 논란이 예상된다.

네덜란드는 지난 25년간 안락사를 죽을 권리로 보는 운동을 벌여왔고 98년 여론조사에서는 인구의 98%가 이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연간 사망자의 3%에 해당하는 인구가 안락사로 숨진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안락사가 많은 상황에서 신고없이 안락사를 시행하는 사례만 늘려 법의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왔다.

안락사 절차는 환자나 부모의 동의에 따라 담당의사 외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하고 이를 검시관 및 지역 심사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12세 미만은 부모와 담당의사 모두의 동의가,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론

진정한 光復



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장〉

세상에서는 새천년을 앞두고 상품이 쏟아지고 새천년을 주제로 하는 행사가 기획되고 화려한 미사여구의 글들이 써지고 한마디로 야단이다. 하지만 인간과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데 연대표기가 바뀐다고 세상이 저절로 달라지겠는가.

우리겨레는 지난 천년을 고난 속에서 보냈다. 특히 지난 세기는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로 시작했고 민족간 대결과 분단으로 마감하고 있다. 겨레의 고난이 세기를 넘어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 천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우리는 20세기의 마지막 광복절을 보냈다. 그러나 일제로부터 독립된지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구석에는 그 암울했던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다. 새시대는 이런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세기는 우리겨레가 외침과 식민지의 고통속에 시달려 왔으며 자아를 완전히 부정 말살 당했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민족문화는 소멸되고 저급한 일본문화를 포함한 낯설고 조잡스러운 외래문화가 우리생활속에 들어와 자리잡았다. 사상 정신적으로도 노예의식이 자리잡아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기풍은 사라지고 의존적이고 사대굴종적인 의식이 완전히 정착되었다. 개인의 삶도 결국은 자기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듯이 집단의 삶도 결국은 그 자신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겨레의 진로는 우리가 개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 의식속에 찌들어 있는 식민의식과 그 문화와 구조를 청산, 척결하는 것이 새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는 우리겨레의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새천년 맞으려면 의식속에 찌든 식민문화 청산"

다음 우리는 민족간 분단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빠른 시간안에 해소해야 한다. 민족분단은 식민지배의 유산이다. 식민지배가 없었다면 민족이 분열하여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길 이유가 없다. 우리 겨레가 아직도 분열하여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외세의 민족분열정책에 우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말이고 그 공작에 놀아난다는 말이다. 외세가 분열을 획책하고 우리를 싸우게 만들어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를 극복해야만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를 분열시켰던 강대국들은 그들의 문화를 팔아 자신들의 배를 살찌우고 있다. 우리가 민족사이의 살생극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탈진해서 영원히 남의 종살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민족간 대결을 그치는 바탕은 어디에서 만들어야 할까.

민족분단의 근원은 식민지배이고 지속의 원인은 강대국에 대한 우리자신의 예속 때문이다. 민족의식과 자주의식을 소멸시켰던 식민지배의 논리와 그 범죄성을 척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족은 비로소 자신의 자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민족윤리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민족윤리와 민족정서가 우리겨레의 가슴을 적셔야 비로소 우리는 민족간 살생극을 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의 종살이를 한 못난 겨레가 겪는 혹독한 고난을 우리는 너무 오래 겪고 있다.

민족의 자긍심과 희망에 대해 노래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긍심은 자화자찬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약처럼 민족의 의식을 마비시켜 발전을 위한 기본동기조차 없애 버리게 될 것이다. 자화자찬은 정신의 어리고 발전에 대한 의욕이 없는 민족이 자기 마취제로서 구하는 것이다. 자신이 서 있는 바탕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잘못을 고치는데 힘을 쏟는 사람, 자신을 비판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겸손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 높은 정신력의 소유자이다. 세계화니 뭐니 하면서 자신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세상유행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은 장마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과 똑같다. 정신을 차리고 나를 바로 살피자.

레이키 - 그날부터 氣능력자가 되는 법 전수

레이키 세상의 여늬 기공법과는 달리 누구나 그날부터 氣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레이키(Reiki)법입니다. 이미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중남미 여러나라, 인도를 포함하는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의 수백만명에 대한 전수 실적이 증명하고 있어서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날부터 氣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만 한가지 제약조건은 있습니다. 확실한 자격과 높은 능력을 가진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입니다. 확실한 자격과 높은 능력을 가진 레이키 마스터여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능력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전수 방법을 전통적으로는 영수(靈授)라고 했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어튠먼트(Attunement)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어튠먼트를 하는 능력에 레이키 마스터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높고 확실한 능력을 가진 좋은 마스터에게 전수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운이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박희준)는 레이키 마스터로서 높고 폭넓은 능력을 갖기 위해 2년에 걸쳐서 도합 10여 차례나 일본을 내왕하면서 다양한 레이키 유파(현대화된 여러 갈래의 우스이식 레이키와 카루나식 레이키)의 레이키를 전수받았고 다른 나라로 전수되지 않은 극비의 전통적 레이키(眞傳靈氣라고 합니다)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리어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이 한국으로 레이키를 배우러 올 수 있게 하는 태세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레이키(氣)는 일본에서 태어나 (우스이 미카오씨가 창시) 서양에서 발전해 일본으로 역수입된 경위를 가지고 있는 세계인류의 「氣문화 자산」입니다.

레이키는 진정한 의미의 「우주생명 에너지」이며 「사랑의 힐링도구」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사는 재미를 모르고 살던 많은 사람들을 활력과 행복감과 환희심이 넘치는 생활로 되돌려 주는 힐링(요법)의 도구입니다

정통적 의료와 힘을 합해 많은 난치병 환자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는 협진의 도구입니다.

1. 레이키법의 전수 절차

우리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에서는 레이키 능력 전수단계를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전문 임상 응용단계」, 「제4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능력을 전수하고 있으며, 별도로 「카루나 레이키」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 2일
(1) 1시간의 레이키 주입 (2) 2회의 어튠먼트
(3) 발령법 학습 (4) 12포인트 자타치료법
(5) 오라크리닝법 (6) 차크라조정법
(7) 레이키호흡법 (8) 동식물치료법 · 에너지주입법

※제2단계 + 제3단계 : 2일
(1)2단계의 어튠먼트 3회, 3단계의 어튠먼트 3회와 각단계에 따르는 상징들 전수 (2)물질, 에너지 상품, 음식물, 환경 등에 대한 에너지 주입, 정화법. (3)원격 치료법, 본격적 레이키 시술법 (4)생활 각방면에서의 레이키활용법 (5)기감개발법, 합장행기법, 光명상법 (6)셀프어튠먼트법, 참나개발법, 단축레이키요법 등

※전문임상 응용단계 : 수일
(1)3개월에 걸쳐서 실시되는 4회이상의 어튠먼트
(2)우스이식 전통적 레이키요법, 완전한 레이키 요법.
(3)250가지 이상의 질병에 대한 시간 단축 치료법 발휘 실습
(4)염달치료법, 우스이식 전통적 음양 반응점 요법
(5)전문적 레이키요법가가 되는데 필요한 새로운 임상 자료나 레이키관련 정보의 추가공급
(6)사이킥서저리(시미령수술)법

※카루나 레이키 : 1일
카루나레이키는 미국의 레이키마스터인 윌리암랜드씨가 1995년부터 개발해 보급하기 시작한 새로운 레이키법이며 사람의 심신을 치료하는데 8가지 종류의 치료용 氣를 우스이식 레이키 요법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2. 지도자 : 박희준 (우스이레이키마스터 · 카루나 레이키마스터) 번역저술가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Reiki.co.kr ♣♣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구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전화 (02)720-5682, 725-2311, 핸드폰 019)392-2557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반드시 미리 전화하고 오셔야 하며 공휴일에도 개별 지도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숯이 책임집니다!
전국에 숯의 돌풍을 몰고온 화제의 베스트 셀러, 드디어 3판 돌입!
집안에 놓아두기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숯 100배 활용법
2100년 전 무덤에 묻혔던 여성의 시체가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게 만들었던 숯의 비밀,
우리 조상들이 장을 담글 때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면 금줄에 숯을 사용했던 비밀을 여기에 밝힌다

숯은 수많은 구멍과 탄소성분을 갖고 있으며
음이온 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원적외선을 방사하며
수많은 미네랄을 갖고 있어 미네랄의 보물창고라고도 불린다.
방부효과 · 여과효과 · 음이온 발생 · 전자파 차단효과 · 원적외선 효과 등등



한국목탄 연구소 소장 강 재 윤 지음 값 9,000원

숯 이 사람을 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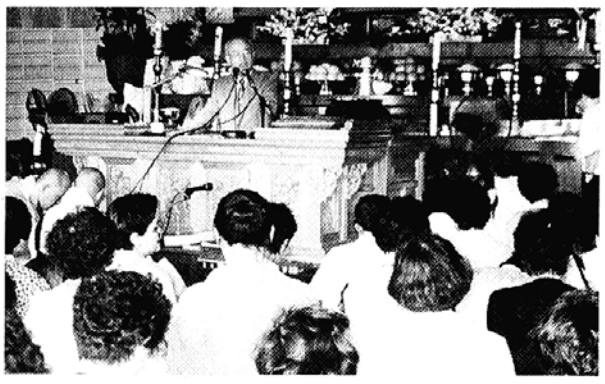
▶ 숯의 일반적 효능
⊙수돗물도 미네랄 워터로 만든다. ⊙숯을 밥 속에 넣어 맛있는 밥을 짓는다. ⊙쌀통에 넣어 쌀벌레 발생을 방지한다. ⊙과일, 야채의 농약성분 제거에 숯을 넣는다. ⊙뒤김을 바삭바삭, 기름을 오래 쓰게 한다. ⊙냉장고에도 숯을 넣어 보관케 한다. ⊙공포의 전자파를 차단한다. ⊙독가스를 먹어치운다. ⊙유독한 실내공간을 숲속 같이 만든다. ⊙벙실에 비치하면 생명에너지를 공급한다. ⊙목욕탕에 넣으면 알칼리 온천이 된다.…등등

▶숯의 치료적 효능
⊙잠을 자면서 건강해진다. ⊙위궤양, 식중독, 설사 장염, 맹장염, 변비, 고열, 간염, 황달, 담석증, 담낭염 등 ⊙숙변제거와 다이어트 효과 ⊙뱀, 벌, 개, 모기, 불개미에 쏘였을 때 ⊙불이나 물에 데었을 때, 습진, 피부염, 골수염, 각종 염증 ⊙중이염 ⊙눈의 염증 ⊙기관지염, 폐렴, ⊙신장염, 신부전증 ⊙발모증에도 특효 ⊙기미 주근깨도 없애준다. ⊙하천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 ⊙해수, 담수, 양식장에도 숯이 필수… 등등

지성문화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 2동 1423 (대지 빌딩 205)
☎02-2233-5554 02-2233-8090 FAX. 02-2238-4240

참선으로 긴장 풀고 집중력 강화

◇11일 봉은사 대웅전에서 김종서박사가 '미래사회의 청소년 지도'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수능 앞으로 90일…자녀학습 · 건강지도법

2000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17일 시험당일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선 수험생 본인의 노력뿐 아니라 뒷바라지 하는 부모의 역할또한 중요하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는 수험생들이 쉽게 지치고, 정신도 해이해지며, 시험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기 마련이다. 이럴때 수험생들의 건강관리와 학습 진로지도를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11일~13일 대학입시 백일관음기도의 일환으로 봉은사에서는 수험생을 둔 불자가정의 부모를 위한 특강을 열어 주목을 끌었다. 자녀의 합격을 무작정 기도하는 기복 차원에서 벗어나 자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특강이다.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서박사는 11일 '미래사회의 청소년 지도'주제 특강에서 "대학합격이라는 단시안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자녀의 평생학습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부모역시 자신의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박사는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는 새로운 세기에 대비한 교육목표를 정하고, 부모세대와는 다른 사회에서 살아갈 자녀들의 미래를 낙관하며 진로지도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조언했다.

선체조로 목 · 허리 근육 이완 오미자차 뇌혈액순환에 좋아

둘째날인 12일 선재한의원 김경현원장은 '수험생의 건강관리'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성적향상, 부모의 기대 등 입시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김원장은 "부모들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도 수험생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참선과 관법, 염불, 명상 등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불교수행법을 선택해 부모가 자녀를 이끌어주고, 손쉬운 선체조로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경직된 목과 어깨, 허리의 근육을 푸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특히 뇌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오미자차를 늘 끓여먹는 것도 건강관리 비결이라고 권했다.

13일 서강대 물리학과 박광서교수는 '불교와 자녀교육' 강연에서 "자녀를 부모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 안된다. 자신의 능력과 원하는 바를 스스로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세기에는 다양한 가치의 대두로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에따른 다양한 직업이 상존하게 될것이라면서, 법대, 의대가 최고라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라고 조언했다. 특히 "학과선택을 앞두고 부모들의 강요에 의해 40%정도의 수험생이 자신의 적성을 무시한 선택으로 갈등을 겪는다는 사회통계자료 참고하라"면서 "지식보다는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교육, 정말 좋아하고, 잘 할수 있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찾도록 부모가 이끌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부처님이 자신의 제자에게 가르쳤듯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라는 박교수는 "자녀의 현실적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신을 갖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여유롭게 자녀들의 능력개발에 힘쓰는 것이 가장 불교적인 자녀교육"이라고 말했다.

한편 봉은사는 수능시험을 마친 11월 19일 대웅전에서 '학교와 학과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강도 열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⑬



안 광 석 〈전각가〉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탈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상대사의 법성게에는 초발심에서부터 수행과 그 회향까지 모두 들어있지요. 그대로 행하면서 살면 됩니다."

80이 넘은 고령에도 여전히 하루에 몇시간씩 전각작업을 할 정도로 기력을 자랑하는 전각가 안광석 옹(82)은 건강이란 먹는 것을 가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옛날 가르침 가운데 불시불식(不時不食)이라 해서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는 말이 있다. 안 옹은 이를 꼭 지키며 산다. 특별한 생활습관이나 가리는 음식은 없지만 제철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해지는 쉽고도 간단한 비결이라는 것. 또 너무 맵지도 짜지도 않게 자기 입맛에 맞게 먹는 것이

때 아니면 먹지않고 제철음식 즐겨 금강삼매경론 '멸생섭리' 생활지침

좋다고 한다.

원효대사의 〈금강삼매경론〉은 안 옹이 생활지침으로 여기는 경전이다. 〈금강삼매경론〉 속에서도 멸생섭리(滅生攝離)의 넉자를 평생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악을 멸하고, 선을 나게 하며, 사랑하는 이에게 죽자사자 매달리지 말고, 이별을 슬퍼하지 않으며 산다면 평생을 탈없이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항상 이 네글자를 소중히 여기며 생활한다.

부처님 말씀에 일체유심조가 있듯 부처님 제자는 마음경전 실천의 수양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안 옹의 신조이다. 아무리 좋은 글을 봐도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행하신 수행의 길을 따르며 실천한다면 건강은 문제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의 생명이란 것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상스님은 '내가 믿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과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세속에서 할 일이 더 있으면 일하라고 남아있게 할테니 부르는 그 날까지 열심히 수행정진한다'는 말씀을 남겼는데 저 역시 남은 평생 전각작업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파라미타 청소년 회원들은 오대산 수련장에서 심신을 단련시켰다.

"부처님 품안서 하나됐어요"

오대산 파라미타 캠프 천백명 참가

제4회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연합캠프가 6일~9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청소년 수련장에서 펼쳐졌다. '부처님 품안에서 하나되는 우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캠프에는 파라미타청소년회원 850명, 지도자 250명 등 총 11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박3일간 단주만들기, 천불천탑쌓기, 직지인쇄체험, 108기도, 적멸보궁참배, 월정사 도보순례 등 다양하고 알찬 신행체험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한편 전국에서 참가한 회원들과 돈독한 우애를 다졌다.

최경수 명예기자



◇무더운 날씨에도 인천 전지역을 순회하는 청소년 불자들.

내고장 사적 돌며 봉사도

인천청교련 9박10일 트래킹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는 7일~16일 9박10일간 '내가 살아갈 인천의 발자취를 찾아서' 인천 전지역을 대상으로 트래킹을 실시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이번 트래킹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42명이 참석, 하루 20km 이상을 걷는 힘든 행군을 펼쳤다.

도요지 청라도 탐방, 보각선원, 청학사 등 인천지역 불교문화재 탐방, 인천일보 견학, 답력기르기, 인천상륙기념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14일~16일에는 장봉도 어촌봉사활동으로 트래킹을 회향했다.

BBS '룸비니 동산' 방송대상 우수작품상

내달 세종문화회관서 시상

불교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룸비니 동산'(담당 PD 한지윤)이 제26회 한국방송대상 어린이 · 청소년 라디오 부문 우수 작품상으로 선정됐다.

매주 일요일 저녁 7시10분부터 50분간 방송되는 이 프로는 심사과정에서 자용스님(평창 극락사주지)의 감칠맛 나는 진행 이외에도 '탁터놓고 얘기해요' '노래로 여는 부처님 세상' '우리들의 동화 나라'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새싹 불자들의 포교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이 프로를 기획한 한지윤 PD는 "21세기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새싹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미 있고 쉽게 전달하고 싶었다"며 "어린이 · 청소년 포교방송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또 한PD는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고민과 목소리를 직접 담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코너를 더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9월3일 오후 5시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방송소식

'희망의땅' 인도성지 소개 케이블 CTN 23일 방영

케이블TV 다큐채널인 CTN(ch29)은 23일 오후3시부터 60분간 '구원과 희망의 땅 인도'를 방송한다. 이 프로에서는 쿠시나가라, 룸비니, 보드가야 등 부처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성지의 모습이 자세한 리포터의 해설과 함께 소개된다. 특히 인도인들의 투철한 종교관에 바탕을 둔 진솔한 삶의 모습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현스님 '기도 의미' 법문 BBS 22일 일요초대석

불교방송(사장 성낙승) '일요 초대석'(일 오후 5시20분~오후 6시)에서는 22일 포항 자장암주지 상현스님이 출연해 '올바른 기도의 의미'를 주제로 이야기 하는 한편 기도를 할 때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포교 현장의 경험담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단 신

공공근로 위탁사업 시행

청교련 인천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99년 제3단계 민간단체 공공근로 위탁사업 실업구제사업장으로 지정받아 정부로부터 1억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불교청소년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앞으로 인천지역의 실업자 36명을 선정해, 인천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032)583-1318

어린이 섬진강 유역 답사

정토선원(주지 도성)은 21일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 물길따라'를 주제로 제1차 어린이 유적답사를 떠난다. 유적답사는 하동 쌍계사, 화계장터, 섬진강 나룻터 등 지역 문화유적답사를 통해 우리 조상의 지혜와 슬기로움을 배우는 산 교육의 장이 될것이다. (032)528-0108

창원 '여성봉사단' 결성

맑고향기롭게 경남모임은 여성봉사단(단장 이미숙) '선우의 모임'을 결성했다. 선우의 모임 여성봉사단은 매주 토요일 희연 노인병원 봉사와 결식청소년에 자비의 도시락 보내기 등의 활동을 하게된다. (0551)266-0170

27일 정선 두타초암 탐방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는 27일 강원도 정선 두타초암으로 전통사찰음식 및 유기농사 탐방을 떠난다. 두타초암 돈연스님이 전통사찰 된장배우기와 우리먹거리의 우수성에 대해 강연한다. (02)355-5961



보살행으로 피운 연꽃

자비신행회 '우리는…' 펴내

광주지역 불자들의 신행공동체인 '자비신행회'에서 신행소식지 월간 〈우리는 한꽃〉 제1호를 발간했다. 자비신행회는 최근 광주시 동구 장동 55-1에 교육관을 마련하고, 불교의 자비정신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중심역할 결칠 계획이다.

자비신행회는 현재 결식노인 결식아동 자비의 도시락 보내기, 임종간호교육, 임종간호자원봉사 활동, 월 2회 일일수련회, 교사불자회 후원, 티베트 스님 후원, 불교도서관 및 시청각 교실, 불교문화강좌, 소년소녀가장 장학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대원사 현장스님의 '마음 길들이기' 사무량심수행법 강의도 진행된다. (062)222-1165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대구여래한방)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마하 쇼핑몰 선정
여름 기획 상품 특판전

부다피아 티셔츠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나팔

- 재질 순면 100% (20수)
- 색상 흰색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7,000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경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식탁의 강원 · 스님 요식대 · 불자들의 경전읽기 · 자녀들의 학습

- 크기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재질 ASH(느릅나무)원진원목
- 가격 : ₩85,000

옥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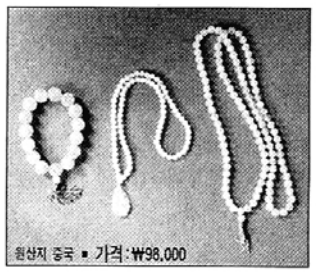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참나무 참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백진이가 다시나며 이름(耳目)이 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잠을 자도 진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팔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휴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한상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명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결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사가 됩으하신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분 코골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 가격 : ₩30,000(1개),₩56,000(2개 한세트)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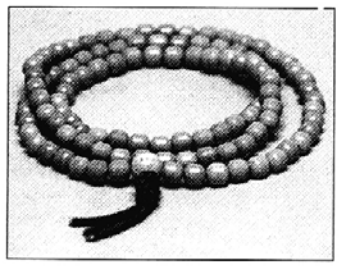
원산지 중국 ■ 가격:₩98,000

•수암옥의 특징

· 세계적 유명옥은 곤산옥(신강성),초산옥(호북,삼양),수암옥(오령성)이 대표적인데 그중 수암옥은 2300여년전 부터 내려와 그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나라 이전부터 그 진가가 알려져 세계 최고의 옥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북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벽옥구패'가가 수암옥으로 판명되고있다.

· 고려사 보우스님편을 참조하면 명나라 황제가 딸 노국공주를 고려 공민왕에게 시집보낼때 제일 귀중한 예물로 수암연옥으로 만든 옥대를 만들어 보내며 공민왕의 장수를 빌었다는 기록이있다.

생광석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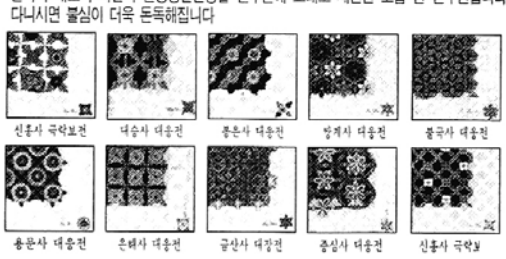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골목이나 같이 깊으시면 골목이나 같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기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 가격:₩35,000

불교전통 창살문양 손수건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기적 ₩5,000

다량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108진주 팔찌

신상품



천연 진주를 이용하여
만든 팔찌 제품 특성상
고품위를 더하기 위하여 양쪽 끝은
칼라색상의 돌로 마무리 하였다. 손목의 크기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하였다.

•108 진주 팔지(세트- 진주 104개 칼라스톤 4개)
가격 : 40,000

•108 진주 팔지 (낱개 - 진주 52개 칼라스톤 2개)
가격 : 22,000

법성게 걸망



법성게는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7언 30구(210자)로 압축 요약하면서도 그 심오한 진리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의상스님이 저술 하였다.
이러한 법성게를 걸망에 디자인 하여 만든 제품이다. 스님 및 일반신도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걸망 옆에 지퍼를 이응 사응 자가 편리하게 물건을 넣고 뺄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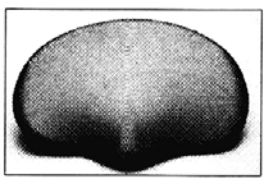
- 크기 : 500×460(mm)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15,000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가 8월 12일부터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불자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빠른 서비스 고급화된 매장, 부담 없는 가격을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에서 만나십시오.
아울러 고객 여러분들의 보다 쉽고 빠른 접속을 위해
새로운 도메인 주소인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로도
동시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 서비스, 고객중심 매장 서비스 및
저렴한 가격의 마하몰은 생활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갈 것입니다.

(마하(摩訶)는 범어 maha의 음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크다는 뜻과 많다, 초월한다, 신묘하다는 뜻으로 경전의 이름이나 불교용어의 앞에 붙어서 그 의미를 확대 해주는, 불자들에게 친숙한 불교용어 입니다.)

참선 명상 방석



국내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창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이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제품의 특징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척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진다.

크기가 작아 휴대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는 사찰 신행단체, 선방, 심신 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

- 크기 39×43(cm) - 가격 : ₩27,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브론즈 코팅형 개금형 금동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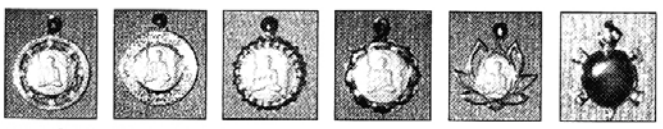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 재질 100% 청동
- 종류 브론즈코팅형, 금동품형, 개금형
- 크기 40.5cm

- 가격 : ₩350,000(코팅형,금동품형)
₩580,000(개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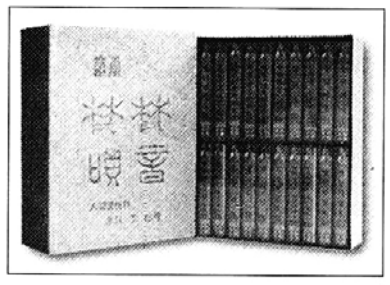
상진주 호신 메달

상진주(像塵珠) 란?
조개속에 미리 새겨진 핵을 삽입하여 수년간 양식 과정을 거쳐 그 상(像)대로 형성 되어진 진주입니다 상(像)은 인위적인 가공없이 자연 색상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니며 성공률 30%로 희소가치가 큰 보석입니다



상품명 업튼 호신불메달 | 상품명 진다라 호신불메달 | 상품명 다라니 호신불메달 | 상품명 10관기 호신불메달 | 상품명 연꽃 호신불메달 | 상품명 가부 호신불메달
판매가 ₩241,200 | 판매가 ₩288,000 | 판매가 ₩168,800 | 판매가 ₩199,800 | 판매가 ₩168,800 | 판매가 ₩124,000
재 질 금18k 925은 상진주 | 재 질 금18k 925은 상진주 | 재 질 금18k 925은 상진주 | 재 질 금18k 925은 상진주 | 재 질 금18k 925은 상진주 | 재 질 금18k 925은 상진주

문구암스님 법음 · 범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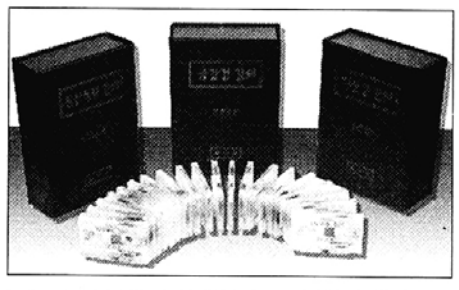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테이프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관욕의식 등 분야별로 녹음되어습니다

1.불공의식 2.심신이운 3.신장청 · 손중권공 4.상단청 5.상단권공 · 거목 6.대령 · 관욕의식 7.대령 · 관욕의식 II 8.대령 · 관욕의식 III 9.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영산작법 I 11.영산작법 II 12.영산작법 III 13.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지장권공 II 16.전시식 17.배송 18.운신게 19.법사이운 · 영전점안 20.중성 · 천수작법 · 요잡

- 가격 :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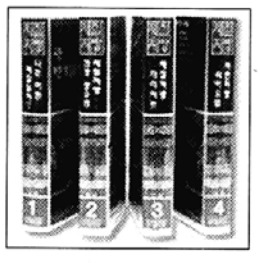
무비스님 특강 녹음 테잎



무비스님의 경전 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비쁜일상 생활이지만 짬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최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 20개 ₩45,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인가?
- 체질이란 무엇인가?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자신의 외모심성 병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병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 과일,해물,차등
- 건강장수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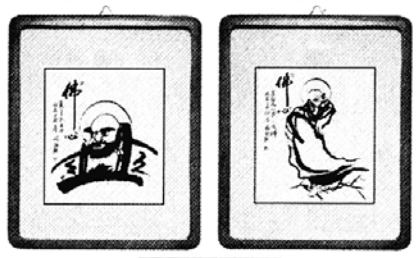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 가격 : ₩70,000(가방포함)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진달래 교수

달마도 순금판 액자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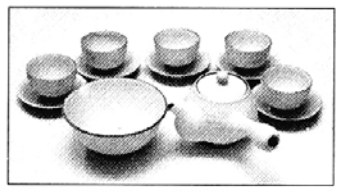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증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카드(99.9%) 위에서 느껴보세요 개인소지 벽걸이용,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27cm X 32cm
순금판크기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866 호

■가격:₩120,000

고산다기



고산 이규탁 선생은 임진란때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도공 광산의 혼을 사백여년만에 한국에 되돌려온 도예가이다 광산의 십일대손인 고취정신선생이 그 조선전래 비장의 도예술인 그 불꽃을 조국에 되돌리고자 한국의 도예특기자를 전국의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법을 연마시켰던바 그 수제자가 이규초 선생이다

이리하여 이규초 선생은 그 도예진수를 발휘하여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상하여 두각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고산 이규초선생은 일본살신기의 예술혼의 불꽃을 현해탄을 건너 고국에 옮겨놓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산오(高山窯)에서 만들어 진 다기이다

■가격:₩120,000

찻상



- 크기 52×36×8(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찻상 정반
- 제작기법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된 수공예품

■ 가격 : ₩5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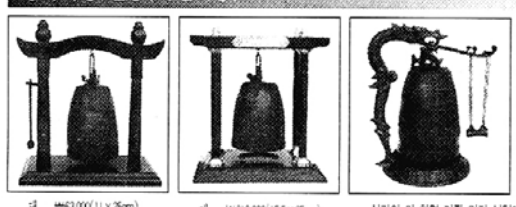
다기함



- 크기 50×39×15(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다기 보관함
- 제작기법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 가격 : ₩126,000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대 ₩63,000(11×25cm)
중 ₩47,000(8×16cm)
소 ₩31,000(6×13cm)

대 ₩219,000(15.5×25cm)
중 ₩89,000(10.5×16cm)
소 ₩69,000(9×13cm)

대 ₩37,000(11.5×18.5cm)
중 ₩25,000(8.5×14.5cm)
소 ₩17,000(6×10cm)

신라의 미 하면 가장 먼저 성덕대왕신종. 속명은 에밀레종을 연상하기쉽다. 본작사 선덕대왕신종 은 구경(口徑) 2.227mm, 전고(全高) 3.663mm, 두께 203mm, 음통고(音筒高)648mm의 거종으로서 종체의 규모에 있어서나, 영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최상 최우수 걸작품이며 동양의 청동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기의 명종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유산을 재현하여 100% 청동과 100% 수공작업으로 만들었다

반야 불교반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여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력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慙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홍법력(弘法力)
항마력(降魔力)

■ 재질 금큐빅(18k,14k-16돈) ■ 가격 : ₩130,000(18k), ₩120,000(14k)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쑥환



- 가격 : ₩55,000
(1달분 1통 (1500정))
- 가격 : ₩80,000
(2달분 2통 (3000정))

3년 숙성시킨 강화사자발쑥 쑥 환 으로 드십시오 !

사자발 쑥 환이 좋은 3가지 이유
1 복용과 휴대가 매우 편리합니다
강화사자발쑥 환은 기존의 환제품과는 달리 쑥 특유의 쓴 맛을 꺼려하는 남녀 , 노소 특히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휴대나 보관도 매우 편리합니다
2 효과가 빠릅니다
쑥 환이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저녁 과식후 속이 더부룩 할 때 20환 저도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속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쑥 100%입니다
사자발쑥 환은 순수 강화사자발쑥 100%로 고품질의 강화도 특산품입니다.(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쑥 환 제품중에는 쑥을 담이지도 않고 분쇄후 물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향적원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로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찌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솔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아이디어 건강 칫솔 (어린이 선물용)

신상품



■ 가격:₩3,900

치약을 내장 시킬수 있는 칫솔로써 칫솔과 치약이 분리되는 데서 오는 불편함(치약을 떨어 뜨리거나, 과다사용)을 말끔히 해소시킨 아이디어 상품

제품의 특징
1 미국 듀폰 타이넥스사의 부드러운 양질의 모를 사용하여 치아의 잇몸을 보호
2.치약 1회 주입으로 12~15회 사용
3.치약 떨어 뜨림, 과다사용 방지
4.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양치 습관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줌

사용방법
· 픽스톱을 분리 후 칫솔 몸통을 쥐고 치약을 짜 넣습니다
· 필요에 따라 적정양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선물용으로 다량 주문시 잠인하여 드립니다

실용신안 제18263호 / 의장 제16339호 / 상표 제28424호

법회안내

백중 '지장경' 강설



무비스님(은해사승가대학원장) 21일~25일 봉은사 백중 지장기도 회향기념 〈지장경〉강설법회. (02)511-6070

일요일 가족법회



지묵스님(길상사 수련원장)15일, 22일, 29일 오전 10시 길상사 가족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02)3672-5945

서울구도회 '선사상' 특강



종호스님(동국대 교수) 21일 오후 3시 30분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선사상' 주제 토요법회. (02)3411-6167

28사단 일요법회



최혜명법사(금강메아리 지도법사) 22일 오전 10시 육군 28사단 두리정사 일요법회. 017-277-6758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8월18일 (수)

■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천마재활원 봉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오전 10시~오후 3시 천마재활원에서 청소와 학습지도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051)898-2672

8월19일 (목)

■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체험학습=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20일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자원봉사교육과 봉사체험을 함께 한다. (042)488-0732

■ 동산청년회 혜경스님초청법회=동산불교청년회는 오후 8시 동산법당 3층에서 무설정사 혜경스님초청 법회를 갖는다. (02)732-1206

8월20일 (금)

■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선거=오후 3시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선거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02)733-7377

8월21일 (토)

■ 능인선원 철야 용맹정진=능인선원은 밤 9시부터 21일 새벽 4시까지 철야참선 용맹정진법회를 서초법당에서 연다. (02)3482-8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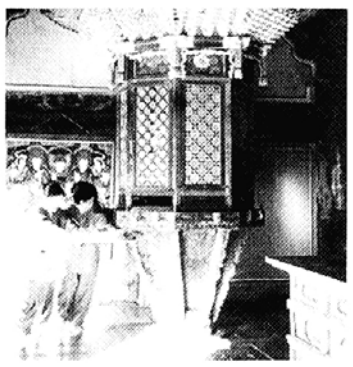
■ 선정회 월례 참선철야정진=선학원 선정회는 지녁 8시부터 22일 새벽 4시까지 안국동 선학원 선방에서 좌선정진법회를 갖는다. 선학원 원장 성해스님이 참선법문과 지도를 한다. (02)732-3327



◇한달에 한번 몸과 마음을 다지는 참선 철야정진에 동참해보자.

■ (가)불교여성교육원 설립 간담회=(가)불교여성교육원 설립을 위한 여성불자 간담회가 오전 오후 3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다. (02)720-7060

8월22일 (일)



◇ 예천 용문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윤장대를 감상해보자.

■ 용문사·장안사 순례=옛돌은 오전 7시 예천 용문사와 장안사로 순례를 떠난다. 예천 의성포와 오지마을도 순례한다. (02)2266-1233

■ 만어사·무봉사 유적답사=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오전 7시 만어산 만어사, 승진리사지 삼층석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을 둘러보는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한다. (053)753-8883

■ 최봉수교수 '불교와 인간' 주제 강의=오전 10시 대한불교삼보회 삼보여름불교대학에서 동국대 최봉수 교수가 '불교와 인간'을 주제로 강의한다. (02)913-2859

■ 운주사·보림사 생태기행=맑고향기롭게 경남모임은 오전 8시 화순 운주사, 장흥 보림사, 쌍봉사, 보성 차밭 등지로 생태기행을 떠난다. (0551)266-0170

8월24일 (화)

■ 선운사 도솔암 철야기도=용진신행회는 오전 7시 백중을 맞아 지장도량 선운사 도솔암으로 철야기도를 떠난다. (02)2278-1191

게시판

알림

▲잉여식품나눔사업=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잉여식품 나눔사업을 전개한다.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잉여식품을 수집해 가정봉사원이 직접 방문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웃사랑과 자원절약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02)385-1351

▲능인복지관 열람실 개방=능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열람실을 개방한다. 복지관내 휴식, 문화공간인 열람실에는 각종 서적 3000권이 구비돼 있다. (02)571-2988

▲백련학당 불교외국어 학습=성철선사상 연구원은 제1기 백련학당 불교외국어 학습강좌를 개설했다. 불교영어, 일본어, 한문기초 등의 강좌를 진행한다. (02)744-1544

▲취업대비 간병인 국비훈련=연꽃마을은 주부와 준고령자를 위한 취업대비 간병인 국비훈련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 수강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02)2203-3677

▲중고선풍기 냉장고 기증받아=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 독거뇌파 장애인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중고 선풍기와 냉장고를 모집한다. (02)852-0525

▲생활용품·학용품 후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모자가정지원을 위한 가족사랑지킴이 물품후원을 기다린다. 생활용품과 학용품 등을 후원하면 된다. (02)2282-1108

강좌

▲원효학당 가을학기 개설=원효학당에서 가을학기 강좌를 개설, 9월 6일부터 개강한다. 삼국유사, 불교란무엇인가, 대승기신론연구, 선수행, 선기공, 팔리어불전의 이해 등을 지도한다. (02)3411-6167

▲조계사 기초교리강좌=조계사는 제25기 기초교리강좌를 개설한다. 9월 2일부터 주야간반과 토요일반으로 나눠 실시된다. (02)720-1390

▲아함경·수행강좌=보리수선원에서는 9월부터 불교경전 공부와 수행강좌를 개설한다. 수치침, 원왕생교육, 불교초스피스, 발반사요법, 간병인교육 등을 지도한다. (02)723-6258

▲약수사 불교대학 교리 강의=약수사는 4개월 과정의 불교대학을 연다. 불교기초교리를 주지 광옥스님과 이제열법사가 지도한다. (02)877-7514

▲길상사 불교문화강좌=길상사는 9월부터 3개월간 제2기 불교문화강좌를 연다. 불교교리와 참선, 다도 등을 지도한다. (02)3672-5945

▲자원봉사시민대학=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제10회 자원봉사시민대학을 9월 2일 개강한다. 수치침, 원왕생교육, 불교초스피스, 발반사요법, 간병인교육 등을 지도한다. (02)723-6258

모집

▲독거노인 자원봉사자=연꽃마을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독거노인들의 말벗, 생활상담, 가정방문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성인사회교육프로그램=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사회교육프로그램을 9월부터 연다. 찌개전골과 상차림, 한식조리사 자격증, 제과제빵사 자격증, 손쉬운 빵과 쿠키 등이다. (02)2282-1108

▲가족사랑지킴이 물품후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모자가정지원을 위한 가족사랑지킴이 물품후원을 기다린다. 생활용품과 학용품 등을 후원하면 된다. (02)2282-1108

▲복지관 상담자원봉사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법률, 세무, 주택, 의료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상담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이전

▲한국불교청년회는 최근 사무실을 마포구 창천동 268-5로 이전했다. (02)326-0248

▲좋은벗 풍경소리는 사무실을 마포구 도화동 36번지 고려아카데미텔Ⅱ 1306호로 이전했다. (02)717-6985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사무실을 수성구 수정1가 113-4 4층으로 옮겼다. (053)753-8883

종단소식

조계종

금산사 미륵십선 법회

미륵불교 근본도량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20일 오전 10시 미륵전에서 미륵십선회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미륵십선회법회에서는 주지 도영스님이 미륵십선운동을 주제로 법문한다.

한편 금산사는 매월 음력 10일 금선사에서 미륵십선법회를 개최하여 미륵신앙의 전파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전국의 각 지역에 미륵십선회 지부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0658)548~4441

일연성사 열반 710주기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일연성사 열반 710주기 추모다례재를 18일 오후 2시 군위 인각사에서 봉행한다.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민족의 성지인 인각사에서의 다례재는 불교전통의식 그대로 진행된다. (0563)335-3318

태고종

보성종정 1주기 추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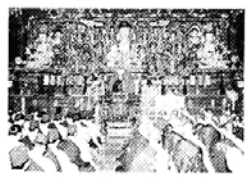
前 종정 보성스님 열반 1주기 추모법회가 23일 오후 4시 원주 보림사에서 봉행된다.

선암사 전국 승려연수

태고총림 선암사에서는 27일부터 9월2일까지 제26회 전국승려및 교임연수교육이 3차에 걸쳐 진행된다. 27~29일 실시하는 1차교육의 대상은 합동득도이전 승적을 취득한 모든 승려와 제1기부터 10기까지의 합동득도수계자, 2차는 29~31일로 합동득도수계 11기부터 22기까지, 3차는 31일~9월 2일로 비구니 및 사미니와 교임 전원이다.

천태종

7일 하안거 결제



기묘년 하안거 결제식(사진)이 7일 밤 10시에 총본산 구인사 5층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번 하안거에는 천태종도 1만여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해제는 9월 6일이다.

관음종

태허대종사 열반 20주기

5일 창종주인 태허대종사 열반 20주기 다례법회를 묘각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혜웅종정스님을 비롯 1백여 스님들과 3백여 신도가 동참, 태허대종사를 추모했다.

한국법화종

총무원장에 위불스님



1일 제7대 총무원장에 위불(爲佛)스님〈사진〉이 취임했다. 위불스님은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용화사 법보선원 등에서 8하안거를 성만했다. 서울 문수사, 미국 원각사 불국사 주지를 역임하고 지난 3월 (재)한국불교 법화종 유지재단 이사로 취임했다.

임제종

포교원장에 영암스님



7월 31일자로 포교원장에 영암스님(부산 광안사 주지·사진)이 임명됐다. 영암스님은 1941년 경기 화성生으로 1971년 호림스님을 은사로 신흥사에서 출가했으며 임제종 부산교구원장을 역임했다.

열반종

괌 KAL참사자 천도재

총무원(원장 김해근)은 지난 97년 8월 6일 괌에서 비행기추락사고로 순직한 故 홍승현 KBS 보도국장과 홍국장의 아들 은기씨, 딸 영실씨의 천도재를 가족과 KBS 임직원, 한국기자협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용인 와우정사에서 봉행했다.

WFP 일행 와우정사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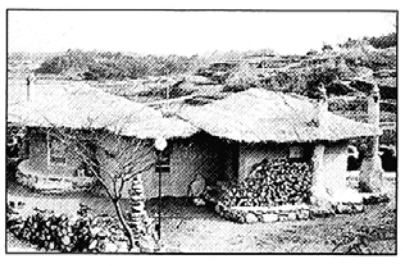
세계식량계획(WFP) 카트린 베르티니 일행 10여명은 15일 오후 2시 용인 와우정사를 참배했다. 이날 베르티니 사무총장은 한국사찰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한국불교에 관심을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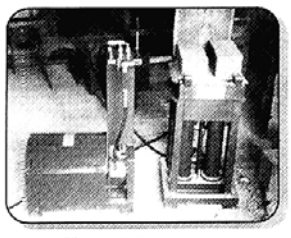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짚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큰스님 요즘 장경 보실시간 없으시죠!

정원스님의
增補 玄句集

一. 本書는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속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全內典과 논어, 도덕경 등 外典 若干에서 參學人의 指南이 될 玄妙章句를 抄하여 한글 번역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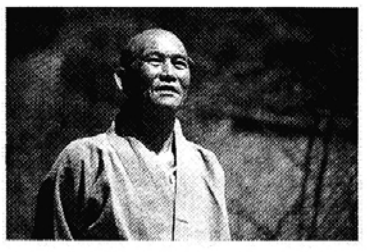
一. 原文과 譯文을 분리하였고 上中下卷으로 편집하되 上卷 諸經集352件, 中卷 經外集1127件, 下卷 句頌集1452件 都合2931項. 原文만 一十五萬餘字이며 每項目마다 出典을 세밀히 밝혔고 특히 하권 구송집은 첫째 字의 畵數順으로 安排하였음.

一. 此集은 抄譯者가 출가 이래로 삼십여 년 간 佛典을 열람하면서 긴요한 文句를 수시로 拔萃하여 쌓아두었다가 금번에 인연이 도래하여 출간하게 된 바 특히 抄譯者가 직접 毛筆로 原文과 譯文을 한 字 정성을 다해 書寫한 것이며 增補라고 이름한 由來는 몇 년 전에 역시 抄譯者가 출간한 바 玄句集을 대폭 修正補完한 연고임.

총판대리점 법우당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TEL : 994-4437 FAX : 994-4438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예정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종교청년 평화캠프 참석자들이 발우를 받아 펼칠 때 외우는 전발게(展鉢偈)를 읽으며 합장반배하고 있다.

종교벽 허문 '화합의 만남'

KCRP 청년캠프…6대종교 50여명 참가
좌선 · 미사등 체험하며 이해 폭 넓혀

10일 강화의 인천가톨릭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50여명의 젊은이들이 발우를 무릎 앞에 펼쳐놓고 손을 모았다. 둘째날 저녁식사는 불교의 발우공양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불교인이 아닌 젊은이들에게는 낯선 의식이지만, 법명스님의 설명을 놓치지 않려는 표정이 매우 진지하다. 법명스님의 선창에 맞춰 오관게 합창소리가 울려퍼졌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발우공양을 체험한 개신교인 변예원씨(가톨릭대 종교학과3년)는 "발우 씻은 물을 아귀들에게 베푼다는 '절수상념게(折水想念偈)'가 인상깊다"며 "만물과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불교의 이웃사랑에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종교청년 평화캠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청년들이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종교간의 배타성과 갈등을 넘어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의 청년들은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을 함께 하며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 종교간의 배타성과 갈등을 극복하는 우정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천주교-미사, 천도교-청수의식, 원불교-좌선, 명상, 불교-발우공양, 개신교-세족례 등 각 종교의 중요한 의식을 함께 하며 이웃종교를 체험했다.

천주교인 최효석씨(동국대 화학과 4년)는 "우리 또래의 친구들은 자기주장을 확실히 밝히면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존중한다"며 "종교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의 모범적인 삶의 전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목사의 '다름이 아름답다'는 주제의 강연도 종교청년들에게 새로운 종교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KCRP 변진흥 사무처장(인천가톨릭대 교수)은 "종교청년 평화캠프는 종교간 평화와 화합의 기층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청소년들까지 참여하는 대화와 만남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열목어 사는 오대산 만들자

월정사 국립공원 청정계곡 가꾸기 나서
오물수거활동…가을엔 열목어 치어 방생

'오대산에 열목어가 살수 있는 깨끗한 계곡을 만들자'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관광객과 피서인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대산계곡 일대가 청정지역으로 변했다. 이는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가 교구본사로는 최초로 국립공원 오대산일대 환경보호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데 따른 것.

월정사(주지 현해)는 13일 스님 군장병 군청직원 및 경찰, 신행 사회단체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대산 일대에서 '열목어가 사는 아름다운 청정 오대산가꾸기' 캠페인을 벌였다. 불교성지인 오대산 월정사 주변의 수려한 환경을 보호하고 관내 유관기관간의 일체감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1부 환경수호 결의, 2부 인근계곡 쓰레기줍기 행사로 전개됐다. 특히 계곡 쓰레기 줍기에는 금강연 스킨스쿠버회원들이 계곡물속에 잠수하여 깊숙한 곳의 오물도 정화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함께 월정사는 환경캠페인이 쓰여있는 배지와 쓰레기봉투 1만장을 제작하여 관광객과 피서객들에게 나눠줬다. 또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사찰내에서 발우공양을 제공하여 발우공양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도 일깨워 주었다.

월정사는 단풍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올 가을에 두번째 오대산 청정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두번째 행사에는 열목어 치어방생법회를 개최하여 천연기념물 73·74호인 열목어 치어를 월정사 인근계곡에 방류시킨다는 계획아래 이미 군부대에 열목어 치어 보급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와함께 열목어 보호를 위한 산중음악회도 열어 사찰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오대산가꾸기 행사를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주지 현해스님은 "갈수록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불교성지인 오대산을 깨끗이 하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대산 일대 환경운동을 전개, 국립공원내 가장 모범적인 환경사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정사가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열목어는 오대천 상류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희귀종이다. 냉수성이어서 깊은 산 계곡에 살며 휴전선 이남인 오대산과 설악산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 열목어는 환경오염때문에 오대산 계곡에 소수가 남아 국립공원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연어과 어류로서 1급수에서만 살기때문에 열목어가 사는 곳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북경 공안당국 법회 막아 한인불자회 신행 어려움

종단협 中佛協에 협조공문

북경한인불자회가 중국 공안당국의 감시와 법회 불허 조치로 신행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경한인불자회는 93년 상사주재원 가족들이 북경대학에 유학중인 월암스님을 모시고 가정법회를 봉행하면서 비롯됐다. 95년에는 학생회, 96년에는 거사법회를 창립했으며, 현재는 거사회 80명, 부인회 1백50명, 학생회 2백70명 등 모두 5백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매월 6~7회의 법회를 봉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으나, 중국 공안당국의 감시와 법회 불허 조치를 내려 7월부터 법회를 봉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의 법회 불허 이유는 지도법사인 월암스님이 학생신분으로 유학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북경한인불자회 김유진회장은 최근 조계종총무원으로 편지를 보내 이같은 사정을 알리고 법회를 지도할 고국 스님의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불교종단협의회 회장 고산스님은 7월 30일 중국불교협회 조박초 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북경한인불자회의 신행활동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산스님은 조박초 회장에게 "북경한인불자회는 한국유학생과 상사주재원 등으로 구성된 순수한 신행단체임에도 최근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신행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귀협회(중국불교협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보문사 불교회관



◇보문종 보문사는 불교회관 동원정사를 건립하여 포교 교육및 문화불사에 나선다.

새싹 키울 문화포교 도량

어린이집·유치원 입주
공정 90%…내부공사중

도심사찰로서는 보기 드물게 울창한 숲을 지닌 보문사(주지 법준).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3가에 위치한 보문사는 유일의 비구니종단인 보문종의 총본산으로 옛부터 많은 비구니스님들이 수행정진하는 탑골승방으로 알려져 왔다. 고려 예종 10년(1115) 담진국사에 의해 창건된 보문사는 비구니스님들이 수행과 전법교화의 초전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사실 보문사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해방이후 주지로 취임한 은영스님의 각종 불사와 전법 원력이 가시화되면서 부터다. 그로부터 보문사는 선불장, 극락전, 보문전 등 20여개 전각을 건립해 불자들이 마음놓고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심속의 허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는 타 사찰의 모범이 될 정도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전법 및 포교활동이다. 그중 은영어린이집과 은영유치원 설립은 미래불교를 향한 단초다. 보문사는 포교 교육 및 문화불사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공간 마련에 분주하다. 불교회관 동원정사가 바로 그것.

보문사 일주문 오른쪽에 건립된 불교회관은 90%의 공정을 마치고 마무리 내부불사가 한창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미 입주해 있는 상태다. 3백여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불교회관은 최신 현대식 건물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층에는 은영어린이집, 2층은 은영유치원, 3층에는 대강당이, 4층에는 신도회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등 각 단체 사무실과 도서관이, 5층에는 만불전이 들어선다. 4층까지 불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5층 만불전 불사가 진행중이다. 불교건축에 남다른 신심과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대한불교예술원 불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 만불전은 불자들이 편안하게 기도정진할 수 있도록 장엄하게 꾸며지고 있다.

사찰측은 "이제는 사찰이 신도들의 신행생활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대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라며 "불교회관 동원정사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종합문화도량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중근 기자

참선·사경하며 '나' 찾아

태고종 선암사서 첫 가족수련회

태고종 보현도량(회장 법성)이 주최하는 제1회 여름불교 가족수련회가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동안 순천 선암사에서 열렸다.

엄마와 아빠 자녀등 가족단위로 많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는 부모와 자녀가 사찰이라는 한 공간안에서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가족수련회에는 청소년52명과 성인 126명 등 총 178명이 동참해 '108참회사경대회' '교리퀴즈게임' '불교와 생활' '참선실수' 등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에 참가한 최동숙양(당진중 3)은 "스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노래부르고 좋은 말씀도 들어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태고종 보현도량은 제1회 가족수련회를 개최했다.

보현도량 회장 법성스님은 "내년에는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광에 첫 한국사찰 관해정사 개원

부산 연등사(주지 반월)는 8일 한국사찰로서는 처음으로 괌에 관해정사를 개원했다.

혜성스님(전 도선사 주지) 범어사 부주지 몽산스님, 국청사 주지 계전스님을 비롯한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 법회를 봉행한 관해정사는 괌의 수도 아가냐시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법당에 삼존불을 봉안했다.

개원법회에 앞서 6일 혜성스님은 대한항공 참사 2주기를 맞아 대한항공 참사자 위령탑에서 천도재를 지냈다.

천미희 기자

법상종 연담종정 입적



대한불교 법상종 종정 연담 영명스님이 6일 오후 4시 입적, 8일 서울 덕암사에서 영결식을 거행했다. 세수 64세 법납 34세.

연담스님은 1965년 미화사에서 찬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71년 일붕 서경보스님에게 건당했다. 법상종 6대 총무원장, 일붕문도회 5·9대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94년 8월 법상종 제4대 종정에 취임했었다.

이경숙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밝은길 아봐타센터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건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회규 원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건강을 선물합시다.

… 절기마다 기운의 흐름이 다르고,
그 흐름에 따라 양생법(養生法)이 다르다 …



· 소서제조 · 대서체조 · 고치집신

그림과 함께 익히는!!
날마다 젊어지는 절기맞춤체조
크라운판 260쪽, 정가 7,500원



신선들의 무병장수체조는 근육이 아닌 정신과 경락을 단련하니 그림과 함께 동작을 익히고, 틈틈이 설명을 본다 송나라의 신선 진희이선생이 창안함에 퇴계 이황선생도 친히 그려가며 즐겨 수련한 8가지 동작과 육기가결!

집중력 강화에는 '고치집신'을
입냄새 제거에는 '적룡교해'를
피로에 지쳤을 때는 '예수안정'을
정력강화에는 '8가지 기법'을…!!

24절기운동을 익히면서 8단금좌공법으로 보충하고
병이 있을 때는 신선들의 42처방을 참고하며
때때로 몸과 정신이 맑아지는 경문을 읊는다.
15일에 한 동작씩 24동작을 익히면 한달이면
건강해지고 1년이 안돼 신비로움을 느끼리라.

너무나 쉬운 동작 속에 진리가, 특히 수험생과 노인 투자자 등 주변의 친지분께도 선물하여 다같이 건강장수를 누립시다.

평생의 반려자

하루의 투자로 평생의 삶을
미리 알 수 있는 『하락리수』!
우주의 생성소멸원리를 부호화하고 도식화하여
나의 능력과 운명을 알 수 있게 한 비결!!
태어남(생년월일에 음양과 오행이 부여됨)→
384운 중의 하나→ 나의 평생운과 우주의 운행이 일치하는가?
거스르는가?→ 또 올해의 운, 이달의 운, 오늘의 운과의 일치여부→ 일치한다면 길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일치하지 않으면 신중하고 조심하여 어려움을 넘긴다.
※대유학당에서는 하락리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대유학당은 좋은 책만을 고집합니다: 02)2232-8383, 02)2234-1786

주역입문, 대산주역강해(上,下), 주역전의대전역해(上,下), 대산주역점해, 주역인해, 미래를 여는 주역, 편해 매화역수, 하락리수(上,下), 음부경과 소서, 오행대의(원문, 번역), 천문류초, 태을천문도, 예언의 허와실, 절기맞춤체조.

仙道 생·활·속·의 道
"금선양생법으로 평생건강을""

道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이룬다.



백두산 정기를 온몸에 받으며 수련에 열중하는 최병주 회장

仙道라함은 몸과 마음을 닦는 수련으로서 아무리 학문의깊이가 있다해도 실수련이 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는 음기와 양기가 있는데 수련을 잘못하면 오히려 음기가 강해져 감각이 예민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 부작용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선도를 통해 우리 몸의 양기를 증장시키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

훈훈하고 따뜻한 양기의 소주천만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그심성을 온화하게 해주며 더 나아가서 진종자를 이루어 금단을 맺는데 까지 나아갈수

본학회에서는 9월 3일 중국에서 중국의 살아있는 신선이라 일컬어지는 왕역평과 함께 수련회를 갖습니다.
이에 동참하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수련문의 : 금선학회 02) 512-7057/7233
세계금선학회 회장 최병주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수해아픔 나누는 자비손길

종단·사찰·단체등 복구지원 활발
'보현의 집' 노숙자·장애불자도 동참

수해지역에 자비의 물결이 거세다. 수마가 휩쓸고가 마치 폐허처럼 변한 경기도 파주 연천 문산 등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연일 내리쬐는 불볕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처럼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활동에는 그동안 도움을 받아온 보현의 집 노숙자 1백여명과 장애인 등이 열성적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수해현장에는 연인원 2천5백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했으며 교계에서 총 7천여만원 상당의 성금및 물품이 전달됐다.

종단 조계종은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지원과 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3일 수해구호대책본부를 구성하고 4일 KBS 등 언론사에 수해성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이어 5일부터 문산읍과 연천지역 2곳에 3백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했다.

태고종도 종단차원의 수해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4일 한국불교사회봉사회(회장 설산스님)가 1천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여 연천군 수해현장에서 식사를 제공했다. 또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왕선)는 쌀 생수 비누 등 3백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탁했다.

천태종은 4일 2천만원을 KBS에 전달한데 이어 5일 춘광스님(관문사 부주지)을 대표로 한 구호단을 연천에 파견하여 생수 속옷등을 전달했다. 이어 9일부터 10일간 자원봉사자 50명을 매일 투입해 복구를 돕고있으며 각 사찰법회시 특별철야기도법회를 개최, 수재의연금을 모금했다. 진각종은 2일 긴급수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3일 수재의연금 1천만원을 전달한데 이어 4일 1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대피소를 일일이 찾아가 생수 3백박스와 밑반찬 2천5백인분을 지원했다. 또 전 종무원과 복지재단직원들이 수해지역을 찾아가 복구지원 활동을 펴고 있다.

사찰·단체 수해현장에서의 각 봉사단체와 단[illegible]의사찰의 구호활동[illegible]열심이다. 대구 동화사(주지 [illegible])는 대구 MBC와 공동으로 수해 성금과 물품접수를 받았고 모아진 물품은 14일 연천지역을 방문, 직접 전달했다. 서울 광림사(주지 해성)는 6일 장애인불자 20여명이 등참한 가운데 문산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고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5일~7일 파주 연천지역에서 1백36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하여 가재도구정리 청소 세탁 등으로 수해민들을 도왔다. 동국대 동림회(회장 자용)와 한국불교교화원(원장 운월스님)도 문산과 파주·연천지역에서 각각 수재민을 위한 자원봉사 및 절심공양봉사를 펼쳤다. 연천 향지모임(회장 양춘연) 역시 3일부터 수재민들에게 가재도구 정리 등을 도우며 수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옷등을 모아 전달하고 있으며 피해사찰를기에도 나섰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산사태로 돌과 토사가 밀려와 산신각 아래쪽 요사채가 매몰된 문경 윤필암. 선원 방안까지 물이 차고 주차장과 축대가 붕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찰 15곳 '수해 피해'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로 인한 사찰피해는 총 15곳으로 집계됐다. 장흥 보림사(주지 현광) 경내에 세워진 국보 제44호 삼층석탑의 보륜(寶輪)부가 넘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석탑 중심부에 세워진 찰주(쇠기둥)가 강풍을 이기지 못해 휘어진 것. 이외에도 대웅전과 사천왕문의 기와 5백여장이 유실되고 사찰의 외벽 2곳이 무너졌다.

철원의 도피안사는 산사태로 종각 화장실 입구다리등이 유실됐으며 문경 대성사는 산사태로 요사채가 매몰되고 도로및 주차장이 유실됐다. 비구니선원인 윤필암은 산사태로 트사가 밀려와 요사채가 매몰되고 수도시설이 파괴됐다. 남양주 자재암은 삼성각 기와가 파손되고 축대가 붕괴됐으며 포천 성주사와 파주 금단사, 홍룡사, 연천 오봉사는 도로및 다리, 축대가 유실됐다. 동두천 태고종 광덕사는 담장과 계단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됐으며 고양시 광덕사는 5m 가량의 축대가 무너졌다.

김원우 기자

가야산 신설도로 환경평가 이의신청

해인사와 인근주민 30여명은 해인사 집단시설지구에서 가야산 국립공원을 지나 88올림픽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59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일부구간에만 이뤄지는등 문제점이 많다며 사업주인 경남도에 7일 경남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경남도는 지난 4월부터 노선의 재설계에 들어가 최근 국립공원 바깥구간에 대한 노선을 선정했으나 환경파괴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노선을 변경하고 환경평가를 실시한바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내 구간에 해당하는 가야산 치인리에서 성기리까지 11.48Km 구간은 종전노선을 그대로 둔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단체와 해인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윤호 기자

광주군 '군정백서'에 종교편향 내용 '물의'

경기도 광주군이 최근 발행한 군정백서가 특정 종교에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군이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의 군정을 소개한 제1기 민선자치 군정백서는 지역에서 덕망이 높은 분 등을 명예군수로 위촉한 현황을 소개하면서 기독교인 숫자는 명시하고 불교인은 기타항목에 포함시켰다.

김재경 기자

21세기 대중불교 방향 진단

21·22일 대원회 제10차 대중결사대회

대원회의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가 10주년을 맞아 제10차 대중불교결사를 21일~22일 1박2일간 대원불교회관에서 개최한다. 올해 제10차 대중불교결사대회에서는 '현대사회의 수행', '대중불교운동의 어제와 오늘', '21세기 대중불교의 긍극적 방향' 등 주제강의와 토론, 철야정진기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故 장상문거사의 원력으로 시작된 대중불교결사는 80년대 말 불교의 대중화, 교리의 생활화, 의식의 현대화 이념을 전개하며,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 민족과 사회를 바르게 이끌자는 대중불교운동으로 정착돼 왔다.

89년 7월 제1차 대회에서 △집집마다 부처님 모시기 △마을마다 불교회관 건립 △직장마다 법회 봉행 △모든 가정의례의 불교화 △오계 지키기를 생활화 등 대중불교 결사문을 채택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불교대중화 실천운동을 조직적 전개하는 등 한국불교의 재가불자신행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은자 기자

지하철 포교용 게시판 설치

풍경소리·지하철법우회…115개 역사 460개소

서울 1백15개 지하철 역사에 법을 포교용 게시판이 설치될 전망이다.

법을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는 서울지하철법우회와 공동으로 31일부터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1백15개 역사 각 4개씩 총 4백60개소에 부처님 말씀을 적어 불법을 홍포할 수 있는 게시판을 부착한다. 게시판은 '풍경소리'가 제작 및 설치, 관리를 맡고, 서울지하철법우회의 주관으로 월 2회 2종류의 새로운 내용의 포스터로 교체된다. 내용은 현대적 언어로 해석된 부처님 경전 말씀 및 설화를 비롯해 사회상을 반영한 국민 계도성 내지 희망의 메시지로 꾸며질 계획이다.

하루 약3백50만명의 시민에게 부처님의 말씀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풍경소리'와 지하철법우회는 도시지하철공사 및 서울지방철도청 소속 역사로 게시판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10만불자 정토결사' 추진

전국신도회, 범불교 신도운동 선언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가 조계종 차원을 넘어선 신도운동의 구심체로서 변신과 조직확장을 선언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신도회는 10, 11일 대전 유성 호텔 스파피아에서 세미나 및 전국불교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하고<관련기사 6면> "앞으로 특정종단이나 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신도운동의 구심체로서 취합적 성격을 띤 연합단체로서 운영 조직한다"고 결의했다. 전국신도회는 범불교 단체에 걸맞는 신행방향과 조직화를 위해 '10만 불자 정토 결사'를 올해 가을부터 전국순회 대법회 형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불교계 문화행사로 88올림픽 당시 한강에서 봉행한 10만 유등법회를 다시 재연, 각 지방 개최지까지 이 법회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한 팀장제도를 활성화 해 정토결사의 구심점을 만들고 독립된 여성기구를 설립, 여성불자의 조직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불교여성교육원 올 가을 설립

21일 간담회 개최

여성불자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교육원 (가칭)불교여성교육원이 올 가을 설립된다. 조계종포교원은 21일 오후 3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가칭)불교여성교육원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가)불교여성교육원은 지난 6월 107명의 여성불자가 참가한 여성불자워크숍을 계기로 여성불자의 모습을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위한 장으로서 공식적인 불교여성단체가 결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가)불교여성교육원은 지난 워크숍에서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천적인 신행혁신을 통해 지혜로운 어머니로서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교육, 종교인으로서 여성불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힘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시한다. (가)불교여성교육원은 21일 간담회 이후 불교여성교육원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불자를 위한 교육, 포럼 등을 열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교계여성지도자, 활동가, 사찰신도회 대표 등 30여명이 초청된다.

이은자 기자

목조문화재 전산화

문화재청, 정밀 실측 실시
올 쌍계사 대웅전등 대상

문화재청이 증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을 실시하고, 이를 전산화해 체계적인 보존사업을 펼친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134건이 대상으로 문화재청은 목조문화재에 대한 상량문이나 창건 또는 수리관련 자료 등을 포함한 문헌자료와 인문·자연환경을 조사해 2008년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키로 했다.

올해 1차적으로 쌍계사 대웅전과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을 비롯한 5건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뉴스 & 뉴스

행자교육원 운영위원 위촉

행자교육의 체계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조직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9일 직지사에서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비(조계종 승가대학원장) 도법(실상사주지) 무관(해인사기획실장) 철우(영산율원장) 혜능(해인율원장) 지현(송광율원장)스님등 14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윤호 기자

노인복지 홈페이지 개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노인복지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9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노인복지를 위한 전문 홈페이지는 국내에서도 이번이 처음이다. 연꽃마을은 이 홈페이지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사이버 불교노인복지관'을 구축할 방침이다.

로우터스빌이라는 이름의 이 홈페이지(http://www.lotusvil.org)는 노인복지관련 각종 논문 및 세미나, 노인복지포럼 등의 자료와 함께 연꽃마을 신문기사를 제공하고 연꽃마을의 노인관련 24개 산하시설 이용방법도 소개해 놓았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자로 가입할 수 있다.

한명우 기자

북어린이돕기 성금 전달

구룡사(주지 정우)는 7월 25일 가족법회에서 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대표 법타스님에게 북한어린이돕기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구룡사의 이번 성금은 북한어린이를 돕기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던 어린이 장난감 책 옷 핸드백등을 기증받아 1년7개월동안 알뜰매장에서 판매하여 조성된 성금의 1차분이다.

김원우 기자

옹진군, 백령면장등 징계

경기 옹진군은 5월8일 서해 백령도내 심청각에서 있었던 종교편향 사건과 관련해 김성일 백령면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김순호 옹진군 문화관광과 과장과 김성일 백령면장은 '훈계조처'됐으며 옹진군 문화체육담당 안상기 계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7월 20일자로 사직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복지 아이디어 공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발전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21세기를 대비한 발전방안 △예산절감 및 모금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 △스님이나 불자들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불교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한 각종 제도개선 △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의 분야로 공모마감은 9월10일까지. (02)723-5101

한명우 기자

수 맥 탐 사

건강하고 복을 받으려면
수맥을 피해 잠을 자십시오.

아래의 경우에는 **수맥파에 의해 나타나는 피해 증상**입니다.

1. 장기간 수행으로 인하여 관절염, 근육통, 요통, 우울증, 탈진 상태로 심히 고생하시는 수행자.
2. 잠을 자고 나도 피로 회복이 안되고 몸이 무겁고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흉몽을 자주 꾼다.)
3. 우울증이 생기며 대인 공포증이 생길 때.
4. 질병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 하여도 효과가 없을 때.
5. 노력해도 수업능률이 오르지 않고 주위가 산만해지며 정신집중을 못하고 쉬 피로를 느끼며 신경질 적인 학생에게.
6. 오십견, 관절염, 신경통, 편두통, 요통등 증세가 생길 때.

수맥을 정확하게 탐사하여
수맥 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수맥을 진단하여 수맥 파 차단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2. 수맥 파를 차단하고 중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드립니다.
3. 수맥 파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원기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금강수맥원
송파구 거여1동 135-67(201호)
(02)400-6190
017)332-5019, 011)711-6190

구 인

전국 불교 장의 연합회 서울 지부에서는
더불어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학력제한은 없지만 어떤일이든
열심히 할 수 있는 청년불자 환영

다 음

■ 운전면허 소지자 (40세 이하)
■ 이력서, 사진
■ 자기소개서
■ 보내실곳
FAX 02)739-4444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87호
(110-612) 전국불교장의 연합회 앞

불·교·사·찰·안·내
간판 시공



■ 규격
- 종로구 80cm × 40cm
- 그외 지역 110cm × 55cm
- 개인소유지 : 제한없음

■ 재질 스텐레스
■ 허가 대행 및 A/S

취급품목 사찰 안내간판, 사찰 연혁판, 건주용 간판, 게시판, 연등걸기배선

※ 1차 설치되어 있는 기존간판은 정비, 자진철거 해드리겠습니다.
※ 지방출장 가능

신성기획 TEL: 02)3141-3789
02)332-3786
H.P: 016)336-3786

(財團法人)
韓國佛教法華宗 제7代 총무원장
위불(爲佛)스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財團法人 韓國佛教法華宗 維持財團

理事長 朴惠耕
常任理事 金普成
理 事 鄭坡南
理 事 金法超
理 事 崔爲佛
理 事 柳如鏡
理 事 朴惠光
監 事 朴春信
監 事 宋柱弘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233번지
☎ 02)763-8061

주부신행담

불보살의 가피

길고 긴 인생행로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극복 이젠 남편과 함께 회향의 삶을…

철마다 변화하는 계절따라 올해도 연주암 도반들과 상원사를 거쳐 월정사를 참배하고 돌아왔다. 사찰은 언제나 든든한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는 곳이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를 추스리는 곳이다.

1971년 봄, 내 나이 26살에 결혼해 2년 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태기가 없었다.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는 씨받이 아가씨를 물색중이니 남편보고 내려왔다가라며 성화셨다. 주위의 눈치에 주눅이 들대로 든 나는 이혼까지 생각했다. 그즈음 다니기 시작한 마을 어귀의 봉은사에서 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몇달의 시간이 지난 가을 문턱, 감자기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이듬해 5월 첫딸을 낳았다.

그 이후 아이를 낳은지 채 한달도 안돼 남편을 따라 철원으로 이사를 했다. 틈만 나면 애를 업고 심원사에 가 부처님과 스님을 뵙고, 법문을 들었다. 남편도 최전방에서 항상 부처님께 참배를 한다며 자랑이 대단했다. 남편은 조금씩 후방으로 근무지를 옮겨갔다. 곧 승진도 했다. 그리고 나는 77년 12월 둘째 아이인 아들을 낳았다. 모든 일이 실타래 풀리듯 순조로웠다.

남편은 다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했고, 전후방 근무를 마치고 육군본부에서 군복무를 하게 됐다. 그해 가을에 접어들 즈음, 애들 아버지는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더니 대령 진급심사에 들어갔다며 "아무래도 진급이 안될것 같으니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라며 우울해했다.

나는 늘 하듯 "그래, 부처님께 의지해 보자. 여태까지 어려울 때면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도와 주실거야" 마음을 다잡았다. 이튿날부터 매일 아침 목욕재계하고 관음사 도량으로 가 오백 나한님 앞에 서서 염주를 굴리며 매일 천배씩 7일동안 7천배의 절을 마쳤다. 7일 기도를 마친날 꿈을 꾸었다.

언제나처럼 관음사 부처님께 갔는데 큰 잔치가 벌어져서 신도들이 도량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법당 안에는 식권을 타려고 줄을 서 있었고, 나는 그 틈을 타 화엄성중께 삼배를 올리려는데 하얀 셔츠를 입으신 키 큰 처사가 나타나 나에게 '1000'이라고 쓰인 종이와 '10000'이라고 쓰인 종이를 주며 "식권이니 잘 간직하라"고 했다. 나는 화엄님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화엄님 옆에 선녀들이 나비모양의 부채를 들고 서 있었다. '앗! 저 분이 화엄님이시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보살들이 수군수군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앞에 공양밥 세그릇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여보, 아침이야. 일어나. 이 사람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잠이야. 아침밥 안 줄거야" 남편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 꿈이었던 것이다. 부랴부랴 남편 출근 준비를 돕고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에게 나도 모르게 "좋은 일 있을거예요. 잘 다녀오세요"라며 인사를 했다. 남편은 "관세음보살님에게서 무슨 편지가 왔어?" 너스레를 떨었다. 마음 한편에는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안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며 위로를 하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초조했다.

오후 1시30분, 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남편의 목소리였다. 대령진급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었다. 기쁨의 눈물을 말없이 흘리면서 나는 또 한번 입은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남편은 대령 승진 후 광주 보병학교로 가게 되었다. 남편의 불심은 더욱 깊어져 그곳에서 불교회장을 맡아 매주 일요일마다 군불자법회를 이끌며 포교를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큰 애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딸아이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는데, 엉치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차도를 보이지 않아 애를 태웠다. 연주대 나한님과 약사여래 부처님을 이틀에 한 번씩 찾아 뵙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어린 아기가 엄마에게 젖 달라고 칭얼거리듯 나 역시도 약사여래 부처님 품담을 끌어안고 어린 중생을 도와 달라며 떼달려 마구 흐느껴 울었다.

딸 아이는 학교를 다니며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기를 2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차도가 없어 고 3이 되면 휴학계를 제출하고 아예 아버지가 있는 광주로 갈 심산이었다. 마지막으로 연주대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고 내려왔다.

그날 밤, 나는 참으로 신기한 체험을 했다. 머리에 비녀를 꽂고 흰 저고리, 검은 치마에 흰 끈으로 허리를 동여맨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꿈에 나타났는데 그 할머니는 딸에게 흰색 전기벨트를 매주면서 '이젠 괜찮아'라고 말씀 하시고는 사라졌다. 그 할머니를 부르려는 찰나 나는 눈을 떴다.

다음 날 딸에는 평소 "엄마 나 아파"라며 지쳐있던 모습과는 달리 환한 모습으로 현관문을 들어섰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싶었는데 그 후 딸아이는 허리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리고는 휴학도 하지 않고 무난히 대학에 들어가 대학생활을 한껏 누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길고 긴 인생의 행로 속에 받았던 불보살님의 가피였다.

남편은 올 11월말이면 정년 퇴직을 한다. 나는 과천신도회 연주대 도반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 부처님께 받은 가피를 이제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회향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부처님전에 늘 발원한다.

손불심화(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그림 · 문병성

聖德大王神鍾 에밀레종(국보29호)

원형그대로의 자태와 사이버 사운드의 완벽한 종소리

에밀레종의 은은한 종소리를 안제나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종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한 벤처상품 '사이버 에밀레' 한국방송공사가 만든 프로그램에 녹음해 둔 에밀레종 소리를 전자 사운드 칩을 이용해 디지털화. 이 칩을 에밀레종 축소모형에 넣어 제작 종을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은은한 종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재질 : 합금
종류 : 청록, 동록, 청동
가격 : 143,000



재질 : 주석
종류 : 개금, 골동
가격 : 200,000



재질 : 합금
종류 : 청록, 동록, 청동
가격 : 143,000

• 주문방법 : 전화(02-732-1522/737-8881) / 팩스(02-737-0697)



한정판매

섬세한 목공예 작품을 소장하게 간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재 질 : 홍목(紅木 : Rese Wood ,입명 자단)
특 징 : 조각풍 (중국 현지 스님 작품)
원산지 : 중국 남통시(南通市)

본 작품은 각 3점씩 한정판매 합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8층목탑 - 밑지름 24cm X 높이 71cm
• 반야용선 - 가로 50cm X 세로 17cm X 높이 55cm



• 가격 : 500,000원

• 주문방법 : 전화(02-732-1522/737-8881) / 팩스(02-737-0697)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부다피아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천연옥을 원석 그대로 가공한 석풍 건강옥 방석으로 시원한 여름을…

- 여자냄새, 곰팡이 세균 없는 청결한 목침석
- 세계 최초로 방충 및 청결 효과가 있는 옥침석
- 천연옥을 가공한 건강 목침석으로 여름철 시원함(대나무 방석 대용)
- 키위, 기름, 김칫국물을 흘려도 걸레로 닦아주는 것으로 처리
- 치량 방석으로 사용가능



•크 기 44 x 44 Cm
•원 연 국내산 연옥 분말
•쿳 션 겔트지
•바닥재 미끄럼방지 (우레타+비이오세라믹 처리)

•가격:₩9,000

더우십니까? 함선명상 방석으로 선 삼매에 드세요.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주다 엉당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크기 39x43(cm)

•가격:₩27,000



자비로움의 표현 불자들 모두가 함께입는 여름 필수 부다피아 티셔츠

•재질 순면 100% (20수)
•색상 흰색
•인쇄 나염인쇄 (칼라)

•가격:₩7,000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여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 나팔

100장 이상 주문시 6,560원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천진동자 부채로 더위를 날려 버린다.



앞면



뒷면

•가격:₩750(1개)

바위속에 숨은 부처. 대자대비 바위속에 숨은 영겁의 미소를 영상으로 보며 더위를 식힌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많음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산, 특히, 강주 남산은 불보살이 머물러 있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믿어 수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성역임을 실감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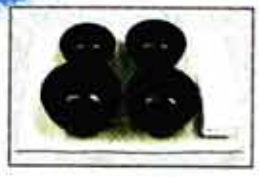
〈제작〉 대정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성 감독-황기태
상영시간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바위속에 숨은 부처

•가격:₩13,000

창포로 만든 수행자 그릇 발우



발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녀야 할 도구의 하나로 범그릇을 말한다. 원어는 빨다라(鉢多羅-patra)인데 제로나 쑥갓, 양은 규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알에 맞는 그릇(應量器)'이라 해석한다. (율장)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철발(鐵鉢)이나 와발(瓦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이다.

• 와발우(4합) - 가 격:60,000원 무게 2.7Kg
• 와발우(2합) - 가 격:30,000원 무게 1Kg
(제품은 재기 불량제품은 일부 입니다)

달마도 순금판 액자



달마도의 대가 해현 윤종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카드(99.9%) 위에서 느껴보세요
개인소지 벽걸이용,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품과는 다름니다.(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 27cm X 32cm
순금판크기 :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066 호

•가격:₩120,000

MahaMall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